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2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451 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탑 지킴이 6년, 복원불사로 결실

혜일 스님 천막 생활하며 창녕동탑 돌봐…유물 14점도 찾아

"불국사 석가탑에 버금" 곳곳에 진정

문화재청, 10억 투입 주변 발굴 · 정비키로

문화재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선 한 비구니 스님의 노력으로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던 국보 34호 창녕읍 술정리 동3층 석탑의 주변정비와 발굴 작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혜일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의 1998년부터 6년 동안 동탑 유물 발굴 및 보존 활동을 근거로 최근 동탑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혜일스님의 동탑 순애보가 1천 2백여 년 간 방치됐던 동탑의 복원불사라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동탑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라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지 않은 곳, 진정서를 내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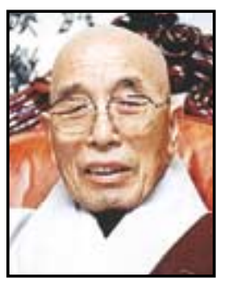
이번 정비사업도 "불국사의 석가탑에 버금가는 동탑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낸 것이 계기가 돼 군청의 도움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현재 동탑 인근 동탑 보호소에서 정진중인 스님은 매년 11월 7일 동탑제를 열고 동탑의 가치를 알리는 인쇄물을 직접 제작 배포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지난 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잠자고 있던 동탑 유물 14점을 찾아내며 탑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창녕문화원과 창녕군청 등에서 동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2001년 '탑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졌으며 65년 해체 당시 진신사리 용구가 발견됐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확인요청을 해봤지만 성과가 없자 참다 못한 스님은 2002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10일간 살다시피 하며 자료를 뒤졌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박물관은 올 2월 해체 복원시 옮겨온 유물 14점이 수장고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날 탑 앞에 절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스님은 "부처님의 현몽으로 시작된 동탑과의 기이한 인연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은 부처님의 가피로 가능했다. 앞으로 인양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동탑이 온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도록 기도 도량으로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원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조계종 前 종정
월하 스님 원적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낸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사진)이 12월 4일 오전 9시 15분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89세 법랍 71세. 관련기사 3면

1933년 강원도 유점사에서 성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40년 통도사에서 구하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월하 스님은 56년 통도사 주지, 58~80년까지 통도사 전계대화상, 72년 통도사 조실을 맡으며 대중 교화에 힘썼다. 또한 1955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시작으로 종단 행정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였으며 56년 총무원 총무부장, 75년 동국학원 이사장, 79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2월 10일 통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된다.

천미희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덕명 스님 원적



조계종 원로의원 남곡당 덕명 스님(사진)이 12월2일 오전 4시40분 기장 안적사에서 원적했다. 관련기사 4면

세수 77세, 법랍 52세로 속연(俗緣)을 다한 스님은 그동안 기장 안적사에 주석하며 대중교화에 힘써왔다.

51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덕명 스님은 해인사 범어사 강원을 마쳤고, 78년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1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다. 오대산, 도리사, 해인사, 파계사 등지에서 용맹정진하기도 했던 스님은 '범망경보살계본'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다비식은 6일 범어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천미희 기자



'통일 기와' 영통사 도착

천태종은 12월 1일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3차분 6만장을 전달했다. 영통사에 도착한 기와를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 제공= 천태종>

일산 불교병원 2005년 3월 개원

홍기삼 동국대 총장 구체 일정 밝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이 일산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 2005년 3월 개원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홍 총장은 11월 2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화합의 밤' 행사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결과 2005년 3월 개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총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빠르면 2004년 가을, 늦어도 2005년 봄으로 개원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 불교병원 개원추진단 관계자 역시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결과 내년 가을에는 예비 진료가 가능하고, 2005년 3월에는 총 800병상 중 400~500병상 규모의 개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해 줬다.

또한 △일산 불교병원 주변 개발계획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 △양 · 한방 협진 가능 등 객관적인 경영환경도 나쁘지 않아 2008년께부터는 흑자 운영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동국대는 이 같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구체적 개원 일정을 공개 설명하는 자리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신행체험수기 공모 마감 임박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12월 13일까지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 구 :(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 릉 :(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최근 각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재자인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종교인들이 6자 회담 성사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나섰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7대 종교 관계자들은 12월2일 서울 인사동에서 모임을 갖고 남북한 종교인들이 모여 6자 회담 참가국 종교인들이 참석하는 '종교인 평화회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북 종교인은 8~10일까지 금강산에서 만난다.

종교인들의 통일 기원

6자 회담에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담 성사 여부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종교인들이 북한 종교인들과 만나 '6개국 종교인 평화회의' 추진을 논의하는 것도 회담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CRP측은 종교인 평화회의 개최가 성사될 경우 6자 회담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6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성사되더라도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노력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아울러 그런 노력이 6자 회담에 반영될 수 있기를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들은 기대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圓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宗團葬 寂

大韓佛敎曹溪宗 第9대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7年 12月 4日(陰 11月 11日) 午前 9時 15分 靈鷲叢林 通度寺 정변전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訃告

■永訣日時:佛紀 2547(2003)年 12月 10日(陰 11月 17日) 午前 10時
■永訣式場:靈鷲叢林 通度寺
■茶毘場:靈鷲叢林 通度寺 蓮華臺

증명: 법전 서옹
고문: 관응 도견 법룡 도원 종산 원명 도천 지종 성수 활안 숭산 원담 녹원 보성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지관 지제 지혜 정지유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법홍 철웅 봉주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홍교 오현 석주
도의원장: 법장
지도의원: 상의위원장: 지하 무비 도영 월서
부위원장: 정락 마근 현해 지명 진각 법정 자광 지성 법타 종상 세민
장의위원: 원정 성오 혜승 평상 명공 명섭 현봉 몽산 용주 법여 철안 원혜 혜자 혜성 종범 혜성 도법 수경 지선 학능 능혜 인환 지안 혜총 혜인 무문 정태 정찬 성주 법산 법안 일면 암도 무진장 성타 정련 천제 청우 종걸 무공 근일 벽봉 고우 무여 적명 인각 현기 명정 현산 함주 정광 원융 현묵 혜국 지환 의정 명진 영진 성재 덕민 통광 혜남 응각 종묵 홍선 현진 진원 종진 성우 무관 철우 지현 혜능 지만 지현 동관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정념 도완 원담 진구 장욱 탄우 인행 선광 법능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우 종광 향적 현응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준원 광조 법경 성국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지홍 학담 종훈 청화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토진 장윤 법안 자승 도공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홍륜 혜원 정성 혜원 혜해 태구 지명 상덕 성원 광우 진관 묘엄 명성 태경 상륜 현문 법용 불굴 혜근 자광 자행 현오 자민 묘순 경희 법성 육문 영운 혜등 일초 지형 일연 일법 해주 쾌성 일진 정안 뇌묵 태헌 성응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일동 초심 · 재심 호계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소청심사위원 일동 종립학교관리 위원 일동 교육위원 일동 교재편찬위원 일동 역경위원 일동 군불교위원 일동 군승법사 일동 전국 경승 일동 전국 향승 일동 전국 비구니회 일동 백창기 선진규 서돈각 고은 홍기삼 조윤제 김기재 하순봉 김규철 전국 포교사 일동 전국 각 종립학교 교직원 일동 중앙신도회 · 전국신도회 임원 일동 교수불자연합회원 일동 교사불자회원 일동 대한불교청년회원 일동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등 교계언론기관 임직원 일동 각 신행단체장(무순)
집행위원장: 현문
집행부위원장: 성관 원명 원산
도감: 법선 진명 산홍 법하 정우 재경 재원
병법: 법성 백운 상진
의전: 청학 미산 정산 천진 지근 정각 정안 인산 도문 원행 시공
지빈: 진철 상운 만오 혜원 보광 · 무위 · 극락 · 표충선원 법전 선림 세능 성조 보근 성법 법일 용봉 성전 설두
재무: 태연 보화 혜기 만초 현담
홍보: 현고 일관 탁연 선암 정법 만초 오성 우진 반산 원오 광우 총무원기획실 불교신문
호법: 종열 덕원 문성 성본 지견 영경 혜오 상원 각현 각운 문수
접수: 정도 신공 선오 진무 자원 종은 선본 보일 각성 현덕 성윤 도심 묘관
만장: 영하 지안 재문 도승
안내 · 주차관리: 도원 명조 용우 만어 도명 법해 남수 지해 일성 정본 통도사 청년회
방송: 오심 병천
영선: 정반장외 7 박희우 황기사
원주실: 방원 지법 각림 종은 신경 일능
별좌: 지석 종원 여해 혜안
후원: 서중 자원봉사반 1팀
지자: 성구 종원 성열 기호 성법
다각: 보타암 · 내원사 · 석남사 비구니 선다회 합창단

〈은돈도명단 3면에 계속〉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사 설

조계종 종무 감사에 부쳐

2003년 조계종 종무행정 감사에서 우수 사찰로 선정된 조계사 등 5개 사찰의 업적을 보면 이제 사찰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 본래적 기능만이 아닌 사찰 나름의 특성화가 필요하며 이제 본격적인 변모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교 사찰의 특성화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그 발걸음이 느리다는 생각이다.

사찰이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우선하고 운영 방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는 일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신도교육 체계와 포교활동, 업무 체계화, 수행사찰의 위상 강화, 어린이 포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 등 사회문제를 불교적으로 접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 하는 것 역시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찰을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는 일 또한 이 시대 사찰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년이 넘는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불교사찰과 이와 함께 잘 보존돼 온 자연은 이제 소중한 국민적 자산으로 이 땅의 문화 중심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불교가 핍박받던 조선시대에도 초파일장 등 사찰 주변에 흥겨운 지역 축제와 문화마당이 펼쳐져 왔던 일을 상기하자.

사찰을 신도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을 박물관, 음악회, 무용, 미술전 등 지역 문화 예술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주 5일제 근로시행은 문화수요 확장을 의미한다. 앞으로 종무행정 감사에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평화선언'을 향해 한 걸음

정치적 혼돈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이 날로 이어져 가는 이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우선하여 북한의 핵 관련이다. 통일이 우리의 최대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통일은커녕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해도 남과 북이 평화와 행복을 고루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6자 회담 결과 도출된 방안에서 일보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자세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도주의와 같은 요란스런 구호만으로 포장된 민족적 패권의식에 사로 잡혀 혹 이 문제를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한번쯤 자성해 볼 시점이다.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6개국 종교인들이 모여 '6개국 종교인 평화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내 7개 종단회의 주요 관계자들이 숙의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이 평화회의가 개최될 경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하는 평화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화선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정부간의 정치적 해석을 갖는다기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종교가 갖는 독특한 사회적 함축성에 미뤄볼 때 양면의 숨은 날이 서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북한산문제 정부 총출동 회유?

각종 기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 대상

"공사 재개 되도록 도와 달라" 전화 · 방문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기관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2월 2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한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정부 기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교구본사 주지 스님도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해 정부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3일 만해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에 따르면 회의가 열리기 수일 전부터 시장 · 군수와 경찰서장, 국가정보원 직원, 문화관광부 직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본사 주지스님들을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한 주지스님은 '국정원 사람이 찾아와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크다.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불교환경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회유하고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행자부 · 경찰청 · 문광부 ·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교계 회유 · 압력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 △참여정부는 불교계 회유 · 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 회의장 앞에서 법현 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등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주지스님들에게 북한산 관련 성명서와 포스터를 나눠주며 북한산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업부 설치 등 종단발전 모색"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의견 나눠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북한산 문제를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종단의 재정 자립을 위해 사업부 신설도 요청했다.

12월 2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본사 주지스님들은 "(정부와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종정스님의 말씀도 계셨고 정부와 계속해 협의를 하고 있다. 골풀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위임해 달라"는 법장 스님의 요청에 따라 북한산 문제를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과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은 "종단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종단 사업부 신설 의향을 물었고,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조직진단이 끝나는 내년 2월쯤 사업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8년 멸빈자 사면문제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행정조치로 해결하려다 종헌 개정 의지를 밝혔는데 원장이 소신이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법으로 행정으로 따지면 98년에는 법이 없고 행정이 없어 문제가 생겼나"라고 반문한 뒤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고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 원융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며, 그래야만 종단에 힘이 생긴다"고 종헌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장 스님은 ▲현행 '선득도 후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득도' 체계로 개편하고 ▲승려 노후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불교전통문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하고 교구본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무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사임

건강상 이유, 정산스님 직무대행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12월 1일 건강상 이유로 물러났다.

지난 7월말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무비 스님은 이날 오전 출근해 교육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비 스님은 "종단 현안이 밀려있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승가교육에 뜻을 두어 교육원장직을 맡았는데,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는 퇴임의 변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교육원장 직무 대행은 교육부장 정산 스님이 맡게 된다. 임기 5년의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중앙종회에서 선출된다.

탄허 스님의 강맥을 이은 무비 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강주와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등을 지냈고 단일계단과 승가고시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중앙종회 부의장, 고시위원장 등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교육원장직을 맡아왔다.

권형진 기자



종무행정우수 5사찰

법장스님, 표창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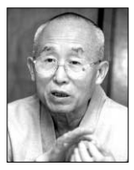
2003년도 종무행정 감사(이하 종정감사)에서 우수 사찰로 선정된 조계사, 법주사 등 5개 사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2월 2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종정감사에서 조계사는 신도교육체계 및 포교활동에서, 법주사는 말사관리를 위한 업무체계화에서, 내소사는 수행사찰로서의 사찰위상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내원사는 천성산 수행환경과 생태계보전 노력이, 은적사는 지역 어린이 포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명우 기자

월운스님, 포교대상 수상

평생을 역경·후학 양성에



경전번역과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쳐온 동국역경원장 월운(사진) 스님이 제15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교원은 대상(종정상)에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역경원장인 월운 스님이,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이 선정됐다고 12월 2일 발표했다. 안동 대원사 주지 정우 스님 등 8명이 원력상(포교원장)을 수상하게 됐으며, 서재영(동국대 강사)씨는 인터넷 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권형진 기자

불교정보화협, 18일 定總

내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제2차 정기총회를 12월 18일 낮 12시 서울 인사동 명성식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 사업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작년 11월 5일 창립, 올 한 해 동안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전국 7개 도시에서 실시해 100여 명의 스님들이 컴퓨터 기초 및 중급과정을 교육받았다. 또 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한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韓國佛敎 太古宗
第十六世 宗正 德菴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1月 22日 涅槃하신 本宗 第16世 宗正 德菴 큰스님의 葬禮式은 宗團內外의 人士를 비롯한 四部大衆이 同參한 가운데 莊嚴하고 如法하게 宗團葬으로 奉行하였습니다.

今番 葬禮期間에 殯所를 찾아주시고 弔意를 表해주신 宗徒를 비롯한 四部大衆 여러분께 깊이 感謝를 드리며, 弔花와 弔電을 보내주시고 또한 永訣式에 직접오시어 弔辭를 해주신 各界 代表께 甚深한 謝意를 表합니다.

仙巖寺 茶毗場까지 同行하여 주신 宗徒여러분에게 거듭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太古宗은 앞으로 涅槃하신 德菴 宗正 큰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歷史와 傳統을 繼承하는 正統 宗團으로서의 責務를 다하여 宗團과 佛敎發展에 한층 더 邁進할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人事를 드려야 마땅한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에 우선 紙面을 통해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惠諒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27일

덕암대종사 열반 49일 추모재 봉행안내

初齋 : 11월 28일 오전 10시
불이성 법륜사
二齋 : 12월 5일 오전 10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3리 무량사 (011-788-4026)
三齋 :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원각사 (055-243-7427)
四齋 : 12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사 (064-762-7489)
五齋 : 12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시 동구 좌천4동 불정사 (051-632-5582)
六齋 : 2004년 1월 2일
장소 미정
四十九齋 : 1월 9일 오전 10시
불이성 법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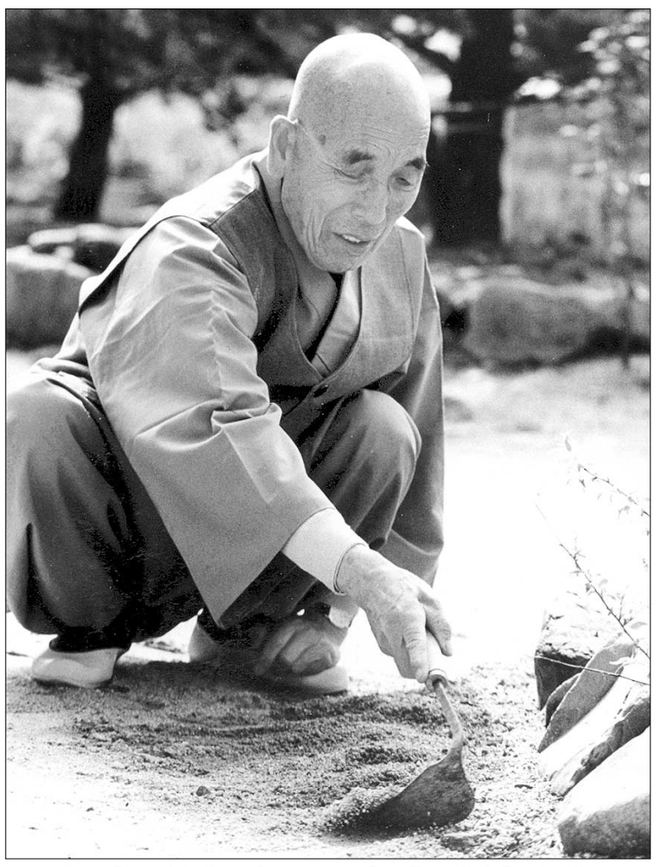
韓國佛敎太古宗 總務院長 李 雲 山
德 菴 門 徒 會 代 表 崔 慧 草

禪旨·자애 갖춘 거목…본분사 몰두 귀감

노천당 월하 대종사 행장

열반게

일물탈근진(一物脫根塵) 한 물건이 이 육신을 벗어나니
두두현법신(頭頭顯法身) 두두물물이 법신을 나투네.
막론거여주(莫論去與住) 가고 머묾을 논하지 말라
처처진오가(處處盡吾家) 곳곳이 나의 집이니라.


◇호미질을 하고 있는 생전의 월하 스님. 스님은 '노동도 수행' 임을 늘 강조했다.

12월 4일 원적에 든 월하 대종사는 격외(格外)의 선지(禪旨)와 자애(慈愛)를 갖춘 선지식으로 종단발전은 물론 승풍 진작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 거목이었다.

1915년 부여에서 윤씨 집안에 태어난 스님은 1933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성환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운수의 삶을 시작했다. 이때 부친과 형이 세 번이나 절에 찾아왔으나 스님의 견고한 의지와 신심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1940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당대의 고승인 구하 스님의 수제자가 되면서 거목으로 성장할 인연이 무르익었다.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라는 상좌의 물음에 "금강산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지"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셨던 스님은 은산철벽을 뚫겠다는 신념으로 참선을 통해 깨달았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을 역임했지만 출가 본분사에 매진했던 때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회고하는 스님의 말씀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스님은 1940년 오대산 방한암 선사 회중(會中)에서 몇 차례의 하안거를 성만한 후 제방의 선원에서 5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젊은 시절 천성산 내원사에서 치열한 용맹정진으로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깨달았다. 언제 어디서든 당당한 주인으로 활달자재한 경지를 드러낸 스님의 수행력은 구하, 경봉, 벽안스님으로 이어져온 불지종가(佛之宗家)의 가풍을 전수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

구도자의 길에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스님은 종단의 어려운 현안마다 이사원융(理事圓融)의 정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1954년 효봉, 청담, 인곡 스님 등과 함께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에 참가해 전국 사찰이 구도도량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교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청정비구승단의 초석을 마련했다.

어려운 현안 이사원융정신으로 해결
효봉·청담·인곡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종단의 요직을 맡으면서 법등의 역할을 자임해온 스님은 철저한 삼보정재관리와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일관해왔다. "시주물을 독 묻은 화살처럼 생각하라"는 당부로 제자와 대중을 일깨워왔던 스님이 동국학원 이사장을 맡았을 때, 당시 인부들이 공사물품에 손을 대는 것을 눈치채고 직접 공사현장에 나가 기와장 하나 하나를 일일이 세면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스님의 근검절약은 비단 삼보정재에만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성보박물관과 설법전이 건립될 때, 한푼 두 푼 모아둔 사재를 모두 내놓으며 도량의 위용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법문비, 거마비는 물론 신도들이 약값에 써달라며 건넨 돈까지 모두 모았다가 불사금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또한 1992년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건립기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1억 5천만원을 보시한 사실을 뒤늦게 안 제자들이 이를 언론에 알리자 오히려 호된 꾸중으로 나무랐다. "제자들이 생신을 챙겨드리려고 하면 새벽 일찍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는 일도 허다했다. 자리에 눕기 전까지 빨래와 처소청소를 손수 하였고, 입적 전에 다비식 비용까지 마련해놓았을 정도로 삼보정재의 혜택을 삼가고 두려워했다.

평소 늘 시골할아버지 같은 자비심으로 정변전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던 스님이었지만 스스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19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자 종도들의 염원을 받들어 제9대 종정직을 수락하고 개혁종헌을 이끌어내고 종단화합과 중흥을 도모하는데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8년 수행풍토가 위협받고 종헌이 준수되지 않자, 스님은 유시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으며 스님의 이러한 단호함과 강직함은 정화당시 스님들 사이에서 "윤고집"으로 통했을 정도였다.

2001년 영축총림 방장으로 재추대된 스님은 항상 근엄하면서도 쓸모 없는 권위를 버리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하심과 자애를 베풀었다. 특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를 몸소 실천해온 스님의 가르침은 영축산 자락에 드리운 불은(佛恩)처럼 뚜렷이 살아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스님이었지만 상좌들에게는 허물을 남몰래 감싸주는 자애로움으로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환속한 어느 상좌의 아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이 직접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미역을 사들고 골목골목을 물어 환속한 상좌를 찾아간 일화는 스님의 소박한 인간미와 깊은 제자사랑을 짐작케 한다. 또한 사중의 큰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상좌에게 스님의 거마비를 내어 상좌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했다.

"알아서 해라." 월하스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의 허락을 청할 때마다 언제나 이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말로 허락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했던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많은 제자들은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스스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함부로 행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통도사=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분향소 표정

스님 주석처 정변전에 분향소
노무현 대통령 조화·조사 보내

노천당 월하스님이 원적에 든 12월 4일 통도사는 분향소 설치와 장례의식 준비로 분주했다. 늦은 오후부터는 10일 종단장으로 봉행될 장례의식 준비를 위해 종단 관계자들이 속속 통도사에 도착했다.

월하스님의 법구는 스님의 주석처인 정변전에 안치되었으며 상좌들은 이곳에 임시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스님,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이 분향소를 찾은 것을 비롯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법조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성본 스님 등 이날 늦게까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5일 오전 분향소가 설법전으로 옮겨졌고 이날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분향소를 다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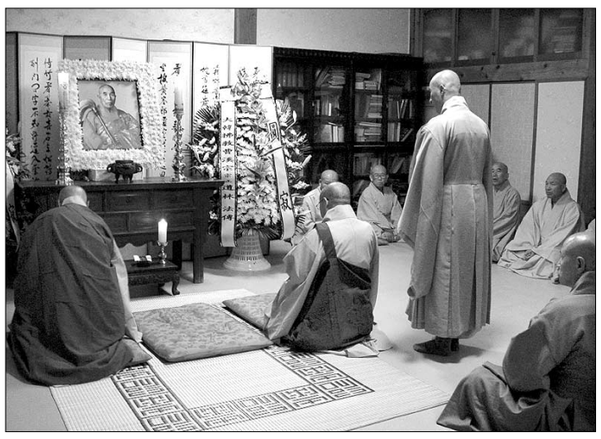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분향소에 조화를 보낸데 이어 5일 "대종사께서 남기신 높은 법의 향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린다"는 내용의 애도문을 발표했다.

통도사는 월하스님의 입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엄산림법회를 스님의 장례 기간인 4일부터 10일까지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했던 대중들은 기도와 정진을 늦추지 않은 가운데, 영축총림의 큰 어른 월하스님의 열반을 아쉬워했다.

화엄산림에 입제, 기도정진 중이던 보안심(73) 보살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신 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합장발원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0일 통도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뤄지며 다비식은 기존 다비장이 아닌 극락암 가는 길에 위치한 공터에서 전통적인 다비의식으로 봉행된다.

통도사= 천미희 기자


◇분향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buddhanews.com에 입적기사 종합

열반·원적 무슨 뜻인가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업연(業緣)을 따라 윤회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큰스님들이 잇따라 세연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죽음'을 표현 하는 단어가 다양해 불자들이 그 '깊은 뜻'을 궁금해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반(涅槃)은 니르바나(nirvana)의 음역으로 본래 뜻은 '불어 끈다'는 것. 즉 사바세계의 번뇌들을 불 끄듯 꺼버린 것, 바로 본래 청정의 자성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적멸(寂滅)은 니르바나를 뜻으로 옮긴 것이다. 입적 역시 적(寂)의 경지로 들었다는 말이니 열반 적멸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죽음을 또 다른 경지로 이해하는 데서 시적(示寂, 적멸을 보였다)이나 고적(告寂, 적멸을 알리다), 순적(順寂, 적멸에 순응하다) 등의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멸(示滅)이란 용어 역시 적멸을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인연을 끊고 떠났다는 의미로 서세(逝世)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더러 엄화(奄化)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는 이승에서의 교화활동을 덮는다는 의미로 세연(世緣)을 다했음을 표현하는 것.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본지는 큰스님들의 열반을 원적이란 단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圓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宗團葬 寂

訃告

大韓佛敎曹溪宗 第9대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7年 12月 4日(陰 11月 11日) 午前 9時 15分
靈鷲叢林 通度寺 정변전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佛紀 2547(2003)年 12月 10日(陰 11月17日) 午前10時
■永訣式場 : 靈鷲叢林 通度寺
■茶毘場 : 靈鷲叢林 通度寺 蓮華臺

<1면에 이어>

喪主 : 홍법청하 초우 현산 운하 서주 태응 약산 운성 목산 정산 현파 성파 신허
산옹 현문 태봉 영도 능현 기봉 진오 용문 일현 청운 자하 준선 항조 현초
목주 수원 주원 혜원 관우 백진 오심 남능 만천 성형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주석 현광 지수 자고 기현 구성 해두 진명 오성 이지 삼해 이수
병천 성구 기호 종원 성화 성열 성법 지명 항련 지만 성기 지원 우석 현관

法喪 左 : 두산 수암 청암 성암 황산 준암 운보 여산 만선 양진 거산 송현 건오 금산
중산 수안 철웅 지산 가열 보탑 기호 현오 혜오 동화 철암 죽산 도하 청효
오봉 효산 영랑 도정 성곤 경남 만다 현관 철환 회암 종명 영상 장우 니우
수원 원산 보광 영산 서조 상도 뢰묵 법혜 법조 법운 황산 준암 경희 현선
혜선 보현 법선 명원 혜혜 (6人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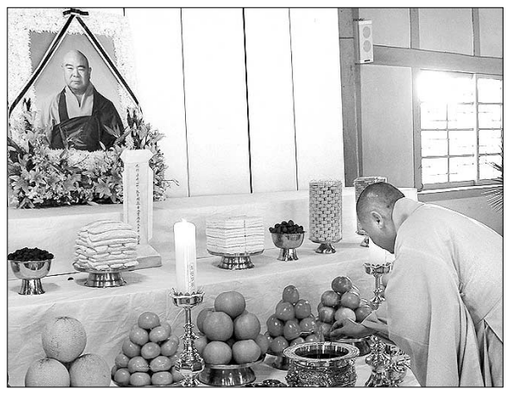
孫喪 左 : 정우 재경 상경 지용 영재 현근 상운 진성 도응 문성 혁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우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영노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행 묘신
호암 재원 재문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안 지문 도원 도응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륜 진오 여해 영하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법은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덕원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안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안 우진 법철
혜초 법진 정현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주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법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해 지철 범용 남곡 혜일 혜종 혜안 혜봉 혜공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선행 선오 성혜 성업 성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중 자원 자금
초중

增孫 喪 左 :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진 성화 성견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척 신행 지무 도피안
선철 선각 혜성 혜원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우 동명 명조
자금 일법

高孫 喪 左 : 용주 용성 효성 용린 종백 용제 용봉 하유 지성 만성 용파 함수 법우

■문의 및 연락처 :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FAX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葬儀委員會



◇12월 2일 범어사 보제루에 마련된 덕명 스님 분향소에서 한 문중 스님이 조문을 하고 있다.

80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동산 스님, "큰도둑질 할 놈" 격려

덕명 스님 행장

열반게

몽환생애칠십년
(夢幻生涯七十年)
금조탈곡환본향
(今朝脫殼還本鄕)
월락금정적요리
(月落金井寂寥裡)
오경종성보천한
(五更鍾聲報天寒)

꿈같은 생애 칠십(七十)년
오늘 껍질 벗고 고향에 돌아가네
금정산(金井山)에 달 기울고 고요한 속에
오경(五更) 범종소리 하늘 차갑다고 알리네.

12월 2일 원적(圓寂)에 든 덕명 스님은 1980년 부산불교연합회를 창립, 부산지역 종단화합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당시에는 선방 수좌로서 공부 재미에 깊이 매료되기도 했던 스님은 결제 중 동산스님에게 공부 중 느낀 게송을 적어 보내 점검을 받았다. 그때 동산스님은 스님에게 "큰 도둑질 할 놈"이라며 격려했다.

이후 범어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각 종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결기구인 부산불교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양부모로 모셨던 큰아버지까지 절에서 모실정도로 효심이 뛰어났던 덕명 스님은 이러한 연유로 선방에서 정진하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했다고 맏상좌 도현스님은 전했다. 새벽 홀로 깨어나 정진하는 스승의 모습은 절반 이상의 상좌를 선원 수좌로서 정진하게 하는 말없는 가르침이 되었다. 이처럼 스님은 제자와 신도들에게 철저한 정진을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철저한 수행가의 면모를 지녔고 신도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1961년 안적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쇠락한 도량의 중창불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간방생회를 창립, 불우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일에도 매진했다. "스스로 해탈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방생이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다운 방생"이라고 강조해온 스님의 뜻에 따라 신도들의 자비실천은 자연스럽게 성숙될 수 있었다.

안적사 신도로 35년 전부터 덕명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선법행 보살은 "불과 일주일전, 초하루 법회에서 처소에서 마이크로 법문을 하셨는데 이리 갑자기 가실 줄 몰랐다"며 "불자로서의 걸음걸이, 말씨 등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을 잃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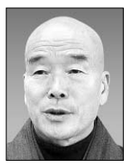
스님의 빈소가 마련됐던 범어사 보제루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스님을 비롯 각계각층의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다.

신도들에게 보다 나은 공부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불사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덕명 스님은 불사를 회향하고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교련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7일 동대문청소년독서실에서 '2003 청교련 우수 자원봉사 시상식'을 봉행했다.



지도자과정 첫 졸업식 봉행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12월 18일 선각종 총무원 강당에서 종립 국제불교대학 제1회 지도자과정 졸업식을 봉행한다.



성북사암련 송년법회
서울 성북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내원사 주지)은 12월 10일 미아동 동방웨딩홀에서 2003년도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윤리문화연 창립총회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이사장은 12월 13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다향관에서 윤리문화연구원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일주문



대불련 지도자 워크숍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은 12월 6~7일 대전 경하호텔에서 '대불련 총문동회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생작품 전시 · 발표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회문화교육원장 김용택 교수는 12월 4~8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제3회 원생작품 전시 · 발표회를 개최했다.



맛지마니까야 완간봉정식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12월 12일 불교방송 법당에서 맛지마니까야 전집 완간봉정법회를 봉행한다. (02)2631-1381



불사 청우, 복지 성운 스님 2003 해인승가상 수상자
합천 해인사승가대학총동문회(회장 세민)는 최근 해인사에서 총회를 열고, 2003년도 해인승가상 불사 부문에 청우 스님(등명낙가사 주지 · 사진 위), 복지 부문에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 · 사진 아래) 등을 선정 · 시상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 공연
서울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학장은 12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본 양원사 합창단 초청, 찬불가 공연을 개최한다. (02)732-1206



몽골 푸레발 스님 환영 오찬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김기재 회장은 12월 2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몽골불교미술대학장 푸레발 스님 환영 오찬을 개최했다.

"학회가 야단법석의 場 되길"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 이평래 교수



"한국불교학회가 야단법석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11월 29일 한국불교학회 제39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평래(충남대 철학과 • 사진) 교수는 30년 역사의 한국불교학회를 회원들 간에 논쟁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담론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꿀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마련입니다. '썰렁한' 학술대회를 벗어나 야단법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학회에서 '꿀'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주는 '꿀'이기 보다는 '독'일 수 있는 만큼, 과정은 힘들겠지만 회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두 모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학회가 꿀을 준다면, 회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회원들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운영이 어려울 때에도 "정법을 따르면서 원칙을 지켜 항상 이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소신을 밝힌 이평래 교수. "기회가 된다면 지방에 있는 종립대학인 위덕대, 금강대, 원광대 등에서도 학술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지금까지 동국대에서 주로 개최됐던 학술대회에 변화를 주고, 학회 내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교음악 정체 · 정통성 확립 최선"

자랑스런 불자상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



"한국불교음악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4일 사단법인 불국토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11회 자랑스런불자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자랑스런불자상을 수상한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 · 사진)는 한국불교음악의 체계적인 정립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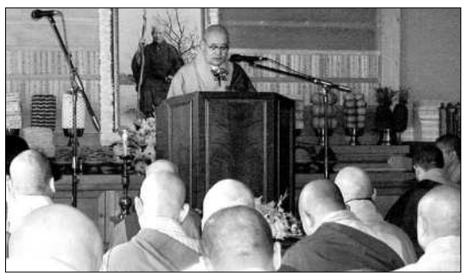
박 교수는 특히 한국불교음악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족음악의 뿌리를 찾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족음악의 창출 키워드는 바로 불교에서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박 교수는 그간 불교음악의 생활화 · 민족화 · 세계화를 주창해 '찬미의 나라' 등과 같은 노래들을 다수 작곡했다.

또 박 교수는 국악을 통한 불교창작음악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상을 모티브로 한 작곡 활동은 불교음악의 미래를 여는 시대적 작업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교수가 '붓다', '보현행원송', '부모은중경', '진감', '용성' 등 굵직한 불교창작교성곡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취지 때문이다.

"불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듯,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영화, 연극, 드라마, 무용, 대중음악 등의 영역에까지 불교음악이 파급될 수 있도록 창작 작업에 몰두 할 생각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경산대종사 추모재 봉행



서울 적조사(주지 자성)는 11월 30일 성북구 적조사 대웅전에서 경산 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삼귀의, 경산 대종사 행장 소개 등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경산문도회 대표 자도(춘천 충원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안양불교대학 졸업식



안양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은 11월 28일 대학 대법당에서 제6기 기초반 및 제4기 경전반 졸업식을 봉행했다. 인사말, 육법공양 등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은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법문했다.

圓 元老議員 南谷堂 德明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訃 告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南谷堂 德名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7년 12월 2일(음 11월 9일) 새벽 부산 기장군 장산 안적사에서 원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불기 2547(2003)년 12월 6일(음 11월 13일) 오전 10시
■永訣式場 : 釜山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茶毘場 : 釜山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茶毘場

證明 : 법전 서응 월하
葬儀委員長 : 도원
葬儀副委員長 : 종산 원명
葬儀委員 : 석주 관응 도견 법룡 도천 수산 성우 활안 숙산 원담 녹원 보성 이두 정천 천운 동훈 지관 진제 지혜 조우 혜정 지유 월성
護喪 : 법장
指導委員長 : 지하 흥교 도영 무비
指導副委員長 : 지백 고산 능가 정관 백운 무진장 성현 선래 홍원 명선
指導委員 : 선용 일미 양익 향운 여현 성오 몽산 창도 호연 혜관 담연 도근 혜원 오본 대성 영환 계전 반월 휴정 무근 법륜 수월 향국 경암 성광 홍신 일원 관조 거해 덕민 광진 경선 지정 지오 지연 지상 법산 설파 정여 각명 정만 선재 월주 송담 정무 월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월서 법홍 철우 봉우 정원 송월 종하 설정 오현 성파 통광 현성 혜성 도법 지선 암도 일면 정련 성타 종범 학능 능혜 인환 종진 성우 지안 혜총 혜인 원융 적명 무여 명정 무문 고우 정광 혜기 금아 인각 지환 정태 정찬 영진 성주 법산 법안 진철 정락 마근 현해 지명 진각 법정 자광 지성 법타 종상 세민 원정 현문 혜승 평상 명공 명섭 현봉 몽산 용주 범여 철안 원혜 혜자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정념 도완 원담 진구 장곡 탄우 인행 선광 법흥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주 종광 향적 현응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준원 광조 법경 성국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지홍 학담 종훈 청화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토진 장윤 법안 자승 도공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흥륜 혜원 계호 경륜 정성 혜원 혜해 태구 지명 상덕 성원 광우 진관 표엄 명성 태경 상륜 현문 법용 불퇴 혜근 자광 자행 현오 자민 표순 경희 법성 육문 영운 혜등 일초 지형 일연 일법 해주 쾌성 일진 정안 뇌묵 태현 성공(무순)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종무원 일동
초심 · 재심 호계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소청신사위원 일동 종립학교관리위원 일동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일동 경승 일동 전국 향승 일동 전국 비구니회 일동 고은 백창기 선진규 서돈각 류진수 박수관 송용우 김승덕 배묘지광 이대원행 홍기삼 조윤재 김기재 하순봉 김규철 전국 포교사 일동 전국 각 종립학교 교직원 일동 중앙신도회 · 전국신도회 임원 일동 교수불자연합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청년회 임원 일동 학교법인 금정학원 임직원 일동 학교법인 해동학원 임직원 일동 부산불교 연합회 임직원 일동 부산운전기사불자회 회원 일동 부산여성불자회 이사회 일동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대한불교신문 등 교계언론기관 임직원 일동 각 신행단체장(무순)

執行委員長 : 성오
都監 : 석공 초안 정야
秉法 : 창봉
儀典 : 계전 반월 능허
知賓 : 몽산 인각 나학 선원대중
財務 : 지종
弘報 : 도관
書記 : 지광
接受 : 정한 용학
護法 : 각우
院主 : 초안
別座 : 남경
侍者 : 월제 외 강원대중
茶角 : 대성암 대중
門徒代表 : 도현
上座 : 현오 법진 법상 법현 법광 도림 법안 법연 법림 법일 무공 도일

■問議및連絡處 : 釜山廣域市 金井區 青龍洞 五四六番地 梵魚寺
☎ 051-508-3122~7 / 508-3636

元老議員 南谷堂 德明大宗師 元老會議 葬儀委員會

부처님과 함께 '송구영신'

해인사 등 50여 사찰 겨울 수련회 준비

겨울산사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 전국 50여 사찰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연말연시를 사찰에서 보낼 수 있도록 겨울 수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겨울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 자유정진, 자비명상, 선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주 마곡사와 대흥사, 인제 백담사 등은 종교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인사, 장성 백양사, 예산 수덕사, 창원 서원사, 원주 구룡사 등은 심도 깊은 수련을 할 수 있는 참선, 1080배 정진 등을 준비했다.

사찰의 특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찰도 많다. 공주 영평사의 7일간의 단기출가, 정읍 유선사의 약사경 독송법회, 완도 신흥사의 한문학당, 홍천 칠불선원의 산골마을 체험,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 수련, 보성 대원사의 관정기도 등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어머니, 가족, 외국인 등 대상층도 다양해졌다. 골굴사는 일반인과 외국인, 초·중·고생을 나누어 수련회를 실시하며, 대흥사와 완도 신흥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또 군위 지보사는 어머니, 화성 신흥사는 청소년 수련회를 각각 준비한다.

완주 위봉사, 광주 명성암, 서울 봉은사, 대구 관음사, 예천 서악사 등은 성도절(12월 30일)에 특별 수련회를 연다.

조계종포교원 신행정보센터(http://info.ibuddhism.org)는 이같은 겨울 수련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겨울수련회 개최 사찰

지역	사찰	일정	주요프로그램	전화
서울	삼보사	12.20~21	물사랑 건강수련	(02)352-6406
대구	동화사	12.31~2004.1.1	참선, 1080배	(053)982-0101
화성	신흥사	2004.1.6~8 1.11~14 1.17~18	다도, 공동체놀이	(031)357-2695
광주	명성암	12.30~31	3천배 정진	(031)762-9026
평창	월정사	12.19~21 12.29~30	숲길 산책, 자유정진	(033)332-6664
원주	구룡사	12.19~22 12.26~29	참선, 예불, 울력	(033)732-4800
예산	수덕사	매월 3,4주 주말	참선, 철야정진	(041)337-6565
공주	마곡사	매주 주말	명상, 참선, 자유정진	(041)841-6220
공주	영평사	12.30~2004.1.5	청소년 단기출가	(041)857-1854
경주	골굴사	매일	선무도 수련, 참회	(054)744-1689
예천	서악사	12.30~31	간경 철야정진	(054)655-0108
합천	해인사	12.11~14 12.18~21 12.25~28	참선, 1080배 정진	(055)931-1001
창원	서원사	12.17~19 12.24~26 12.31~2004.1.2 1.7~9 1.14~16 1.21~23	선문강좌, 참선	(055)291-6405
해남	대흥사	12.19~21	암자순례, 숲길 산책	(061)534-5502
장성	백양사	12.27~31 2004.1.7~11 1.29~2.1	참선	(061)392-7502
보성	대원사	매주 주말	좌선기공, 관정기도	(061)852-1755
제주	원명선원	12.24~28 12.31~2004.1.4	참선, 독경	(064)755-3322



◇4개 종교인들이 가톨릭센터에서 광주우체국까지 평화의 촛불행진을 펼치고 있다.

"전쟁 막아 자비·사랑 실현하자"

이라크 파병반대 4대종교 시국기도회

이라크에서 한국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파병반대를 위한 4개종교 '시국기도회'가 12월 4일 광주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기도회에는 불교계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광민 스님,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과 개신교 강신석 목사(광주 NCC), 원불교 이응원 교무(남광주 교당), 천주교 박철수 신부(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시국기도회에서 각 종교 대표들은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파병반대를 위해 온 국민이 뜻을 함께해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가톨릭 센타에서 광주우체국까지 평화의 촛불행진을 펼쳤다.

광주= 이준엽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불교환경연합으로 확대 개편

불교환경연대, 전환위원회 구성 결의

불교환경연대가 불교환경연합(가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불교환경연대는 12월 3일 조계사 불교대학 1강의실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 정성운 사무처장 등이 포함된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실무력 제고를 위해 사찰·신도회 소임자 대상 환경 강좌 년 4회 실시 △불교환경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불교환경포럼 연 2회 진행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생명평화순례 참여 등을 2004년 사업으로 확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9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10개 종단들이 동참하는 불교환경연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남동우 기자

현불사 옆 고압송전탑 건립 저지

주지 고성 스님, 열흘째 단식 농성

광양 가야산 현불사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1년9개월째 대치중인 주지 고성 스님이 결국 최후 수단으로 단식에 돌입했다.(사진)

"법당에서 백미터도 안 되는 곳으로 345kv 송전탑이 세워지는데다가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154kv 고압선마저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12월 4일로 단식 10일째를 맞는 스님은 "사찰옆으로 두개의 고압선이 지나가면 더 이상 사찰로써 역할을 할 수없다"며 죽음마저도 불사한 단식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양시청 앞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며 혈혈단신 단식에 돌입한 스님은 "제철소의 회유로 주민들이 서로 반목, 대립하는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며 "빨리 사찰이 정상화 돼 예전처럼 신도, 주민들이 쉬어가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양=이준엽 기자



개인 성타스님·박광서 단체부문 동산반야회

17일, 대원상 시상식

제 1회 대원상 개인부분에 성타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사진 왼쪽)과 박광서 상임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가운데)가, 단체부분에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오른쪽)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제정한 대원상은 불교포교에 기여한 개인에게 각 1천만원, 단체에게 1천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연환경보존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성타 스님은 불교환경운동의 대사회적 인식을 높인 공로이며,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를 창립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실천하는 불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산반야회는 동산불교대학뿐 아니라 네팔돕기, 기아돕기, 염불만일 운동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불교종립대학들 2004 신입생 모집

불교 종립대학들이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12월 10~15일 가, 나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인터넷(www.dongguk.edu)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수능성적만 반영한다.

12월 1일부터 정시 모집에 들어간 위덕대는 15일까지 나,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위덕대는 14개 학부, 25개의 전공으로 개편해 학교생활기록부 40%, 수능성적 60%를 반영한다. 접수는 인터넷(www.uieduk.ac.kr) 및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금강대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총 75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불교학전공은 나군과 다군으로 나누어 총 14명을 선발한다. (041)731-3114

박봉영 기자

북한어린이용 분유 2톤 평화불교연대 26일 전달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이하 평화불교연대)는 11월 24일 인천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보낼 분유 2000kg을 선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분유는 평화불교연대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구입한 것이다.

분유는 26일 선박편을 통해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에 전달됐다.

이준엽 기자

책 권하는 사회

목탁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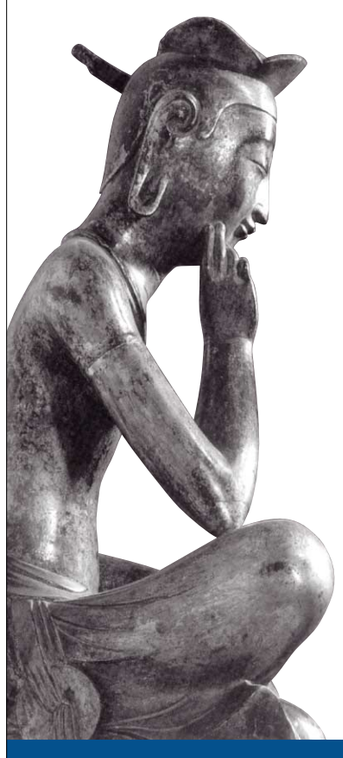
여수령 (취재2부 기자)

최근 사회일각에서 '독서운동'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충남 서산시와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비롯해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독서새물결운동'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범국민적인 독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안성 도피안사가 '독서운동'의 불을 지폈다. 도피안사는 지난 7월부터 조홍식 교수(성균관대)와 이시우 박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지도위원들을 중심으로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서 읽기는 곧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독서를 통해 개인의 정신적 자각과 성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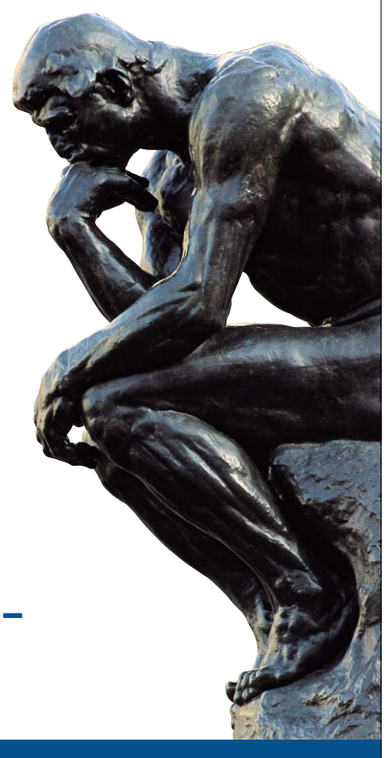
그동안 '문자(책)는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자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교계에서 이러한 독서운동이 펼쳐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권의 좋은 불서는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물론 수행정진의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의 "불서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책읽기와 마음닦기 모두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나가 불서 한 권 구입해 보자. 이 겨울, 당신이 읽은 책 한 권이 든든한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다.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2004 동국 백주년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1906

동국대학교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인터넷 접수 : 12.10(수)~15(월)- (서울캠퍼스 "가", "나"군 분할 모집, 경주캠퍼스 "가", "다"군 분할 모집)
문 의 전 화 : 서울캠퍼스 학생선발실 (02)2260-3031~4,- 경주캠퍼스 학생선발실 (054)770-2031~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ipsi.dongguk.edu
100% 인터넷 원서접수 www.uway.com, www.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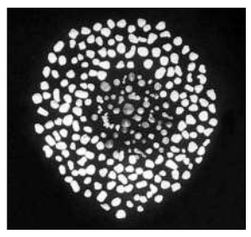
상월·대충 조사 탄신 다례
천태종, 12월 21, 27일

천태종은 12월 21일 오전 11시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중창조인 상월 조사의 제93회 탄신 다례 및 대재를 봉행한다. 천태종 총무원은 "상월 조사의 생애와 유훈을 받들어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중생제도에 전력해 나가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태종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구인사에서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충 스님의 79회 탄신 다례를 올린다.

박봉영 기자

덕암 대종사
사리 242과 수습



11월 22일 열반한 태고종 제16세 종정 덕암 대종사의 법구에서 242과의 사리(사진)가 수습됐다. 덕암 대종사 장의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리를 수습한 결과 총 242과의 사리가 출현했다고 밝혔다.

덕암 스님의 사리는 마지막 주석처였던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 부도탑을 세워 봉안할 예정이다. 사리친견법회는 추후 덕암문도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새 집행부 구성

"위상 높인다"

회장 송덕 스님, 부회장에 보현·진법 스님
비구니강원 재설립 · 재정독립 추진키로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전국비구니회가 제역할 찾기에 나선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2월 3일 서울 봉원사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종단내 위상 회복 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송덕 스님(용인 관음사 주지)은 수석 부회장에 보현 스님(의왕 계명정사 주지), 부회장에 진법 스님(인천 법호암 주지), 총무부장에 정원 스님(포천 상락원 주지), 교무부장에 진원 스님(양평 송학사 주지)을 각각 내정했다. 또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운영위원장에 자심 스님(파주 광법사 주지), 감사에 정휴 · 법조 스님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종단내 비구니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비구니 강원 재설립, 비구니회의 재정 독립, 독자적인 교육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 이전 이후 문을 닫았던 사무실도 용인 관음사에 설치, 각종 회의 주재와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총무원과의 관계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총무원 청사 건립 기금과 동방대학원대학 발전기금 모금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종단발전을 견인하는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체 1천5백여명에 달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포교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네트워크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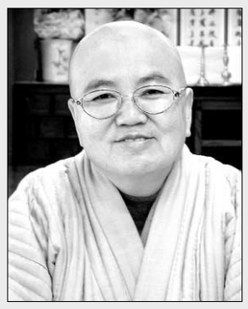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급증하고 조계종 비구니회관 개관, 지율 스님의 천성산 지킴이 활동 등 한국불교에서의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늘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은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종단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단발전에 한 축 담당할 것

3대 회장 송덕 스님



"종단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3일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송덕 스님은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와 포교도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비구니회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 나감으로써 종단을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덕 스님은 "사무국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구 중심 종무행정 정착"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진각종이 지역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진각종은 11월 27~28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중앙 종무기관 보직스승과 6개 교구청 직무스승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교구 직무스승제도를 정착하는 등 지역 교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각종의 교구 직무스승제도는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 운용 등을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분담해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앞으로 종무행정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은 교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교구청 · 산하 심인당 간의 종무행정 등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본원종 양평 포교도량 서림사 낙성

본원종 양평 서림사(조실 무구)는 11월 30일 낙성, 과천 유점사에서 이운한 아미타삼존불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승정 혜초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양평사암연합회장 화암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서림사는 주법당인 수광전과 요사와 수련원 기능을 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설선당 등을 갖췄으며, 부설단체인 사단법인 불교아미타염불선원을 중심으로 재가불자 안거와 수행 · 교육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원융종 · 삼론종 총무원 이전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11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23번지로 총무원을 이전하고 법회를 열었다(사진). 종정 일공 스님은 "종단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 청사에는 지상 4층, 연면적 250여평 규모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교육장, 숙소, 법당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한편 삼론종(총무원장 혜광)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번지 혜림사로 총무원을 이전했다.

종단소식

태고사 성역화 불사 추진

태고종은 종조인 태고보우국사 부도와 탑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종단 성지로 육성한다. 태고종은 최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주변부지 6천여평을 7천여만원에 매입, 태고종 소유의 사찰부지로 등기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태고보우국사의 부도와 탑비를 비롯해 도량을 성역화하는 불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임시종의회 개최

진각종 중앙종의회(의장 진산)는 12월 16일 오후 2시 대구교구청 회의실에서 제336회 임시종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의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덕화노인요양원 등 개원

진각복지재단은 12월 1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덕화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 종단 자체 복지시설로 건립된 덕화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480여평 규모로 노인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12월 9일 대구 원대동 3가에 보은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032)833-2300

게시판

행사

▲조계종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 유스호스텔에서 심신수련 활동 및 문화 · 예술 활동 중심의 고3수험생 수련캠프를 연다. (02)723-6165

▲대한불교청년회가 운영하는 만해문화대학은 12월 17일 만해교육원에서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02)738-1920

▲동악미술사학회는 12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윤용이 명지대 교수와 장희장 전남대 강사가 '강화 선원사지 출토 고려청자에 관한 고찰'과 '근대 수도권 불화의 전통성과 신경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02)2260-3463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는 12월 12일~14일 경북 예천 봉명사에서 '범사회적 이슈에 처한 승가의 입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 행사 후에는 용문사, 봉정사, 부석사 등 사찰 순례도 계획돼 있다. (031)980-7782

모집

▲천태종 산하 유치원이 2004학년도 원아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부산 광명사 유치원 400명 △마산 유성유치원 180명 △대구 동해유치원 390명 △춘천 삼운사유치원 170명 △횡성 광제사유치원 80명 △단양 광법사유치원 80명 △안동 해동사유치원 210명 △창원 유성유치원 185명 △원주 성무유치원 180명 △영월 삼태사유치원 90명 △울산 정광사유치원 230명 △진주 월경사유치원 200명 △김천 금강사유치원 175명 △홍천 강룡사유치원 90명 △통영 서광사유치원 210명 △밀양 삼양사유치원 130명 △대전 삼문사유치원 150명. (043)423-7100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신입 아동을 모집한다. 오후 보육은 오후 1~6시, 방학 종일 보육은 오전 9시~오후 6시. 국어 · 수학 학습 지도는 물론 다도, 미술, 영어, 집단활동, 체험학습, 주의집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02)421-6077

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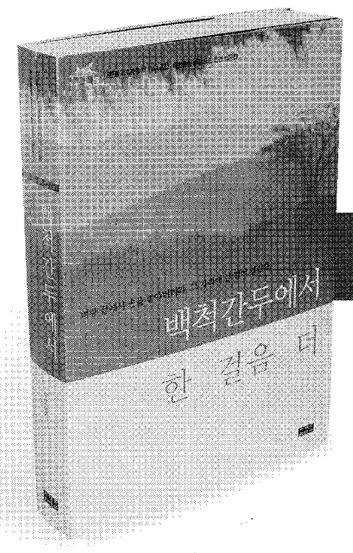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 생활보조원 1명을 구한다. 마감은 12월 17일. (033)762-8131

▲여수노인복지관은 12월 13일까지 이동복지관에서 일할 사회복지사(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를 구한다. (061)685-2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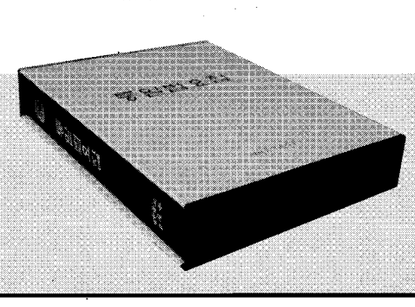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대한불교조계종 제 11대 종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 · 큰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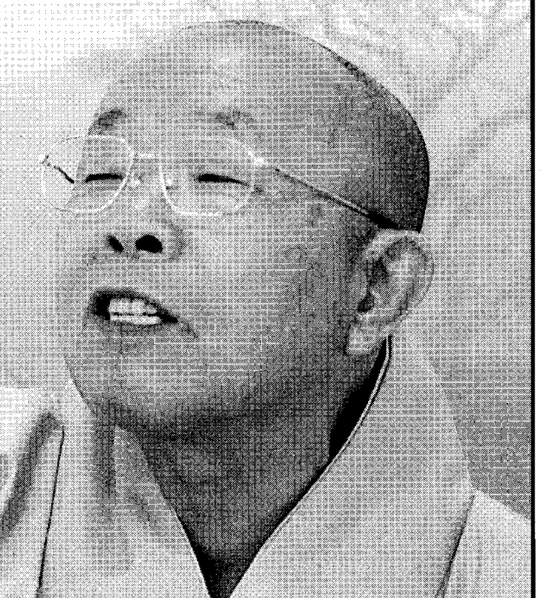
평생을 간직하고픈 책!
매일 읽어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법문들을 모았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도림 법전 / 조계종출판사 / 정가 20,000원
수행자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경책이 될 책이다. - 한겨레
선승들의 대화법과 기풍을 일반인들도 짐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일화들이 듬뿍 담겨 있다. - 조선일보
수행자로서의 인간적 고뇌와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 문화일보
평생 참선 수행으로 일관한 정통 선승,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의 수행기. - 동아일보
뼈를 깎는 수행담과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승들과 교유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담긴 책이다. - 대한매일
출가해서 종정이 되기까지 생사를 초월한 수행, 진리와 평화에 이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세계일보



통일법요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정가 30,000원
통일법요집은 각각의 사찰에서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계종단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최대한 의식집전에 편리하도록 꾸민 통일법요집은 미래 불교의식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Tel. 02 · 733 · 6390(代) / Fax. 02 · 720 · 6019 조계종출판사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개성 영통사 복원 현장

도량 장엄… 통일 가까이

대각국사 출가·열반한 성지
천태종, 46만장 기와 지원
평화통일 한 몫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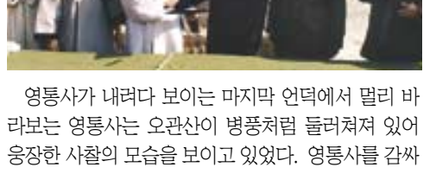




◇한창 복원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전경(위)과 주법당에 해당하는 보광원(아래). 대웅전이 복원되기전 터를 지키고 있는 3기의 석탑(가운데)이 애처로워 보인다.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 대각국사가 출가하고 열반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가 천년의 베일을 벗고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천태종에서 영통사 복원에 쓰이는 46만장의 기와를 지원하게 된 인연으로 현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정겨움과 어색함이 공존하는 북녘산하



12월 1일 3차 기와 지원단과 함께 오전 9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여 남측 구간을 넘어서니 '여기부터는 개성입니다'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개성 시내까지는 18km의 거리이니 바로 지척이다. 북측 출입국 관리소 병사들의 무뚝뚝함이 긴장을 자아내고 시간을 끌었지만 처음 찾는 북한의 산하는 화창한 날씨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가는 농촌과 도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녔고, 소 달구지나 조그만 손수레를 끌며 짐을 나르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일행이 흔드는 손에 답례하여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숨어서 훔쳐보기도 한다. 벌써 3차례 기와 지원 차량을 보니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비록 남루하지만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움도 묻어난다.

하지만 지어진지 오래되어 이미 낡은 커다란 건물마다, 그리고 지나는 길목마다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붉은 색의 구호들은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깨닫게 했다.

고증에 의해 복원되고 있는 불사현장



영통사가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는 영통사는 오관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웅장한 사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영통사를 감싸고 있는 오관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보배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영통사에 도착한 일행은 대각국사 비석 앞에서 물품 인도 인수서에 서명하는 간단한 전달식을 가졌다. 사찰의 회랑 곳곳에는 아직 올리지 못한 기와와 양생중인 기와들이 쌓여 있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가까이서 본 공사 현장은 매우 거칠었고, 아직도 많은 공정을 남기고 있는 듯 했다.

우리를 안내한 복원공사 총감독 김영균(金永均)씨는 역사적인 영통사가 철저한 고증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각국사비와 5층석탑과 동삼층탑, 서삼층탑, 당간지주만이 남아있던 곳을 지난 98년 일본의 다이쇼(大井)대학 고고학팀과 함께 발굴작업을 벌여 5~6미터 지하에 묻혀있던 기초를 발견함으로써 본격적인 복원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평 3400평에 이르는 고려왕실 원찰

영통사의 총 부지는 6만 평방미터, 복원되는 28채의 건평은 총 3400평방미터다. 복원된 영통사 가람배치를 보게되면 좌측을 중심 축선으로 하여 당간지주를 왼쪽으로 두고 남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면 중문이 나온다. 중문 양옆으로는 종을 걸 종루와 경루가 세워져 있고, 중문 안에 부처님을 모실 보광원이 자리하고 있다. 2층 양식의 단일 건물인 보광원은 대웅전에 해당하는 건물로 영통사에서 가장 큰 전각이다. 보광원 앞에는 오층석탑이 서 있고, 양옆으로 삼층석탑이 함께 세워져 있다. 그런데 석탑들은 아직 제자리를 못잡은 듯 보광원 앞에 너무 바짝 붙어 있다. 3개의 석탑은 기단과 상륜이 모두 유실되었는데 이를 복원하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형상이 되도록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광원 뒤로는 중각원이 들어서 있다. 중각원은 경을 강하던 강당으로 고려사에도 50여차례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중각원 뒤에는 일명 행궁이라고 부르는 숭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숭복원은 고려 왕실에서 영통사를 참배하러 왔을 때 왕들이 묵었던 행궁으로써 사찰과는 별도의 회랑을 통해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영통사가 고려 왕실에서 어떤 사찰보다 많은 참배를 다녀간 사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통사가 고려 왕실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려 태조 왕건때 부터이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집안을 부흥시킨 왕씨의 발상지인 이곳에 조상들이 지었던 조그만 암자를 숭복원이란 이름의 국가 사찰로 만들었다가 다시 확장하며 영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연유로 영통사는 고려왕실의 원찰이 되었으며, 왕자였던 대각국사의 출가도 영통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천년모습 대각국사 부도·묘터 남아



당간지주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대각국사의 부도를 모신 경선원이 자리잡고 있다. 대각국사의 부도는 천년의 모습을 간직한 옛모습의 축대와 계단위에 모셔져 있어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남쪽에도 선암사의 대각암에 대각국사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대각국사를 기리는 역사적 사실만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영통사에는 대각국사의 묘소가 남아있다고 한다. 1101년 열반에 든 대각국사 유해를 20년이 지난 1121년 다비하여 부도를 모시고 1125년에는 대각국사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중문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묘터가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통사는 그 자취들만으로 세월을 거슬러 오르게 한다. 영통사 입구에 있는 영통교 밑에는 큰 바위에 오관산 영통동문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곳이 오관산 영통사 입구라는 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정경은 조선 후기의 화가 강세황이 그린 진경산수화인 <영통동구도(靈通洞口圖)>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이 한마음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인 영통사를 복원하는 일에 나섬으로써, 통일불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천태종의 통일기와 지원불사는, 첫걸음은 미미할 지라도 남북 평화통일을 여는 물줄기를 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남북이 하나되어 손을 맞잡는 날, 영통사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도움말-한기선 편집부장 <월간 금강>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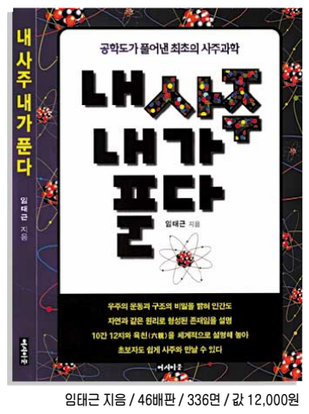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취임, 북한산 관통도로 및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던 올 한 해는 성과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특히 올해 반드시 해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되는 과제들은 내년에도 불교계 발전과 위상 확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일산 불교병원 개원 문제를 포함한 동국대 위상, 북한산 관통도로 등을 둘러싼 환경 문제,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의 미해결 종책을 우선 해결 과제로 진단하고 세 차례에 걸쳐 종합 분석한다.

해넘기는 과제들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글 싣는 순서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③ 각 종단의 주요종책

학교 · 재단 · 종단 '마이웨이'



◇홍기삼 총장의 '2005년 3월 개원'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준공식까지 마친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은 여전히 안개에 싸여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산병원 **원장선임 · 직제근거 마련 못해 장기 표류**

불교대학 **학부제 이후 전과 희망자 늘어 존폐 위기**

인사난맥 **자기사람 심기 · 보직교수 비불자들 임명**

불교정신 바탕 건학이념 되찾아야

과감한 투자 · 교육체계 정비 … 연기풍토 · 학풍 확립

종단과 재단간 명확한 관계 설정 필요

● 추락하고 있는 동국대 위상

동국대는 중앙일보 2003년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5단계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연극 영화 관련 학과가 2위에 든 것을 빼고는 20위에 든 학과가 없다. 게다가 '개선도' 종합 순위에서는 아예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당초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기로 했던 동대 일산 불교병원 개원이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서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원칙 없는 교수임용은 인사 때마다 무성한 뒷말만을 남겼다.

뿐만 아니다. 선학과가 존폐위기에 몰리는 등 불교학의 메카라는 말은 옛 말이 되고 있고, 재정은 바닥상태다. 게다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학교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급기야는 종단의 정치 구도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 신세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국대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미봉에 그치거나 아예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 일산 병원 개원 지연 무엇이 문제인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2005년 3월에 일산 병원 개원을 목표로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연내 개원키로 했던 것이 2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도대체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불교계 관계자들은 병원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학교와 재단, 그리고 조계종간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병원장 인선과 의료진 충원,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의 문제들부터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단 이사회와 전임 송석구 총장 간의 불협화음은 물론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교병원장으로 내정됐던 하권익 교수가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학교 재단은 실질적인 지원은 뒷전에 둔 채 학교의 무능력만을 탓하고 있고, 학교 측은 자구책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기에 조계종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병원 개원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3자 모두가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으니 개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6월에는 당초 내년 봄 개원을 예정으로 불교병원 정관개정을 추진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당시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정관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병원장 선임과 병원 직제 등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병원 개원 문제가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게다가 500억원의 부채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에 필요한 1000억 원의 자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금조성을 위해 학교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종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단 이사장 정대 스님이 최근 입적하면서 후임자 인선을 놓고 조계종의 중심세력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홍 총장의 2005년 개원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에 따라 병원 개원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일산 병원 개원 문제는 학교와 재단, 조계종단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지 않는 한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인 셈이다.

● 흔들리는 불교대학

불교대학은 학부제가 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과(轉科)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과 존폐 위기론이 제기됐고, 급기야 올해에는 선학과 지원자가 단 1명에 불과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아직까지도 불교학부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제2의 선학과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홍기삼 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월 개교 100주년(2006년)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교생태학 연구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 불교학 발전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불교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인 동국대가 그 흔한 전문대학원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 되면서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현재 신학 전문대학원만도 20여 곳인데 반해 불교계에는 단 한 개의 전문대학원도 없다.

전문대학원은 포교나 복지, 문화재 등 각 분야의 불교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 원칙없는 인사 · 행정시스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학교 실습농지(경기도 목왕리 일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는 학교가 보직교수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불교도를 임명해 지탄을 받았으며,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부총장의 '신의 은총'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22명의 불교대학 교수들이 학교당국의 자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종립학교로서의 동국대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거 불교학부 교수 채용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자기 제자 챙기기', 학교와 재단 고위 관계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논란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하루 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건학 이념을 되찾자

오국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월20일 열린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에서 "70년대 횡행했던 낙하산식 인사와 그로 인한 리더십 부재, 그리고 불교의 전법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동국언론인회 회장)는 "동국대학교의 자산은 불교 종립대학이라는 것과 1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불교계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한 마디로 '건학이념을 되찾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종립학교로서의 위상 강화와 불교대학의 특성화에 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재단과 종단의 화합이 필수적이다.

동국대의 건학 이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 건학이념에 비춰보면 동국대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학교와 재단, 조계종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학교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불교계의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투자, 교육과정 체계 정비를 통한 연구풍토 및 학풍 쇄신, 종단과 재단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대내외적인 재정확보 노력 없이 동국대가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길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2月 둘째주, 셋째주 (월 ~ 금)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제 232 호
감 사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73-20
최 영 식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58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권 지 관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연말. 직장인들이 한 해를 갈무리하는 요즘,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 활동에 나선 일터불자회가 있다. 철도청 서울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제)가 그 단체. 비번 날 동참은 기본, 황금 같은 월차 휴가까지 아낌없이 반납했다.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을 김장 담그기에서 찾은 법우회원들. 이들이 일으키는 '바지바람'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고추가루 좀 더…" "그만! 매워요"

구로승무소 법우회 김장봉사하던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우리가 책임집니다!' 서울 구로승무소법우회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황금 같은 월차휴가 반납… 10년째 행사

정성 담긴 김치 불우이웃 150세대 밥상에

자제정사 격월 방문 청소·빨래 봉사도

"고추 가루 한 움큼 더 넣어요."

"그만! 맵다니까요."

12월 4일,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대중목욕탕. 손놀림은 어눌하지만 오가는 대화 속에는 살가운 정이 묻어난다. 봉사의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간간히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신 훔치면서도 얼굴에 머금는 미소만큼은 여전히 가득하다.

"집에서는 부엌 근처도 안 가봤었어요.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복지사들의 지도로 김치를 버무리니 결혼할 여자 친구 생각이 나요. 앞으로는 남을 위한 봉사와 함께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법우회 막내 함덕호(31) 회원이 즐거워한다.

오늘 담가야 할 배추는 600포기. 부지런히 만들어야 한다. 9일까지 구로구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가구 150여 세대 500여 명의 밥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장은 착착 진행된다. 한쪽은 배추를 다듬으면서 소금으로 절이고, 또 한쪽은 무를 씻는다. 배추 속을 채울 양념 준비도 한창이다. 멸치 액, 대파, 쪽파, 마늘, 고들빼기….

철도청 구로승무소 법우회가 연말 김장 담그기 봉사를 시작한 지는 10년 째. 법우회 우철제 회장이 이곳 복지관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다. 당시 우 회장은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란 신행 운동을 법우회에서 벌였다. 그러던 중 그 일환으로 봉사행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다.

"물론 힘이야 들죠. 그래도 끝나고 나면 즐거워요. 봉사의 기쁨을 만끽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어 줄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나와요. 봉사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에 법우회원들의 봉사행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법우회 염진열 총무(42)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이들 법우회원의 손길이 닿은 곳은 적지 않다. 지난 1974년 창립 이후, 줄곧 구로 지역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은 물론, 관내 독거노인을 초청해 온천 등 유원지 나들이를 해주고 있다. 또 올 초부터는 정기적인 활동을 위해 전체 66명의 회원을 3개 팀으로 나눠 노인복지시설인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를 찾고 있다. 회원들은 격월로 이곳을 방문해 청소, 빨래, 말벗되기, 음식 준비, 텃밭 가꾸기, 잡풀 뽑기 등 하나에서 열까지 척척 해내고 있다.

김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지 6시간 후. 목욕탕 욕조에 맛깔스런 빨간 김치 포기들이 쌓여 있다. 이들의 환희심 만큼이나 풍성하게.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2월 7일 서울 하림각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산악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공형수 회장은 "앞으로 다른 신행단체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변사자 위한 천도재 봉행

서울 동대문경찰서 불교회(회장 김종대)는 지난 11월 30일 북한산 금선사에서 관내 변사자를 위한 천도재를 주지 법안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송년법회·양로원 위문

강원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12월 8일 관내 춘천시립 양로원에서 송년 법회를 봉행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초발심자경문' 강의 들어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사진)는 12월 16일 서울 기원사에서 주지 상현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듣는다.



'직장인 수행법' 특강 들어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사진)는 12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중전에서 조계사 총무 도림 스님 초청, '직장인 수행법'에 대한 특강을 연다.



법현 스님 초청 법문 들어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12월 12일 은행 본점 4층에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우리불자회는요

경북 경산시청법우회

'자비와 봉사'. 우리 법우회가 내건 신행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공직자의 본분인 무한 봉사의 실천이란 두 개의 신행바퀴를 충실히 굴리고 있는 경산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모임입니다. 창립법회는 지난 2000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주지 법타스님을 모시고 봉행했습니다. 당시 교무스님으로 계시던 하종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신 가운데, 20여명의 회원들이 뭉쳐 첫 법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신심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 11월 15일 경산시청 법우회원들이 경산 경흥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행열기 '후끈'…철야정진 땐 1500배

내년엔 소홀했던 보시행 강화 예정

출범 3년차를 맞은 우리 법우회는 그간 뜻있는 회원들의 포교활동과 정회원 46명, 그리고 회원 가족들로 구성된 준회원 12명 등으로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5일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경산 경흥사에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었습니다.

우리 법우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꾸준히 여는 정기법회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경산시 경흥사를 원찰로 한 정기법회와 연 2회씩의 성지순례, 철야정진법회 등은 불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육군 수송대와 불교교양대학을 방문해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우회 가족 사망 시는 천도법회에 동참하는 등 좀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우회 창립 이후, 부처님께 절이라고는 3배 정도였던 법우회원들이 이제는 108배는 기본, 첫 철야정진법회 때는 1500배 기도정진을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회원들은 새벽예불 후 철야정진을 회향하면서, 법당에서 요사채의 비탈면을 내려오는 도중 절뚝거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넘어지면서 웃지 못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엿한 불제자로서 육바라밀을 몸소 체험하는 데 여느 베테랑 불자들 못지않습니다.

법우회원들의 열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회원들이 불교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불교 입문교육을 공부했으며, 올해부터는 선 수행 위주로 법회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우회가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우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많은 법우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만큼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전체 회원들이 자리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쓰는 모습에서 성불의 길은 그리 멀지 않음을 회원 모두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껏 다소 소홀했던 주변의 이웃에 대한 보시행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김두호 회장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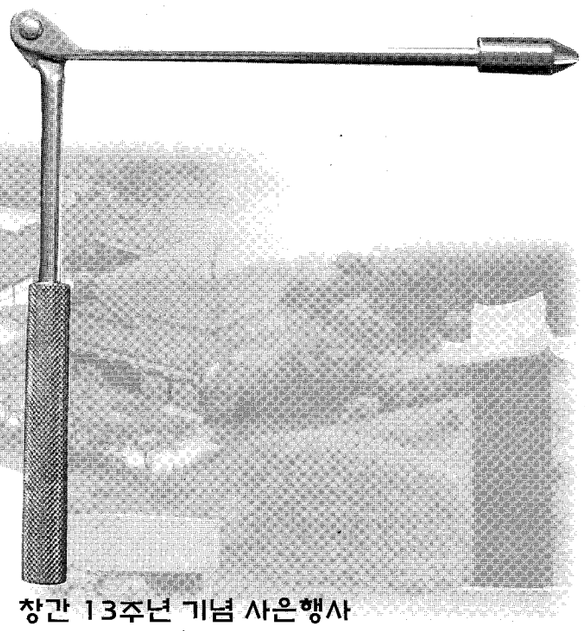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초·중·실전), 관상(마의상법)
풍수(금낭경), 수상, 육효
1월 5일(월) 개강 반 접수중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금낭경(錦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 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 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관룡자를 분실하여 2개째 구입하였고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케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 교수, 서모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띠면 "이것은 수십 년 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 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 고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 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상당))무료증정.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억불시대, 스님들 활동은 빛났다"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기를 펴지 못했던 조선시대 스님들의 행적은 어떠했으며, 사대부는 불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11월 29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한국불교학회 제39회 추계전국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불교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조선초 천태종 고승 행호와 불교계'를 발표한 황인규(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조선시대 마지막 천태종 고승 행호 스님을 통해 당시의 불교계를 고찰했다.

황 연구원은 "행호 스님은 백련결사의 도량이었던 백련사를 중창하고 선종의 본산이었던 흥천사 주지를 하며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며 "이 때문에 성리학자들의 행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유생들에 의해 제주에 유배되어 목이 베어졌다"고 밝혔다. 또 "억불기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자 했던 조선 초 행호, 조선 중기 나암보우, 조선 후기 환성지안은 같은 운명에 처해진 조선 불교계 수호의 삼성(三聖)"이라며 "신라 이차돈, 고려 말 나옹혜근의 흥법 정신을 이은 숭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호 스님과 같이 불교를 부흥시키려다 유명을 달리한 스님도 있지만, 사명당 유정 스님(?~1619)과 같이 다섯 가지나 되는 관직을 받은 스님도 있었다. '사명당 유정의 관직'을 발표한 이철헌(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는 "유정 스님은 정2품 형조판서 승지의금부사 등 다섯 개의 관직을 선조 임금으로부터 직접 내려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유정 스님이 영의정을 지냈다는 '3일 정승' 이야기는 일반 백성들의 존경심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숭유억불의 시대상과 영의정 제수기록이 <선조실록>에 남아있지 않고, 표충사에 전하는 선조 친필이라는 사령기가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호 스님 등 이차돈·혜근의 흥법 이어
일부 사대부들 새시각으로 불교 인식

한편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대부들의 인식의 틀새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어우야담>을 쓴 유몽인(1559~1623)과 같이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대부들도 있었다. 김상일(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유몽인이 본 불교인과 불교'에서 "허균, 이안눌, 유몽인 등은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 일반 사대부들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며 <어우야담>의 '승려'조의 내용과 스님들과 주고받은 증서·서신을 통해 불교에 대한 유몽인의 인식을 살폈다.

<어우야담>과 <광해군 일기>에 쓰여진 비구니 이예순에 대한 기록을 비교한 김 교수는 "<광해군 일기>에서는 이예순의 사상관과 불교관을 알 수 있는 진술이 빠져있고, 이예순 사건을 윤리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어우야담>은 이예순의 불교에 대한 견해와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만년에 금강산에서 선불교를 접한 유몽인은 면벽수행 하는 선승들의 모습을 자주 언급하고, 활어, 사어, 자득과 같은 선불교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그는 유교적 윤리강령이나 규범을 앞세워 스님들의 삶의 방식과 행적을 재단하려 들지 않았다"며 유몽인이 스님들의 삶에 개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백제사찰 동서회랑 확인
부여 왕흥사 절터 조사

부여 왕흥사 절터에서 백제시대 동·서 회랑이 확인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가 3·4차 조사에서 발굴한 두 건물지는 왕흥사 동·서 회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찰배치는 동·서에 남북방향의 회랑이 있고, 중심부에 탑과 금당지가 배치돼 있다.

김용민 소장은 "회랑은 기단 하부의 기대석 위로 기와가 쌓여있는 건축형태로 국내에 비교자료가 없으며, 일본의 혈태사지(穴太寺址), 숭복사(崇福寺)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백제 건축기술의 일본 전파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보천교도의 난'은 항일운동
제주 법정사 스님들이 주도

김광식 부천대 교수 주장

'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진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논문이 발표된다. 12월 10일 오전 9시 제주학회 주최로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제주도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 세미나에서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운동의 성격은 항일운동이며, 주도 세력은 스님들"이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도교(보천교)의 운동 가담과 관련 "1934년에 발간된 고등경찰 요사에서 박주석이 선교도 수령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형사사건부, 수형기록이나 정구용의 판결문에는 오히려 남자 불자를 지칭하는 '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참가자 400여명 중 박주석 등 4명이 선교도로 구분돼 있지만 이것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법정사 항쟁을 '보천교도의 난'이라고 한 것은 운동 이후에 참가대중이 대거 보천교로 입교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김연일 정구용 강민수 강창규 방동화 스님과 법정사 인부였던 김삼만, 행자 김인수, 한윤옥 등 11명의 주동자 중 8명이 불교도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 등
도난문화재 회수 잇따라

최근 도난문화재가 속속 회수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회수일 11월 20일), 구례 천은사 범종(11월 7일),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10월 4일),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삼존불(10월 24일), 합천 경재선생문집책판(11월 14일), 남양 홍씨 종중의 장군석(11월 3일) 등 10~11월 2개월 동안 회수된 도난 문화재만 6건이라고 최근 밝혔다.


◇6년만에 제자리를 찾은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

특히 7월 이후 도난 신고된 문화재 5건 가운데서는 4건이 회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2. 7. 1~11.26)에 신고 된 도난문화재가 10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동안 전혀 회수되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문화재청은 불법 문화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절취·도굴문화재를 은닉·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한 개정 문화재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검·경찰 등 관계기관이 문화재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사범단속계 류시영씨는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도난문화재의 판로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난문화재 제보: (080)290-8000, (042)481-4925 오유진 기자



탑(5)

황룡사 9층탑 신라의 중심

층층 계단은 빙 둘러 허공을 나는 듯
일만 산과 일천 물이 한 눈에 잡히네.
몸은 노오(盧敖) 되어 바깥을 오르내리고
눈은 수해(竪亥) 되어 가운데를 가고 오네.
별 그림자 처마 앞에 비되어 떨어지고
월계수 향기 난간 밑을 바람 되어 나부낀다.
굽어보니 경주의 집들이 참으로 많은데
벌집이나 개미구멍처럼 아득히 보이네.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서)

이 시는 고려의 문신 김극기(金克己, 생몰년 미상)가 지은 황룡사9층목탑에 관한 시이다. 김극기는 생몰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종(재위기간 1170~1197) 때 활약하였다. 황룡사9층목탑은 1235년 몽고가 경주까지 침입한 3차 몽고의 난 때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극기가 이 시를 읊은 때는 황룡사9층목탑이 불타 없어진 시기보다 100년을 넘지 않는다. 김극기가 황룡사9층목탑을 보고 놀란 것은 높이 솟은 탑의 위용으로 시 전반에 그에 대한 감동이 깔려 있다. 그 감동 속에 차분히 살펴본다면 탑 안에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게 계단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응현의 불궁사목탑, 서안의 대안탑, 낙양의 대화탑 등 중국의 탑들은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김극기는 황룡사9층목탑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개미구멍 같은 경주의 집들을 본 것이다.

탑은 사찰의 중심이자 도시의 지표이다. 중국의 탑을 찾아가노라면 중소도시인 경우 멀리서부터 도시 한가운데 탑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아파트 20여층 높이에 해당하는 약 80m의 황룡사9층목탑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경주를 찾는 이들은 경주 시내 어디에서나 이 탑을 보고 그곳을 향했을 것이다. 이 거대한 목탑의 스케일에 압도당한 뒤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는다면 그 감동은 더욱 가슴 깊숙이 파고들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황룡사는 중앙을 상징하는 황룡(黃龍)이 의미하듯이 경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황룡사 터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동쪽에는 명활산, 남쪽에는 낭산과 남산, 서쪽에는 선도산과 단석산, 북쪽에는 소금강산으로 빙 둘러싸인 분지의 중심에 황룡사가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곳에 황룡사9층목탑이 허공을 나는 듯이 솟아올랐으니, 황룡사9층목탑은 경주의 중심이자 신라의 중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경주의 중심에 위치한 황룡사 9층석탑. 80m 높이의 이 탑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경주를 찾는 이들은 경주 시내 어디서나 이탑을 보고 2곳을 향했을 것이다.

황룡사 탑 높이 80m … 아파트 20층 해당
분지 한 가운데 우뚝, 경주 한눈에 조망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031-973-8534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진관내동 용암사
02-387-3216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수행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20~40세)
공양주 및 운전기사(女)를 모십니다(20~40세)
▷ 도심속의 포교원(부산)
018-801-2584

(급 구)
평생을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 70~80만원)
011-286-0308
02-386-0926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 미륵산 용화사
055-645-3060
055-646-309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5세 미만)
063-453-780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충남 유성
041-857-8606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기 고양시 화정동
031-978-9782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스님이 없는 가난한 암자나 포교원 주지를 원합니다
무보시 무료로 운영해 드립니다 (주역을 통달)
55세 비구 일봉
011-421-0936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급히 모심
011-202-6136

기도 스님을 모십니다(비구)
▷ 산중사찰
055-385-4111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비구입니다
부전을 필요로 하는 사찰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580-8480

부전스님 모십니다
▷ 대구 지역
016-9568-0069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포교사, 장묘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법사
011)412-8040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탈종 공고
· 사찰명 : 팔등사
· 주소 : 전북 익산시 오산리 신중 630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2월 10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국 대리점모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 : 눈밝은세상



역경학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3시간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단체는 출장 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정통풍수지리
도상에서 혈을 찾은후 현지답사를 하고 명당순례로 패철사용법을 완전 터득시켜드리고 양택의 길흉판단,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음양택에 대한 [풍수비법 자료집](휴대용) 제공
▶ 개강 일정 : 2003. 12. 5 (주.야간반) 주2회 금요일 (2개월 완성)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한국사회교육원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세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 능인불교대학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행자나 처사님 함께 기도하실분 모십니다
현재 보살님 현재 계시니 기도하실 보살님도 함께 모십니다
법 성 사
영주 시내 위치 ☎ 011-561-6644

易學 지도
신비한 구성학, 사주없이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과 목적, 점사등을 바로 알수 있는 신비한 구성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 019)446-4755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식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라(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위치 : 경기도	●위치 : 경기도
●법당 : 29평	●법당 : 20평	●법당 : 30평
●요사 : 29평	●요사 : 50평	●요사 : 75평
●부지 : 1,000평	●부지 : 2,000평	●부지 : 450평
●가액 : 8억5천	●가액 : 15억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98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2)935-429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 12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1억 2천만원 (집기 일체)
016)652-75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칠성탱화,영가단, A급불단
● 방2개,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건천)
● 대지 : 17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억 5천만원
● 산세 좋은 기도 암자임
054)751-5530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031)919-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시내
● 대지 : 450평
● 법당 : 35평(목재)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10억
※ 산세 좋음

● 위치 : 서울 근교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목재)
● 요사 : 150평(3동)
● 양도가 : 12억
※ 산세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소나무가 울창하고 전경이 좋고 기도도량임
● 산세 좋음
● 극락전, 지장전, 관음전, 삼성각, 문수전 및 용왕전
● 땅 580평
● 가액 : 3억5천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부지200평중 88평 등기
● 건평 30평
● 목조임법당1, 방2, 주방, 욕실,창고
● 교통 요지. 마을 인접
● 8,500만원(집기일체포함)
055)852-4130
011)879-479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부 지 : 1만평
● 법 당 : 36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25억
※도심지 포교사찰임 부산이 한눈에 조망

<절 터>
● 위 치 : 언양 차리
● 부 지 : 1540평
● 가 액 : 1억3천
※ 언양에서 10km 제비집 형국(풍수만점)

<토굴>
● 위 치 : 울산 온양
● 부 지 : 123평
● 가 액 : 1억5천
※ 부산에서 40분 대운산 아래 전원주택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설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81-9575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제2지장보궁 사원정보안내

● 고려고찰 조계종 소속 산하 국내지장3대 보궁중 제2지장보궁입니다
소백산 깊은곳에 국난에 복원된 청정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너무나 빈약한 이곳으로 모든 불심있는 기도 불자님과 불자 관광기사님 이은혜 잊지 않을것이오니 이 보궁으로 운행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제2지장보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 안내

● 고상한 절과 요사
● 큰 냇가와 수백년 먹은 나무와 어울어짐
● 전 500평, 대지 200평 그부근 국유지 많음
● 가액 : 1억 5500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60만(5억2천7백만원)
● 사정상 급 평당 195만(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1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 58평, 건평 60평(현대식)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건물 깨끗하고 내부시설 아주 깨끗함
● 대단지 아파트옆(위치 아주 좋음)
● 사정상(공부하러 감) 매매
● 가액 : 2억원
011)858-94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 약 1천평
● 법당 57평, 강당 100평
● 납골당 30평, 요사채40평1, 22평 1, 18평 1, 창고 25평
● 산신각, 용왕각 별도, 부도탑
● 주차장 별도 15평
● 전면 높이가 4~5m. 돌로된 미륵불, 좌우로 육지장, 가족형납골당
● 가액 : 2억7천만원
011)544-8692
017)808-055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주택 밀집지역
● 평수 : 45평
● 법당, 거실, 방2, 창고방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678-080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신천동 시장 부근
● 인구밀집지역으로 포교 적합함
● 큰방(법당),작은방1칸,욕실,주방
● 2층 빌라 등기이전 및 시설비 포함
● 은행 대출 없으므로 대출 가능함
● 가액 : 2천900만원(집기일체포함)
031)404-3956~7
018)367-8845

암자포교당 최적지

● 전주시내 시장버스정류장 5거리 건널목
● 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단독상가 밀집지역 한옥고가집 나무상태 80% 주차양호 대지 80평 법당모실수 있는 방 평수 20평 큰방 5개, 전체수리 즉시 입주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가액 : 7800만원이면 등기 완료 노후대책 전망있음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제자님께서는 전화바람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63)246-848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시내에서 5분
● 산세가 좋고 앞에 냇가 물이 흐름
● 삼존불, 산신, 용화
● 대지 약 2만평(과일나무심어져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물 : 상담후 결정
● 법당20평, 스님방2, 공양간20평, 집2채
011)9273-2477

토굴(암자)안내

● 위치 : 충남(대전권)
● 대지 : 100평, 건평 33평(입법당)
● IC 10분거리. 교통편리. 정남향
● 비구니 스님 처소로 적합
● 대단지 아파트옆(위치 아주 좋음)
● 가액 : 7500만원(조정 가능)
011)9696-3139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신축법당. 소나무 숲속
● 방4개, 넓은 거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 주차장 넓음. 넓은 텃밭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7)533-135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근교
● 대지 : 1300평
● 법당 15평(목조 50년)
● 요사 50평, 용왕각 3평
● 가액 : 1억9천만원
011)875-073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
● 3층 건물중 3층
● 위치 A급
● 방2개, 전체 평수 약 33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 가능)
018)242-7070

사찰(급)수련원 안내

● 위치 : 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성산일출봉에서5분거리)
● 1층대지 380평, 법당22평(목조단청), 석조약사여래불 3m50, 칠층석탑, 산신당,목조단청7평,종각단청,요사채 1동 30평,공양실및 샤워실 15평
● 반지하 총 150평, 법당 40평, 첨선방 10개, 공양실, 샤워실, 현대식 화장실 최근 도색 단장
● 특징 : 성산일출봉과 우도섬이 보이는 절경 바닷가 5분거리, 수련원, 참선방 모두 가능
● 가액 : 평당 1백만원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3층 40평 매매가 3500만원(년세, 시설비 포함)
064)782-4365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563-3050
033)563-30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남동
● 특징 : 도심속의 산사 바닷가
● 건물3동, 법당 10평, 요사 2동
● 시설비 1천만원, 월 20만원 (보증금 없음)
055)646-2766
019)656-2766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급)안내

● 매입가 : 2억 7천 500만원
● 매매가 : 2억
● 위치 : 대구 팔공산
011)541-9987
053)983-0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보시함
018)747-0408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15분 거리 옥천
● 대지 100평, 건평 70~75평
● 2층법당25평, 방5개, 화장실 실내 3개, 주방1, 거실1
● 앞마당 주차
● 가액 : 1억 5000만원
043)733-8108
02)587-0108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안 산세수려한 명산의 동남향
● 부지 13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모두 목조주심포 건물
● 요사채 1동은 목조건물1동은 현대식슬라브 건물
● 종단 연수원 또는 납골당 기도원등으로 적합함
● 맥반석지하수, 가액은 답사후 절충하시기 바람
018)367-8845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방학2동 동사무소 부근
● 평수 30평, 2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669-3345
02)3494-4962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2동
● 2층 포교원. 40평정도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몽골문화촌 옆
● 대지 220평, 건평 42평
● 방3개, 법당1개, 2층은 올릴수 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2)979-4478
011)340-447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 부지 760평, 법당 20평, 요사채 2동 50평
● 찜질방, 명당 길지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
● 가액 : 1억 5천만원
016)9677-3411

사찰 안내

● 위치 : 고령
● 법당3관, 요사채 2채, 방4개, 화장실,목욕탕
● 법당에 삼존불 모셔져있음
● 후불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가액 : 4500만원
011)488-1303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현풍 근교
● 건물 : 조립식 인법당
● 사정상 급매 및 전세(조건좋음)
● 사주를 봐주시는 스님 환영
● 신도 많음
018)891-101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서이천IC 근처)
● 대지 970평, 법당 29평, 요사채 22평(방, 부엌, 화장실), 통나무 건물
● 가액 : 5억
※ 연면적 620평이 복지시설물 건축 허가 나와 있음 (선원, 선방,복지시설 활용 용이함)
011)325-5199
031)632-5664

불상 안내

● 불상 : 아미타불 4자, 관음보살 3.5자, 지장보살 3.5자
● 탱화 : 후불탱화 4*6자, 신중탱화 4*4자
● 불단 3조, 촛대, 향로, 다기 각 4조 (방자, 반야심경병풍 1조(국전초대 작가작품)
● 기타불기 일체
● 1년간 모신것으로새것임
● 저렴한 가격으로 드림
011)689-0733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태백산
● 부지 : 4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오가피 일만주, 엄나무 500주, 지구자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72 정향사
054)673-8200
011)776-5569

암자및토굴명당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장군혈 명당 길지
● 해발 650m. 청정 지역
● 지리산천왕봉 안대. 일자능선
● 부지 2천평, 건평 55평
● 임법당. 심야전기
● 가액 : 2억. 절마당까지 차량진입가
011)9548-9808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대지 : 57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채 : 32평(1층)
● 지하방 4개(세) 마당 : 주차함
● 가액 : 평당가격(전세도 가능함)
011)9637-2632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명학전철역에서 200m 도로접
● 3층건물에 3층
● 평수 : 25평, 방 1개
● 삼존불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108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 칠성, 영가단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018)329-571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평수 : 대지 200평, 요사 50평
● 가액 : 답사후 결정
※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484-520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5)386-7463
016)355-4264

목어

불교용어의 표준화



이기선
사찰조형연구소
본지 논설위원

최근 들어 우리 생활 속에 인터넷이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불교계도 전자불전(電子佛典)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템플스테이 등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도 외국인 사이에서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마냥 반기고 즐거워 할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나만의 기우(杞憂)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터넷이 지닌 확산력(擴散力), 시간적으로 빠르며 공간적으로 넓게 퍼지는 그 놀라운 힘 때문이다. 엎어진 그릇의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듯이 한 번 전파된 말은 그 오류가 밝혀져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을 수 없듯이 터전을 잘 닦아 놓아야만 한다.

바로 우리 불교용어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이들 용어의 외국어 표기이다. 우선 사찰의 이름을 비롯하여 우리 역사상에 이름 높은 고승대덕의 법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를 비롯한 세계 중요 언어로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한다. 이들 고유명사의 표기를 통일함으로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고유명사의 표기가 표준화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판의 명칭을 우리말로는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확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우리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 기초용어집의 간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삼보일배단' 환경상 수상

국내 언론사 전 · 현직 환경기자들의 모임인 한국환경기자클럽은 12월 3일 올해의 환경인 상 수상자로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새만금 삼보일배단' 성직자 4명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를 선정했다. 환경기자클럽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주부와 노인 등 수많은 시민이 삼보일배에 참여했으나, 이들은 삼보일배 수행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새만금 간척에 따른 환경파괴를 국내 · 외에 널리 알렸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장군죽비

"시주하겠다"며 돈 갈취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큰 돈을 시주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이천 혜룡사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절에 찾아와 '절에 8억여원을 보시하겠다' 며 급하게 30여만원을 빌려간 뒤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혜룡사의 한 스님은 "불사 후원을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불자 세상보기

이희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아름다운 원칙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한류' 열풍을 이끈 견인차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였다. 그것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서구의 대중문화는 물론 일본의 만화까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한국문화의 강력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기절정의 드라마 '대장금' 또한 '한류' 연기자들의 열연과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드라마는 독특한 타이틀곡은 물론, 아름다운 한국의상과 감칠맛 나는 음식과 요리, 전통주거공간의 문화를 볼거리로 제공하기도 하려니와, 천한 신분에서 궁전의 의녀에 이르는 성공신화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월드컵 축구 등을 통해 '아시아의 자존심' 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 의 꿈을 안고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나라인 반면, 내적으로는 쉬임 없이 치열한 경쟁과 승부가 펼쳐지는 역동적인 나라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장금' 에서 보여주는 '조선최고의 수라간 궁녀' 의 상징성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고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꿈과 겹쳐있으며, 가치없는 집안 일로 치부되던 요리 등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법통과 격식의 진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궁녀 정 상궁이 한 상궁에게 비전의 책을 전해주면서 '포기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라' 하는 등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 장면은 마치 선사가 깨달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모습처럼 중후함이 전해진다.

최고를 겨루는 궁녀들의 경쟁 속에서 드라마는 선악과 희비가 엇갈리는데, 시청자들은 원리원칙의 정당한 절차를 견지하려는 선의 편과, 권모술수와 비행을 마다하지 않는 악의 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두리뭉실하고 어중간한 이들과 더불어 드라마 속에 몰입하며 감정을 공유해 일약 시청률 50%를 넘는 일종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바로 현대 한국인이 고뇌하고 있는 원칙과 권모술수 그리고 선악의 모순과 분열 가운데 허덕이는 삶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탈권위주의와 다원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에 따른 병리현상 또한 심각하며, 상호 모순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예측불허로 인해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이란 다름 아닌 전통적인 인정과 의리의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경쟁하고 승부를 겨루는 차갑고 비정한 음모와 권모술수 등의 야비함이 이 시대 안에 공존하는데서 기인할 것이다.

드라마 '대장금' 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조선 중종 때 의녀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최고 권력자 왕이 주인공이 아닌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주인공이 되는 역전현상을 볼 수 있다.

흔히 조선조 유교사회의 특징을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대장금' 이 보여주는 것은 주어진 신분과 여성의 열악함을 뛰어넘는 인간승리를 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이거나 적당히 권력자와 야합한 부정부패가 아닌 정당한 원칙이 승리하는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일면도 있다.

지금의 현실은 비록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모순된 현실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지라도, 한국인의 변함없는 이상은 진정 아름다운 원칙의 편에 있음을 드라마 '대장금' 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논란

사유재산권, 문화재 모두 소중

최근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축소하는 '문화재 보호조례' 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와 불교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정리=오유진 기자〉

박홍석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재 담당 계장

타도와 형평성 논란, 특정 건축물 계속 규제

현재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현행 '문화재 보호조례' 를 개정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현행 경기도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내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와 사유재산권 보호 문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가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을 반경 200m로 축소할 예정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금곡동 홍릉, 유릉 인근 주민들은 올해 초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 하자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다른 도(道)에 비해 지역 대부분이 도시화하고 있고, 인구 역시 전국 최대로 그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제한지역 축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8개 광역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200m,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100m로 지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 범위를 축소해도, 녹지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건축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계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기도는 '문화재 보호조례' 를 개정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내년 1월에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세제 혜택 등 미래지향적 문화정책 절실

최근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문화의 보존과 연구에 관한 노력과 열정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국민 스스로 우리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 문화유산 행정과 정책을 변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 행정에서 문화재 행정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NGO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행정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실시했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의 의견들이 조금씩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문화재보존의 개념을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고 해당 문화재 유산의 개별 가치보다 주변의 역사, 문화환경을 고려해 문화재보존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로 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정책은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이 축소되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소유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나 문화재활용차원의 정책을 만들어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다.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정책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문화재정책을 보고 싶다.

공 종도 총회 의결 사항 고

■ 아래 원인

1. 종헌 제67조는 총무원장의 4연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2. 종헌 제49조 1항 중앙종회의원은 종회의장이 임명 명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종회의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중앙종회 소관의 종무원 임원이 임명됨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종헌 제 6장 제 23조 1항 및 제 28조를 인용.
전사의 일을 무효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종도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 아 래 .....

1. 중앙종회 및 각급 종무기관 해산
2. 각급 종무기관의 직인과 계인은 공고 당일부로 무효
3. 비상 대책 위원회 발족 (명단 참조)
4. 대승사상에 입각 종단 화합을 위한 종도 대 사면

■ 비상 상태 대책위원 명단 (위원은 무순)

- 위 원 장 - 법효(경기) • 부위원장 - 법천(부산)
- 간 사 - 법응(대구) • 총 무 - 원해(서울)
- 위 원 - 법인(마산) 지법(경기) 청원(경기) 덕일(전북) 혜능(충남) 법청(경북) 법상(마산) 법명(서울) 태덕(전북) 성원(서울)

※ 대승종 관련 일체 종무는 홍도사로 문의 요망. 문의전화 02)2234-2198

불기 2547년 11월 29일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 연말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계미년 납월을 맞이하여 종도님들의 존체 청안하시옵고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법인과 종단에서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와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각 사암에서 신도(불자)들에게 발행하는 연말 지정기부금(보시금) 납입증명서 발행에 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본 종단에 2003년 11월 현재까지 등록된 각 사암에서는 본 종단의 통일된 양식에 의거 납입증명서를 작성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종단에 2003년 11월 현재까지 미등록된 사암은 본 법인 및 종단 규격양식에 의한 발행증명서를 절대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필요로 하는 사암은 전국 각 교구 종무원을 경유 총무원에 등록을 필하고 지정기부금(보시금) 납입증명서 발행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본 종단 각 교구 종무원장은 본 종단에 등록된 사암을 파악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별지양식에 의거 발행사암명단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내용은 불교 홍법의 포교 및 법회명칭을 쓰고 보시금 납입일시, 발행사암명칭과 주지성명, 연락처를 명확히 기록할 것.
5) 문의사항 : TEL (02) 998-8161~2 / FAX (02) 998-8384

2003년 12 월 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 사 장 김 혜 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정 동 봉 합장



◇부산 · 대구 · 경북의 불교복지관 조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복지관 업무평가 틀 새로 짜야"

부산 · 대구 · 경북 불교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 수정 · 보완 절실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평가' 도입 필요

"평가가 경직된 지도 점검으로 인식되는 한 '축제'로서의 평가는 요원하다. 평가가 전문직의 위상을 증명해 보이는 축제가 되도록 기존 평가도구의 점검 및 수정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복지관 업무 평가에 대해 복지관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2월 29일, 30일 경주 하일라 콘도 대연회장에서 부산, 대구, 경북의 불교복지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복지, 나아가 한국복지발전의 새로운 평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관의 평가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지역사회복지관 평가 리뷰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의 의미는 단순히 부산과 대구, 경북의 복지관 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월, 10월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대해 '조직 및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및 근무여건' '재정'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등의 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회복지기관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박경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는 공창복지관의 김나리 과장, 냉림복지관의 조용식 과장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과 동떨어진 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어 열린 발전방향 및 평가자 제언에는 학산복지관, 개금복지관 관장과 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까지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와 대구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회장 성웅) 주최, (사)불국토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상주, 충남, 대전 등지의 복지관 관계자는 물론 수녀 등 타종교인들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은 "복지관별 성격은 다른데 평가의 틀은 모두 같아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가 많다"며 "이번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평가, 재정평가를 마련해 한국복지발전의 큰 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전복지부와 지자체에 건의,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역 유대를 강화 및 확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여수 월암사 부처님 이운 · 봉불

높이 여덟자 … 호남지역서 가장 큰 좌불

여수 돌산 월암사(주지 월인)는 11월 29일 '국가안정과 발전을 위한 부처님 이운 및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과 총무원장 정암 스님 등 스님 30여명과 신도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이운된 불상은 높이 8자 크기의 대형 석가모니 좌불로 동불로는 호남에서 가장 큰 좌불상이다.

이날 종정 영담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내다보면서 사는 불자가 되자"며 이를위해 "불법을 전하는 불자, 단합하고 실천하는 불자, 존경받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월암사는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여수 돌산 무술목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월암사 주지 월인 스님은 "향후 1만 5천관 크기의 대형범종을 조성해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겨울방학 교직원 불교 · 명상교육

삼광사, 우곡선원 등

겨울방학이다.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연수가 시작되는 때를 맞춰 불교계에서도 발 빠르게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삼광문화연수원은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직무연수 수강생을 모집한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1월 5~9일 3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종교 비교검토, 전통의 향기 다도, 문화재 답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80명. (051)808-7111

우곡선원의 직무연수도 기대를 모은다. 참선(명상)수련으로 맑고 고요한 근본 마음을 확립, 교육자들의 통찰력과 활기찬 일상을 열어 기본 · 심화 · 통합과정별로 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감은 12월 말까지. (051)740-6288~9

또한 파라미타 부산지부도 명상 전문지도자과정을 실시한다. 명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수를 겸한 교육. 1월 5~15일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12월 12일까지. (051)513-4306

천미희 기자

부 · 울 · 경 불교언론인회

20일 홍법사 송년법회

부산 · 울산 · 경남 불교언론인들이 송년법회를 연다.

12월 20일 부산 신창농원내 홍법사 법당에서 열리는 부산 · 울산 · 경남 불교언론인회 송년법회에는 부산일보 전 논설위원 강호일 회장을 비롯 부산, 경남,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언론인들이 참석해 친목도모는 물론 차기 회장 선출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과 2004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전남동부지역 교사불자회 창립

13일 기념법회 봉행

순천지역 초 · 중 · 고 교사불자 30여명은 12월 13일 오후 3시 순천 제일대학 소강당에서 '전남 동부지역 교사불자회'(추진위원장 강현순. 순천 효천고 교사)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교사불자들은 현봉스님(송광사 주지) 초청 기념법회를 갖고 회장단을 선출한다.

전남 동부지역 교사불자회는 순천불교 활성화와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전남동부지역 불자연합회(회장 최경태) 주관으로 창립하게 됐다.

이준엽 기자

광주 구청 · 경찰서 불자회

자비신행회 발기인대회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을 펴기 위한 '(가칭)공무원 불자 자비신행회'가 창립된다. 광주지역 각 구청과 경찰서 불자들로 구성된 공무원 불자 자비신행회(추진위원장 김원국. 동부경찰서)는 창립에 앞서 12일 오후 6시 광주 무각사에서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이준엽 기자

영남불교대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미군부대 x-mas축하파티 연주

영남불교대학 오케스트라 실내악단은 12월 18일 미군부대 캠프 워커의 19지원 사령부 장교단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축하연주를 갖는다.

지난 1년간 외국인들의 사찰 관람을 영어로 실시하며 수많은 미군단체와 개인이 사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영남불교대학의 이번 연주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의 물꼬를 여는 귀중한 자리이다.

이날 12인조 실내악단은 30여분에 걸쳐 캐롤를 비롯한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0일, 21일 영남불교대학 대학생 불자회 주최로 열리는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공연에 미군 삼인조 연주팀이 연주를 선보이고 특히 단소로 아리랑을 연주하는 솔로 연주가 계획돼 있어 종교간의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월 22일에는 미군부대 교회 성가대가 관음사 앞에서 열리는 예수탄생 크리스마스 점등법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학 스님은 "향후 미군부대와 지역주민과의 참된 만남과 상호이해를 위한 장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미룡사 호국참회기도원 모습.

미룡사 호국참회기도원 개원

교육관 · 국제선원 갖춘 실천불교 터전

열린사회, 열린종교, 열린불교를 지향하는 부산 영도 미룡사(주지 정각)가 참선, 수행, 교육, 기도, 점찰행법 실천 도량으로 일신하기 위해 미룡사 호국참회기도원을 개원한다.

미룡사는 12월 11일 삼광사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 스님,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허남식 부산시정무부시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참회기도원 낙성식 및 민생안정과 국가지역발전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56평 규모로 부산불교대학 강당, 교육관, 국제선원, 지장보전 등의 시설을 갖춘 호국참회기도원은 앞으로 미룡사와 부산불교자비원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복지, 사회 시민운동에 활기를 더하는 터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국제 교류시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 4개, 교육관을 갖추고 있어 각종 국제 교류행사나 신도교육, 어린이법회 등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각 스님은 "넓어진 도량만큼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더 매진해 실천불교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학승수행처 화엄당 낙성

동화사, 옹호문도 복원

동화사(주지 지성)는 12월 1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승들의 수행처인 화엄당 낙성식을 개최했다.

화엄당은 지하 1층 지상 1층 140평 규모로 강원 학인들의 수행처로 사용된다. 동화사는 이날 사천왕을 봉안한 옹호문 낙성식도 봉행했다.

주지 지성 스님은 "교구본사의 사격을 갖추기 위해 화엄당과 옹호문을 건립하고, 종각 증개축불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고, 지역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부산경남봉사단

'불교와 자원봉사' 교육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는 12월 4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조계종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 단장 미산 스님은 이날 '불교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이용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경남지역에서 눈에 띄는 복구봉사활동을 펼쳤던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이날 교육에 4백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미산 스님은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며 "응급 재해 복구, 기타 사회복지시설 봉사 장의 봉사 등 분야별 봉사활동에 불자님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나와 이웃이 하나로 연기되어 돌아가고 있음을 상기하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교육을 받은 수료자에게는 자원봉사단원증이 발급됐다.

천미희 기자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0047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법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전제와 단제,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임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사찰재정 투명화는 부처님 가르침"



불광사 감사 '주역'에게 듣는다

주지 지정 스님, 정명철 회계사

신도 1만명 이상의 대형사찰인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정)가 회계감사를 자진 실시했다. 불광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 광덕 스님 열반(1999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찰재정 감사 결과를 12월 3일 신도들에게 공개했다. 이번 불광사의 회계감사결과 발표는 지금까지 감사 의무가 없어 재정 투명성 확보의 난제를 안고 있던 종교계 전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회계감사를 자진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는.

'운영도 수행' 점검 받고 싶었다

지정 스님 : 5년전 불광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신도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교구본사에서 보름마다 한번씩 수행을 점검하는 포살법회를 하듯 사찰을 운영하는 것도 수행이니 만큼 그동안 살아온 것을 평가받고 싶었다.

– 회계감사결과는 어떠했는지.

사고 예방시스템 보안 지적

정명철 회계사 : 감사결과 전문가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사소한 실수와 혼동, 절차상의 미비 등은 발견됐지만, 부당한 지출이나 재정누수 등 부조리는 전혀 없었다. 다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 및 현금 취급 직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견제장치, 고액 지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입찰제도 실시 등 회계시스템의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자진감사 · 결과공개 종교계 파급 효과 예상

–이번 불광사 회계감사가 종교계에도 제도화 되는 시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삼륜청정 해야 법보시 이뤄져

지정 스님 : <증아함경>을 보면 보시나 시주금은 청정하게 얻은 돈으로, 청정한 곳에 주고, 청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삼륜청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법보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명철 회계사: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는 종교계가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진 YMCA의 국고지원금 횡령사건, 꽃동네의 파문 등 최근 종교계의 불투명한 재정운용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이번 불광사의 결단은 종교계의 전반적인 쇄신과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속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것인지.

산하기관으로 확대, 매년 실시 예정

지정 스님 : 이번 회계감사는 불광사 조직을 시스템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광사를 시작으로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불광유치원 등의 산하기관까지 회계감사를 확대한 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감사결과를 신도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후임자 스님이 오시더라도 회계감사는 계속됐으면 한다. 감사결과 주지인 내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불광사 회계감사를 계기로 사찰운영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다.

정명철 회계사: 사찰이 일반 회사와는 시스템적으로 다르게 운영되지만 투명성은 공개개념에서 나오는 만큼 칼로 무를 자르듯 회계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원성도 많이 들었다. 여러 가지 장치마련 등 원천적으로 재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회계감사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가톨릭, 개신교 등 타종교계도 외부회계감사의 제도화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일과 부처님 품속에서 살아요"

양평 사나사 김종례 보살

"제가 뭐 했다고 신문에 나와요?"

12월 2일, 양평 사나사 배추밭. 밭갈이에 한창인 김종례(64 · 법명 지혜월) 보살이 손사래부터 쳤다. 바쁜 호미질에 말품 팔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영락없는 농사꾼이다. 농부의 아내로 살아온 지 36년째. 김 보살에게는 '밭'은 바로 법당과 같다.

"땅과 부처님은 틀림이 없어요. 정성을 들이는 만큼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땅은 풍성한 수확물로 보답을 주고, 부처님은 미소로 화답해주니 말이에요."

김 보살이 이렇게 '절농사'를 시작한 것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시 참배만 하고 가려 했지만, 대뜸 한 스님에게서 부탁을 받았다. 밭에 깻잎을 따달라는 것. 그렇게 이일저일 돕다가 지금은 사나사 1천여 평의 밭을 일구고 있다. 물론 월급은 받지 않는다.

"몸은 피곤해도 절 농사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정도 편해지고 마음은 훨씬 더 커져요. 된장 뜨기, 팥죽 쑤기, 고추 말리기 등 모두 제 수행이에요."

김 보살은 '고추보살'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가을 사나사 신도들이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 일이다. 김 보살이 자다가 갑자기 선상 2층 침대에서 떨어졌다. 이유는 절 마당에 고추를 널어놨는데 비가 와 거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건 꿈속의 일이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멀쩡했죠. 부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늘 절을 생각하고



◇양평 사나사의 1천여 평 밭을 일구는 김종례 보살. 밭일을 하면서도 관음정근을 한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김종례 보살의 신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에피소드다.

사나사 서필연 총무가 거들었다.

"김 보살님 덕분에 사먹지 않고 절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절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요. 김 보살이 없으면, 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농부인 남편 박원용(67), 아들 성효(31) 등과 함께 집에서 매일 관음정근 기도를 드릴 때 가장 기쁘다는 김종례 보살은 한번 싱긋 웃고는 다시 '호미질삼매'에 빠졌다.

양평=김철우 기자



추천의 말

화암스님 사나사 주지

김종례 보살은 궂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한 번도 상을 내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밭일이며 된장 메주 뜨기, 팥죽 쑤기 등 후원 일을 알게 모르게 척척 해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께 받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늘 넉넉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김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자입니다.

가르침 실천의 본보기

김제 귀신사 명부전 낙성법회 봉행

화엄십찰의 하나인 김제 귀신사(주지 무여) 중창불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귀신사는 11월 30일 월주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용타, 도웅 스님과 지역기관장, 신도 등 2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명부전 낙경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사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으로 다함께 깨닿기 위함이다"며 "지장보살의 원력에 따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대신해 불국정토를 가꾸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은 인사말에서 "십시일반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의 원력으로 옛 대가람의 모습을 되찾는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참다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 수행하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명부전 낙성법회는 4년 전 불사를 시작, 파손이 심한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을 보수, 개금불사를 마치고 점안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귀신사는 676년 신라 의상 스님이 창건한 화엄십찰의 하나로 임란 때 소실되었다가 조선중엽에 중창됐다.

귀신사는 이번 명부전 복원에 이어 지난 여름부터 대적광전 해체복원불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요사채 건립, 진입로 확장 등 도량정비 불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제=이준엽 기자

순천시의회 송광사에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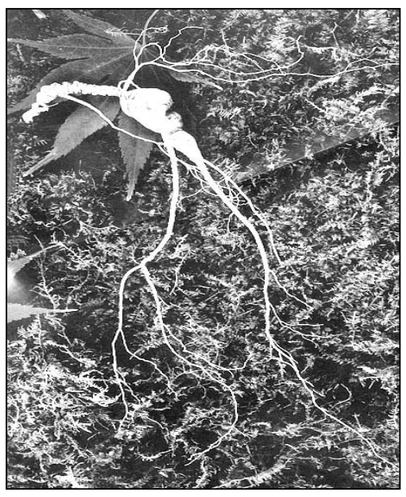
종교편향 조례안으로 물의를 빚었던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순천 송광사 총무국장 보리 스님을 의회에 초대해 조례제정에 따른 사과와 조례수정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100여년전 순천시내 특정종교의 순교지가 인근 택지개발 등으로 유실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보존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조례안을 제정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금명간에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본업을 잊은 채 서낭당 나무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복과 안녕을 빌어주는 당간지주.

세모에 더 운치있는 절터
(歲暮)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소재한 법수사지는 세모(歲暮)에 찾아가야 제격인 사지이다. 폐사지라고 하여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설악산 진전사지 같은 곳은 세상이 얼어붙었을 때 헛발을 딛으며 찾아가야 제 맛이 나고, 원주 부론 법천사지 같은 곳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찾아가야 운치가 있다.

또한 강화도 선원사지 같은 곳은 짙은 해무(海霧)로 물봉선화들이 화장을 지우는 10월쯤에 찾아가야 제대로 보이고, 무안 총지사터는 상사화가 만발할 때 찾아가야 폐허의 향기를 온전히 맡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성주 법수사지는 가야산의 회갈색 암봉들이 두꺼운 산 그림자를 장삼처럼 갈아입을 때, 시장기를 느끼며 찾아가야 그 진면목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가야산은 성주의 진산이다. 경남 합천군, 거창군, 경북 성주군에 걸쳐 경상남북도의 도계를 이루는 가야산은 주봉인 상왕봉(1,450m)과 그 주변에 두리봉, 깃대봉, 단지봉 등 해발 1천m 이상의 산들로 연봉을 이루고 있다. 가야산은 옛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불리었고,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해인사, 청량사, 법수사지, 심원사지 같은 불교 사적지를 보듬고 있어 이름 그대로 불교의 명산이다.

성산가야(星山伽倻)의 옛 터전인 성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박과 참외의 산지이다. 백운동 골짜기를 흘러내린 맑은 물로 옛날에는 성산가야의 진품인 토기를 빚었고, 오늘에 와서는 잘생긴 수박과 참외의 단물이 되어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의 혀끝을 녹이는 것이다.

가야산 순환도로 옆 옛 절터인 법수사지 또한 되새김질할수록 단맛이 나는 폐사지이다. 천년의 시공을 거슬러 영원과 교신을 하는 듯한 삼층석탑(경북 유형문화재 제86호)은 멀리 중기마을 산 너울 아래서 바라보면 송전탑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모의 땅거미가 짙을 무렵 허기를 안고 찾아가면 그 의젓한 품새에 남 몰래 슬쩍 건당(建幢)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신라 애장왕 3년(802) 창건된 법수사는 같은 해 세워진 고개 넘어 해인사와 더불어 가야불교를 활짝 꽃피웠던 거찰이었다. 한 때 전각만도 구금당, 팔종각 등 1천여 간이 넘던 대가람이었으나 지금은 삼층석탑과 주춧돌, 그리고 거대한 석축과 당간지주만이 남아있다. 해인사가 법보 사찰로 국가와 민족의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비하면 법수사의 운명은 가야산 산 그림자만큼이나 침침하다.

가야산의 동쪽을 뒤덮던 낙락장송이 한껏 일월성신을 어우르다가 인연이 되어 관솔로 남은 것이다. 도은암, 보현암, 백운암 등 그 딸린 암자만도 100여 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솔방울 떨구듯 그 전설만 남아 사래 긴 밭이랑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그 빼어난 조망권으로 하여 폐사지 답사의 또 다른 미학을 맛보게 하지만, 탑 그 자체로도 알맞은 크기와 의연한 자태로 하여 세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법수사지 삼층석탑이 빈 절 터의 주인으로 홀로 남아 천년을 버티는 것은 옛사람들이 그저 돌멩이를 깎고 다듬은 것이 아니라 저토록 탁월한 안목의 택지 선정과 그것에 비례한 신심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철새들도 그런 연고로 탑 그림자에 빠져 수없이 철이 바뀌어도 탑돌이를 하며, 콩꼬투리, 팥꼬투리를 탁발하는 것이다.

법수사지 답사는 삼층석탑 주변을 맴돌다 끝마쳐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지만 근처 묵은 밭 뚝에 넘어지고 엎어진 불상 대좌나 배례석을 참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충 둘러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석물들이 농작물 경작을 위해 애물단지인냥 취급을 받는 것은 선인들의 수고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범죄인 듯하기도 하다. 다시 떨리는 발길을 금당 터 아래 경사를 따라 내려놓으면 성벽같은 엄청난 석축이 희부듬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그 이끼 낀 돌들의 장탄식에도 귀 기울이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동서로 100m, 남북으로 10m 가량 이어진 이 돌축대는 창건 당시에 쌓아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틈새마다 관목과 풀들이 엉켜 과거와 현재가 한 덩어리가 된 모습이다. 땅의 굴곡을 따라 5m 높이로 수평을 맞춘 석축은 등 뒤의 가야산 암봉에 단을 맞춘 듯 그 장대함에 폐부까지 시원함을 느낀다.

옛날에는 사하촌이나 부속 전각들로 빼곡했을 석축 아래 중기마을은 주련 대신 집집마다 간판만이 즐비하다. '백운산장여관' '가야파크장 모텔' '솔밭장여관' 형형색색의 상호들이 세월의 경사면인냥 가파르기 만한 백운리 언덕 아래 자본주의의 주련으로 걸려있다. 마을의 끝 지점, 미나리꽝 옆의 당간지주(경북 유형문화재 제87호)는 당산 나무와 어울리다 못해 이제는 본업을 잃고 서낭당이 되어 허리에 금줄을 두르고 있다. 특별한 장식은 없으나 두 지주 사이에 당간을 올려 세웠던 간대가 원추형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 볼수 있을 것 같다. 동네사람들이 '장군젓가락'이라 부르는 당간지주는 요즘엔 제주(祭酒)로 막걸리 공양까지 받는지 배례석엔 술병이 뒹굴고 있다.

법수사지 답사는 이렇듯 절의 안쪽이었을 금당 터 삼층석탑 자리에서 시작하여 절의 입구 쪽인 당간지주 방향으로 걸어 나와 끝을 맺는다. '잊혀진 가람 탐험'은 때로 세월의 담을 훌쩍 넘어 안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장대한 석축으로도 막지 못한 세월의 격랑. 그것이 법수(法水)일지, 홍수일지 또 다시 저무는 한해를 가야산 자락에서 배웅한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사진 고영배><다음은 청도 장연사지 편>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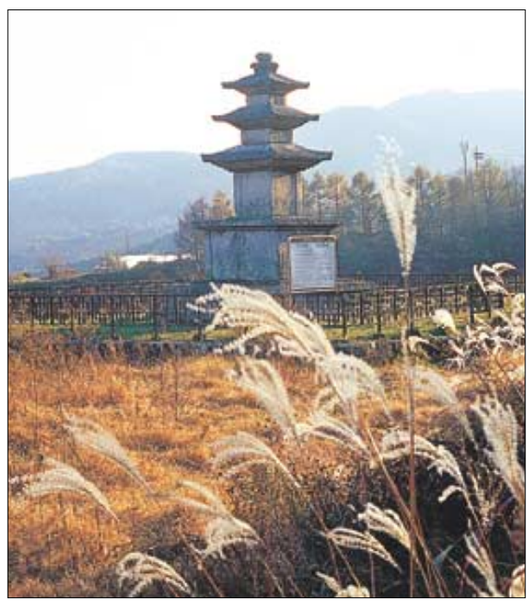
해인사와 함께 가야불교 꽃 피운 거찰
삼층석탑의 빼어난 조망 전국 폐사지 중 으뜸
주춧돌·장대한 석축·당간지주 남아

성주 법수사지

가야산에 겨울이 찾아들면 철새들은 백운동 자락 법수사지(法水寺址)로 모여든다. 겨울 폐사지는 철새들의 안거(安居) 터이다. 철새들은 폐사지에 모여 탑돌이를 하거나, 농부가 무심히 떨구고 간 낟알들을 쪼며 저들만의 비밀스런 언어로 법담을 나누는 것이다. 석축이나 풀 섶에 숨어 깊고 추운 밤을 품는 수행자들도 있다. 그런 밤 세상에는 흰눈이 내려 적멸보궁을 연출하기도 한다.

법수사지 가는 길

법수사지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김천 나들목에서 내려 59호 국도인 가야산 순환도로를 따라가다가 백운동 고개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 88고속도로 해인사 나들목에서 내려 1084번 지방도 해인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59호 국도와 만나 5.8㎞ 정도 직진하면 된다.



◇성주땅을 내려보며 법수가 다시 흐르기를 기다리는 법수사지 삼층석탑.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산문밖의 禪

'마음 야구' 사인 받으세요

두산베어스 김경문 감독

지난 10월 13일, 두산 베어스에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경문 감독(45). 신임감독으로 발표되자 곧장 봉은사로 향했다. 30여 년간 야구를 하면서 가슴에 품어왔던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 감독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발원을 위해서다.

"감독은 야구를 시작하던 11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신임감독으로 결정되던 날, 봉은사로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6년 동안 두산에서 코치를 맡아왔던 김 감독이 부임하게 되자 주변에서는 그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수근, 장원진 선수를 비롯해 두산의 기동력이 돼왔던 선수들이 이적하는 등 현재 팀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감독의 얼굴에서는 걱정 대신 오히려 확고한 자신감이 비춰졌다.

"시련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역시도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위협받는 두 차례의 시련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다.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경기 중 부상을 당해 뇌진탕으로 고생했다. 그 후유증은 대학야구 시절에도 계속될 만큼 극심했고, 겨우 완치가 될 즈음 이번에는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야구선수로서, 제 인생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이유로 야구선수 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수천 번 다짐했지요. 매일 '오늘이 그라운드에서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경기에 출전했고, 화두 풀이에 목숨을 걸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프로 데뷔 3년차가 되던 해 최고조에 달했다. 신체적 고통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아픔을 안겨줬다. '이러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시기에 김 감독은 더욱 불법에 귀의하게 됐고, 불교는 그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 주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비형 포수'로 명성을 날리며 10년 동안의 프로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힘든 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찰을 찾기 시작한 김 감독은 요즘도 틈틈이 잠실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봉은사를 찾는다. 그는 봉은사를 찾을 때마다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그만의 '마음 수행'을 한다.

부임후 초심 잃지 않으려 사찰 방문
프로시절 신체적 고통 불법으로 극복
자신과의 대화로 '편한마음' 유지
경기직전 행동 반성 정견,혜안 기원

"코치시절부터 내 자신의 자만이 선수들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치더군요.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용기백배하면 그 날은 경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저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감독은 경기 바로 직전에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며, 정견과 혜안을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김 감독의 철학은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달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자율훈련'에 들어간 뒤에도 40여명의 선수들이 훈련에 참석할 만큼 선수들의 열정 또한 뜨겁다.

김 감독의 2004년 시즌 목표는 '4강 진출'과 '보다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겨울에는 조용한 사찰을 찾아 내년 시즌을 위한 마음준비와 팀의 재정비를 계획할 것이라는 김경문 감독. '마음으로 하는 야구',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야구'를 강조하는 그의 내년 무대를 기대해 본다.

글=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BBS 대구불교방송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초대합니다

안동 · 포항중계소 개국 축하 리셉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 · 경북 200만 불자들과 애청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로 그동안 시험방송을 해 온 안동중계소와 포항중계소가 드디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동북부지방에 생활의 길잡이 지혜의 등불이 될 대구불교방송 안동 · 포항중계소 개국과 북부 · 동부지사 개소를 축하하는 리셉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항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
■ 일시 : 2003년 12월 12일(금) 11:00 ~12:30
■ 장소 : 포항 시그너스호텔

– 안동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
■ 일시 : 2003년 12월 18일(목) 18:00 ~19:30
■ 장소 : 안동 신라뷔페웨딩홀



사진설명 • 대구불교방송 개국 7주년 리셉션 축하 떡 절단 장면 (03. 11. 6 대구인터불고호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불교방송 재단 이사장 도후스님, 운영위원장 법타스님, 사장 성타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명성스님, 김규칠 불교방송 중앙국사장,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장영관 대구광역 신도회장, 도승회 경북교육감, 김무생 위덕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최상영 동국대학교 부총장, 설성두 국정원 대구지부장, 이병진 대구지방경찰청장, 금동준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원형 국회의원, 강신성일 국회의원, 이강철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오갑환 KBS 대구총국장, 이길영 TBC 대구방송 사장, 전병철 MBC 경영관리국장, 대구평화방송 사장 이용호 신부님, 정영우 교통방송 대구본부장, 조용철 연합뉴스지사장, 김종훈 KOBACO 대구지사장(무순)

릴레이 수행일기 〈中〉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비도 오지 않은 하늘에 커다랗게 뜬 무지개는 우리를 환영하는 듯 동리산 태안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상서로운 조짐에 환희심으로 꾸불꾸불한 산길을 5리는 넘게 달려 당도한 태안사는 요사채가 다 쓰러져가는 고찰이었다.

큰스님께서는 천도재에 참석하셔서 밤 9시는 되어야 끝나신다고 하여,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밝은 날 아침에 뵙기로 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형 보살은 도착한 날 큰스님을 못 뵈면 잠이 안올 것 같고,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달밤에 법당 앞마당을 서성이다가, 법당에서 천도재를 마치고 나오시는 큰스님을 뵈었다고 한다.

나는 이튿날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방사로 돌아왔다. 문창호 너머에서 일제히 소스라치게 한번에 시작된 새들의 지저귐이 한밤 내내 지켜온 고찰의 정적을 화들짝 깨우는 것을 화두삼아 안으로 안으로 비추다가, 먼 동이 튼 후 방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스님께서 한 쪽 기둥이 기운 퇴락한 해회당(海會堂) 마루를 걸레질하고 계시다가, 방 밖으로 나오는 수형과 나를 반갑게 맞으셨다. 삼배를 올리니 맞절을 하시면서 극구 일배만 하라고 사양하신다. 삼배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 방석을 권하시면서 굳이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불연이 깊으십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당시나 신라 때나 다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란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다." 숙식이 편안했는지 살핀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시다. 엄정하면서도 자상하고 겸손하신 큰스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으셨다. 이렇게 큰스님을 뵌 후 내 금생의 가장 큰 행복은 큰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과 도반인 수형 보살을 만난 것이다.

그 후 매달 한번씩 열리는 큰스님 법문에 900리 길을 90리 길보다 가깝게 한숨에 달려갔으며, 어떤 때는 한 달, 네 번 주말을 모두 태안사에 가서 큰스님 곁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때 초등학생이던 큰 아이와 유치원생이던 작은 아이는 태안사 주변을 놀이터 삼아 놀곤해서 지금도 태안사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문 들으려 주말이면 태안사 행
결사중 스님에게 '경주' 불명 받아

1985년 10월 결제부터 태안사에서는 22명이 함께 3년 결사에 들어갔다.

결사중인 1986년 4월 28일, 50세 이상 60대의 원로 선승들께서 선풍진작의 취지로 발족한 선문회(禪門會) 모임이 있었다. 큰스님께서 3년 결사동안 산문을 나서지 않기 때문에, 21명의 회원 중 15명의 큰스님들이 태안사로 오셔서 선문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칙을 만들었으며, 회장은 연장자이신 성수 큰스님이 역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큰스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불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때까지는 법철(法哲)이라는 불명을 쓰고 있었다.

"경조와 경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큰스님! 어떻게 다른지요?"

(계속)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삶 뿐" 이라고 말하는 학송 법사(왼쪽에서 두번째).

"禪은 삶 입니다"

견우회 회장 학송 법사

혜암 스님 만나며 선 수행
비교하며 알기쉽게 공부 지도
법 정확히 모르면 깨닫지 못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존재(bhava)와 법(dharma)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존재는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인식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도 괴로움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법입니다."

12월 4일,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 아늑한 공간에 15명의 보살, 거사님들이 차를 마시며 법담을 나누고 있었다. 손님들이 보기에 마치 차담을 나누는 듯한 이런 광경은 정도회라는 수행단체의 공부 장면. 학송 최남두(72) 법사가 회원들의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풀어주고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초심자들이 많아 종교의 어원, 삼법인(三法印)을 위주로 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정도회를 비롯해 중급 불자들의 모임인 다나회와 덕숭총림 초대방장 혜암 스님의 유발제자들로 구성된 견우회를 이끌고 있는 학송 법사는 1963년 백봉 김기추 거사를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선(禪) 수행에 매진해 왔다. 이후 혜암 스님의 마지막 유발 상좌가 되어 공부하다가, 85년 5월 18일 혜암 스님으로부터 '견우회'란 명칭과 게송을 받은 학송 법사는 인연있는 도반과 불자들을 위해 선공부 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다.

평균연령 70대에 달하는 재가 선객들로 구성된 견우회의 회장으로서 선문답에 달통한 학송 법사는, 일반 불자들을 위해서는 아함경에서부터 시작해 남방 및 북방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알기 쉽게 불교를 가르친다. 하지만 신심이 깊은 재가 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화두 공부도 지도해주고 있다. 학송 법사로부터 재가자들의 선 공부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바른 교리 이해 중요

▶선(禪) 수행시 주의점이 있다면?

"선은 삶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삶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선을 하느냐 하면 고통없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문답과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은 선지식의 점검에 생명력이 담겨 잇습니다. 특히 화두의 문답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단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답을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독 때문에 자각하지 못할 뿐

▶선에서는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인간은 누구나 부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고 또 본래불이니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는 현재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수행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바르게 수행해서 삼독을 멸하고 본래의 참모습을 자각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꼭 화두를 들어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만법(萬法)이 유식(唯識)'이라면 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견해는 상견(常見)이고, 없다고 하면 단견(斷見)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空)하다고 관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공이구나 하는 견해에 빠지게 되면, 다시 친절하게 '만법이 유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나 이외 아무것도 없다는 또다른 삿된 견해에 빠지면 더욱 불교와 거리가 멀어지겠지요."

겸손하게 하심해야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란.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듣고 혜명이 언하에 본래면목을 깨달았습니다. 본래면목을 진아, 본심, 본성, 불성, 주인공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경에 우리의 참모습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모습을 '공'이라 하고 인연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색'이라고 합니다. 유무를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인이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선지식을 만나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심하며 적은 선이라도 매일 실천하며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아함경부터 공부하고 자신있는 내용도 꼭 선지식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추위도 녹여버린 '수행법 대강좌'

전국 각지에서 200여 재가자 참여
참선, 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법 다뤄



◇수행 붐을 조성하기 시작한 조계사의 '수행법 대강좌'의 첫번째 강의 모습.

쌀쌀한 겨울 밤공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재가자들의 뜨거운 구도열 현장. 12월 2일 조계사(www.ijogyesa.net) 극락전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00여명의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조계사청년회가 주관한 수행법 대강좌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는 이렇게 재가자들의 관심과 열의 속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의 안내에 따라 매일 108배와 공양게 외우기, 인연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기도 등을 청규로 약속하며, 발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108배 정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의 첫 강좌를 경청했다.

계율의 의미와 종류, 그 기능과 효용뿐 아니라 생활속 수행활용, 기도, 주력, 참선 등 불교수행의 기본 개념을 익힌 참가자들은 다음주 화요일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의 '계율 수행법'을 기대하며 첫 강좌를 마무리 지었다. ▲12월 16일 정인 스님(불회사 주지)의 참회 수행법 ▲23일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의 절 수행법 ▲30일 강선희 보살의 주력 수행법 ▲2004년 1월 6일 정목 스님(정토원 원장)의 염불 수행법 ▲13일 정목 스님의 염불 수행법(실참) ▲20일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회장의 사경 수행법 ▲27일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의 간경 수행법. (02)735-3724

김은경 기자

感謝의 말씀

금번 저희들의
어머니 全義李氏 壽春靈駕의 喪事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거나 왕림하셔서 격려해주신 여러 어른들의 덕으로
무사히 葬禮를 잘 치렀음에 감사드립니다.
의당 일일이 찾아뵈어야 할 것이오나 우선 紙面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김성구(月雲)
김성율 자부 고영아
김성수 유정순
딸 김성순
김업순
김유순
김임순 사위 이종명 一同

2003년 11월 27일 拜上

간(肝)이 염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황금덩어리 복덩어리



"한국의 美 배워 남주자"

매주 금, 토요일 170여명 활동
60시간 교육, 선발 과정 엄격
답사 통해 문화재 안목 넓혀

◇우리 궁궐 지킴이 경복궁 봉사단 정인영, 김재덕, 반성화, 여인애, 유종숙 보살.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바라밀현장

우리 궁궐 지킴이 불자들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궁궐이다. 서울시민에게 이네 궁궐들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가장 듣기 쉬운 대답은 '도심 속의 안식처'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현재 궁궐의 용도로만 보면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궁궐의 문화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지요. 조선시대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이 바로 궁궐이랍니다."

11월 28일 경복궁에서 만난 '우리 궁궐 지킴이' 불자 5인. 근정전 앞에서 궁궐이야기를 시작한 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궁궐객의 눈길과 발길을 좇으며 궁궐 만담을 계속했다. 현재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지에서 '궁궐 사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자원봉사 단체 우리 궁궐 지킴이는 지난 99월 6월 시민단체 '겨레문화답사'가 만든 모임. 17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금 · 토요일 마다 궁궐의 유래와 역사, 건축물의 용도와 쓰임새 등은 물론, 궁궐의 주변 환경 및 관람 질서, 문화재 정책까지 모니터링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 궁궐을 가깝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취지만큼 이들의 전문성 또한 빛이 난다. 궁궐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달간 60시간에 걸친 강의와 현장 답사를 통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6개월 동안 선배 지킴이와 함께 수습기간에 들어간다. 이 같은 교육시간만큼 선발과정도 엄격하다. 무보수 순수 자원봉사인데도 세 번 지각하면 결석, 세 번 결석하면 퇴학이라는 규율을 적용해, 지원자 중 60퍼센트만이 살아남을 정도다.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은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쉽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엄한 교육과정의 지침이 됐다.

"역사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궁궐을 공부하다 보면 불교미술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요. 정기적으로 사찰답사를 떠날 때면 사찰의 단청이나 주련을 유심히 살피게 되죠. 그러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구요."

김영길(45) 씨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려고 시작한 궁궐지킴이 덕에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유물 안내 자원봉사까지 맡게 됐단다. 김 씨 외에도 서울시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현장학습 교사 등 문화재 관련 업무와 인연이 닿은 회원들이 많다. 그런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문화재를 보는 안목 또한 깊어져, 궁궐지킴이 요청으로 사성전 해시계 단이 마련되기도 했고 균열이 생긴 기와의 보수관리 신청 또한 왕왕 이어지기도 한다.

'배워서 남주자'를 모토로 오늘도 궁궐 구석구석을 활보하는 우리궁궐지킴이. 그들의 세심한 정성과 프로의식이 세계적인 한국의 미(美)로 꽃피어 오를 날을 기대해 본다.(02)723-420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아픈 마음속 푸른 자연 키우세요

환자 표정, 감성 밝아져 치료 자체가 불법 실천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를 상대한다는 이유로 두렵고 떨렸지만, 함께 꽃을 가꾸며 그 같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약사여래의 마음을 전하는 불자들이 있다. 대구 배성병원에서 원예치료 봉사를 펼치는 불자 5인이 바로 그들. 이들 불자는 작년 말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을 찾아 눈, 코, 손, 머리 등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원예치료법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배성병원 봉사를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말. 꽃꽂이 교실에 강의를 들으러갔다가 원예치료를 전해들은 것이 인연이 돼, 원예치료 연구센터의 원예치료사 교육과정에 등록하게 됐다.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원예치료사 도우미로 수개월을 봉사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그들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병원의 '원예치료 교실'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그러나 5명의 치료사들이 40여명의 환자들을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정상인의 의식과는 차이가 있기에 소품은 물론 말 한마디에 늘 신경을 쏟아부어야 했다.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왜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일었다. 그러나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봉사하다보니 원예치료 자체가 곧 불법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연 속에서 내가 자라고 내 속에서 자연을 키우는 것이 곧 원예치료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봉사를 끝내고 가끔 정법사에 들러 꽃공양을 올리기도 한다는 불자치료사들. 특히 박범숙 씨(44)는 대구불교대학에서 불교강의도 듣고 꽃꽂이 무료 강의를 펼칠 정도로 불교사랑 · 꽃사랑 마음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배성병원 환자들의 표정과 감성이 나날이 되살아나고 있다. 치료사들을 기다리며 병원구석구석에 선물을 숨겨놓기까지 한다는 그들. 그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 같은 빛을 낼 때까지 치료사들의 봉사는 쉼없이 이어질 것이다. (011)9389-2667

강신재 기자

대구 배성병원 원예치료 봉사자들



◇원예치료 봉사자들이 대구 배성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원예치료 시간을 갖고 있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장 스님 (上)

대만 불교 국제화에 앞장

지난 백여년 동안 중국은 국력이 약해지고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 할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여러 부문에서 침탈을 당해 왔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나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무력과 의학을 앞세워 선교에 앞장선 결과 중국에도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불교가 대만에서 다시 불교의 싹을 틔웠지만, 1950년대의 대만 사회는 불교적 풍토가 메마르기 그지없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척박한 시기에 불문에 뛰어든 묘령의 여성이 있었으니, 그 분이 곧 대만 비구니계의 원로인 자장(慈莊) 스님이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불교국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불법이 온 나라에 전해졌지만, 이제 귀밑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이 홍안의 노 스님은 아직도 국내외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바다를 끼고 산에 의지해 있는 타이완 이란(宜蘭)의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자장 스님은 이미 전생에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스님의 부친인 이결화(李決和) 거사는 독실한 불자로서 고향의 노인들과 후배들을 위해 자주 타이페이에 가서 스님을 모셔다 설법을 듣도록 했다. 그러던 중 1952년 중국불교협회의 이사선출 회의에서 젊고 열정적인 성운(불광산사 개산종장) 대사를 만났다. 그 해 말, 성운 대사는 이 거사의 초청에 응하여 이란의 뢰음사(雷音寺)로 왔다.

자장 스님의 부모는 매일 같이 성운 대사가 머문 뢰음사에 가서 여러가지 일을 도우면서 설법을 들었는데, 이 거사의 딸 중에 둘째인 신타오(新桃)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 신타오가 뒷날의 자장 스님으로서, 그 당시에 뛰어난 성적으로 난양여고를 졸업하고 학교의 교무처에서 일하는 신여성이었다.

신타오가 불교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도대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뢰음사에 열심히 다니는지 궁금해서 절에 가 본 것이다. 특히 불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미신으로 여겼던 신여성 신타오에게 성운 대사의 설법과 대중을 이끄는 법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중 1954년 구정 무렵, 성운 대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신주(新竹) 사두산이란 곳을 참배하게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신타오도 동행하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성운 대사에게 깊은 감화를 받은 신타오는 시간만 나면 성운 대사가 머무는 절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설립한 이란에서 가장 큰 대안백화점에서 경리 일을 돕고 있었는데,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 후에도 틈을 내어 절에 가서 봉사를 했다.

1965년 성운 대사가 까오슝 수산사(壽山寺)를 낙성하고 출가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자장 스님도 법운사(法雲寺)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성운 대사를 모신 지 거의 10여년 만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불교계에 신타오와 같은 신여성들이 뛰어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서구 최대의 사찰인 미국 L.A. 서래사를 건립한 자장 스님(맨 오른쪽).

성운대사 모신지 10여년 만에 계 받아
출가인에 대한 편견 불식 시키는데 노력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읍할 따름 입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최 면 이 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감응과 최면치유암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2월 19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2월 19, 26일, 1월 2, 9일
매주 금요일, 총 4 회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대천신의 법문

대자비로 가르침의 비 내려 중생 교화
고통 벗고 장애 없는 곳 이르도록 인도

선재동자는 정취보살로부터 남쪽 타라발저성(墮羅鉢底城)에 있는 대천(大天)이라고 하는 천신(天神)을 찾아가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이르러 보니 대천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의 앞으로 가서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 때 대천이 네 손을 길게 펴서 네 바다의 물을 움키어 얼굴을 씻으며 황금꽃을 선재동자에게 흩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보기 어렵고 그 가르침을 듣기 어렵다. 세간에 나오는 일이 드물어서, 중생 가운데 가장 제일이며 사람들 중의 푼다리카꽃(白蓮華)이다. 중생들의 돌아가 의지할 곳이며 중생을 구원하는 이며, 세간을 위하여 평안할 곳이 되고 세간을 위하여 큰 광명이 된다. 미혹한 이에게 편안한 길을 가리키고, 길잡이가 되어 중생을 인도하여 불법의 문에 들게 하며, 법의 대장이 되어 온갖 지혜의 성을 수호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 오직 몸과 말과 뜻에 허물이 없는 이라야 그 형상을 보고 그 변재를 들으며 온갖 시간에 항상 앞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해탈을 성취하였으니 이름이 '구름 그물(雲網)'이다."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구름 그물 해탈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이 때 대천은 선재동자의 앞에서 가지각색의 보배 더미들을 산 같이 나타내었다. 또 모든 꽃 · 모든 향 · 모든 의복 · 모든 음악 · 모든 오락 기구를 산더미 같이 나타내며, 또 수 없는 백천만억 아가씨들을 나타내면서, 대천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물건을 가져다가 여래에게 공양하여 복덕을 닦고, 또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도 보시바라밀다를 배우고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내가 그대에게 이런 물건을 보여주고 그대로 하여금 보시를 행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며, 이 선근으로써 삼보와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공경하여 착한 법을 증장케 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다섯 가지 욕락을 탐하여 방일하는 이에게는 부정한 경계를 보여 주고, 어떤 중생이 성 잘내고 교만하여 언쟁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매우 무서운 형상을 보여 주되, 나찰 따위가 피를 빨고 살을 씹는 것을 보여서 놀래고 두려워 마음이 부드럽고 원수를 여의게하며, 어떤 중생이 혼미하고 게으르면 그에게는 국왕의 법과 도적과 수재 · 화재와 중대한 질병을 보여서 두려운 마음을 내고 근심과 고통을 알아서 스스로 힘쓰게 한다.

이러한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모든 착하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착한 법을 닦게 하며, 모든 바라밀다의 장애를 버리고 바라밀다를 구족케 하며, 모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구름 그물 해탈을 알 뿐이다."

대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설하고 있는 '운망법문(雲網法門)'은 대자비의 구름으로 일체를 두루 널리 덮어 가르침을 비 내리도록 하여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지식이 '커다란 하늘(大天)'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행력이 증대하면서 지혜가 신령스럽게 되어 모든 진실과 그대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神)이라 호칭하는 것이라 보인다. 대천은 지혜가 청정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의지함도 없다. 무엇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일도 없고 사유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모든 것과 응하기 때문에 천신(天神)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인 '타라발저'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유문(有門)'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천신의 청정한 지혜가 세간에 있는 일체의 법문을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문(大法門)이 있어서 그것으로 중생을 요익케 하기 때문에 명칭이 '유문'인 것이다.

보살의 '구름 그물(雲網)' 해탈법문의 내용은 결국 보살의 덕(德)을 예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살은 세속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여래에게 공양하고, 또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도 보시바라밀을 배우고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삼보와 선지식을 공경 공양하여 선법을 증장토록 하고 보리심을 내도록 한다. 또한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옳지 못한 법을 버리고 선법을 닦게 하여 모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도록 해준다.

이러한 보살의 모든 활동이 청정한 지혜에서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두루 널리 저절로 넘쳐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구름 그물의 법문'에서 말하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㉒

견성성불(見性成佛)-9

전회의 글에서, 눈에 보이는 바깥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원시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물신숭배(物神崇拜)라고 하였다. 또한 바로 그것이 선(禪)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망념(妄念) 망상(妄想)의, 나아가 불교의 기초교리에서 말하는 무명(無明)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런 행태를 문제로 삼은 것은 불교만이 아니다.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런 행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 심지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여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와 사물에 마음대로, 또는 관습적으로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는 그것을 철썩 같이 만고의 움직이지 않는 진리라고 집착하면서 자신의 정체 또한 외부 세계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내맡기는 인간의 일반적인 행태가 온갖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세상 온갖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처방한다. 물론 각 종교와 사상에서 제시하는 '자신의 정체'와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깨달아야 할 자신의 정체란 바로 피조물로서의 정체라고 한다. 인간은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지 저 홀로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조물주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점을 망각하고 조물주를 배제한 채 자기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겸손한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바치며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삶을 살라고 처방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의 개체로서.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

한편 선(禪)에서는, 지금까지 누차 언급했지만 그 '자신의 정체'란 바로 부처라고 선언한다. 선의 표현으로는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 한다. 그리고 중생이 누구나 각자 갖추고 있는 본래 진여인 자신의 그 정체를 깨닫는 것을 일컬어 견성이라고 했다. 중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부처, 즉 보편자가 아닌 일개 중생, 즉 개별자일 뿐이라고 여기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세상 전체를 제 몸으로 삼는 연기적(緣起的)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개체로서 자기 살림살이만 붙들고 씨름하는 데에서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과 부처 사이에 거리를 두는 태도가 보이면 선사들은 가차없이 질책을 가한다. 그것이 이를테면 최후의 망상이라고 여긴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더 거친 망념 망상이 난무한다. 제 한 몸을 개체로서만 여기고 일으키는 온갖 이기적인 탐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삶을 과감하게 떨치고 불도(佛道), 즉 부처의 길만을 걷겠다고 나서는 것이 출가(出家)이다. 그 출가 수행자들조차 끝까지 놓기 힘든 것이 '나는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라는 망상이다. 그리고 부처를 밖에서 찾는다. 자신의 정체를 바로 보면 부처가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견성하면 바로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더 강한 표현(견성즉불 · 見性卽佛)도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최후의 망상을 부수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4>

불교적 면역학

모든 생명체는 상부상조의 공생관계
자신에 길들여진 생각 바꾸면 '평화'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비누, 샴푸, 세탁기, 치약 등도 고안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의학에서 자기 방어의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면역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異物)과 우리 몸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면역학자로서 나와 외부의 너(미생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록 이러한 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공생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몸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장관(腸管)이 있다. 입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의 면적은 장내의 융모 등의 면적을 고려하여 펼칠 때 축구장 넓이 이상 된다. 우리 몸의 그러한 넓은 면적은 수 많은 미생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014(백조)개 이상의 세균을 한 사람이 지니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지구상에는 1029개 이상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화석을 보아도 30억년 이전에도 세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하면서 악수나 키스 등으로 수많은 미생물을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듯이 세균들이 사람에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토록 적은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진정 놀라운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미생물들 틈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과 상부상조하는 공생의 관계일 뿐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미생물들의 진화 과정 중에 그토록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만들어 낸 작품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누가 우리는 미생물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전쟁이었다면 동물이나 인간은 이미 예전에 전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죽여 없애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여 항생제다 무어다 하며 첨단이라는 지식을 동원해 별의별 방법을 쓰다보니 그 인과로서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세균이나, 살을 썩히는 세균, 과거 있지도 않던 새로운 질병(emerging diseases)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유마경 불국품에 있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분별로 인해 원래의 청정한 모습이 안보이는 것이기에, 첨단 의학에서도 자신이 길들여져 있던 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모습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상부상조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역학을 자기(自己)와 비자기(非自己)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했지만, 현대면역학에서는 생체 조화를 깨뜨리는 상태에 대한 반응(Danger theory)이 곧 면역이라는 불교적 정의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숭이 숭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 품 명 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학상 수상
꼭 소장하여 할 기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 (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教藝術文化院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 (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 (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8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출전 : 남전 상응부경전 12.55 큰나무〉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한국인 피살

부처님도 세번은 붙잡으셨다

결국 가장 염려하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한 몇 나라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안심과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라크 반군은 일본인에 이어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병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전쟁에 참가해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30년 전에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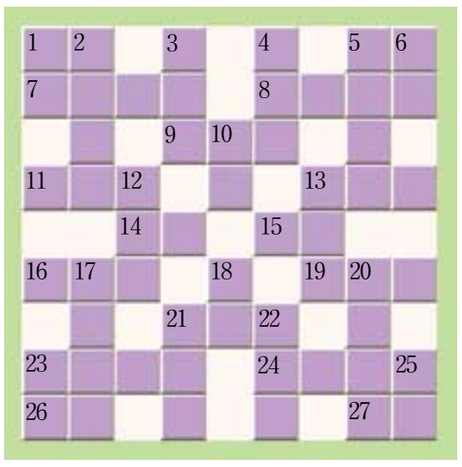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부처님의 고국인 석가국을 침공한 이야기를 전하는 불전(佛傳)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왕은 젊은 시절에 석가국에서 당한 모욕을 복수하겠다며 공격에 나선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석가국으로 통하는 거리의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참선을 하고 계셨다. 두 번, 세 번까지는 유리왕도 석가모니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격을 일단 멈추었다. 목련이 여쭈었다. "왜 신통력으로 석가국을 지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석가국 전체 사람들이 쌓은 업의 과보를 그 누가 대신 받을 것인가?" 였다. 그리고 좌선을 중지하셨다. 거칠 것 없는 유리왕은 석가국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부처님께서도 동족을 구원해 보시려고 유리왕의 발길을 세 번은 붙잡으셨다. 우리의 나랏님은 과연 몇 번이나 미국의 발길을 붙잡으셨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눌려 전혀 상관없는 타지에서 생을 마칠 만큼 우리 민족의 업이 두터운 것일까?

민간인을 향한 테러라며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이라크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대사관의 역량을 탓할 겨를도 없다. 당장 모든 파병 논의를 중단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제 첫 번째이다. 선재는 지켜볼 작정이다.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세 번씩이나 겪고 나서야 대책을 세운다면 선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인삼의 잔뿌리 5. 낡은 빛깔 7. 곳곳이 다 부쳐다(부쳐가 있다) 8.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9. 능청맞은 사람 11. 참선할 때의 화두 '이 뭐꼬?'의 한 자표기 13. 매실로 만든 차 14. 사랑하는 사람 15. 뚜껑, 덮는 물건 16. 아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결국 19. 물을 긷는데 쓰는 동이 21. 교수 아사리, 수계하는 계단에 대한 작법 등을 가르쳐 주는 스승 23. 하늘과 땅의 차이 24. 빠른 속도로 성장함 26. 하얀 빛 27. 중생을 건짐.

세로 1. 아직, 채 2. 부처님께서 세곳에서 마음을 전함 3.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 4. 한 곳에 꽉 들이박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 5. 규모가 크고 잘 지은 집 6. 빛깔의 바탕이 되는 물질 10. 청정한 규칙 12. 암석의 노출된 부분에 부처님 형상을 조각한 것 13. 매개하는 물건 17. 뜻을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모양 18. 88세를 달리 이르는 말 20. "나와 대지의 모든 유정이 동시에 성불했다"는 부처님 사자후에서 유래된 말로 모든 중생이 같은 시각에 성불을 함을 의미. 21. 도로와 도로가 엇갈린 길 22. 사고하는 능력 23. 하늘 아래, 온 세상 25. 영원한 삶, 오래도록 삶.

〈450호 「상식퍼즐」 정답〉

천	상		농		온		천	화
기	부	재	산		도	솔	상	생
	상		물	시	계		천	
시	조	새		은		무	하	수
		김	장		무	애		
원	형	질		선		별	세	계
	세		직	업	관		속	
이	판	사	판		음	양	오	행
해	단		장		전		계	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합격 필통을증정합니다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선거 출마 준비중이신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드립니다. 또한 93%의 생육광선, 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을 차단하며 도심의 탁해 지는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증진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세계 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氣를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어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침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 **나쁜녀석** (장천문 글/송수정 그림/어린이중앙)
-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윤승운 글 · 그림/동쪽나라)
- **달라이 라마** (김영만 글/조은숙 그림/꿈동산)
- **구운몽** (김만중 지음/고향란 엮음/김담 그림/청솔)



부처님 가르침 쉽게 만나요

〈나쁜 녀석〉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교 경전 〈자카타〉에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펴낸 책이다. '나쁜 녀석'이란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끝에, '이름에 상관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비롯해 재미있게 읽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열 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지혜 · 자비의 마음 일깨워

야자열매가 떨어지는 소리를 땅이 무너지는 소리로 오해한 토끼 때문에 숲 속 모든 동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게 되는 '땅이 무너진다!', 겁 많은 멧돼지들이 용기를 가지고 포악한 호랑이에 맞서는 '목수돼지', 간교한 꾀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해오라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의 모습이 흥미로운 '해오라기와 게의 한판 승부'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지은이는 7개월 동안 미얀마에서 불교명상을 하면서 틈틈이 수집한 불교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들만 추려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썼다. 그림은 유네스코 주최 노마콩쿠르에서 〈표범의 얼룩무늬는 어떻게 생겼을까?〉로 입상한 그림작가 송수정 씨가 그렸다.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와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는 순천대 만화예술학과 교수인 윤승운 화백이 그동안 여러 잡지에 연재했던 것 중 불교 관련 만화만 모아 펴낸 책이다.

주말, 자녀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간다. 어린이 출판 코너에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는 아이 곁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 불서를 찾아본다. 그러나 애써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야 한두 권 겨우 눈에 들어올 뿐, 수많은 책 가운데 불교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진열되어 있는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것이거나, 그림이나 디자인이 눈에 차지 않는다.

이렇듯 협소한 어린이 불교 출판 시장에 대해 부모들은 '왜 불교계에서는 양질의 불교서적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출판사들은 '일반책에 비해 2~3배나 비용을 투자해 어린이책을 만들어도 읽는 사람이 없다'고 독자를 탓한다.

최근, '만성적 불황'이라는 출판계에, '가뭄에 콩 나듯' 선보였던 어린이 불서가 연이어 출간됐다.

어린이 위한 佛書 5권 잇달아 나와

1권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는 인도, 중국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 제자들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또한 조주선사와 달마대사 등 중국 선사들의 일화도 만화로 꾸몄다. 2권 〈아름다운 부처님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편으로 자장율사와 진표율사의 이야기를 비롯해 갑사와 내소사 법당, 전등사 은행나무에 얽힌 설화를 만날 수 있다.

'두심이'와 '암행어사 누렁이', '맹꽁이 서당' 등을 통해 '명랑만화 1세대'로 불리는 윤화백의 정겨운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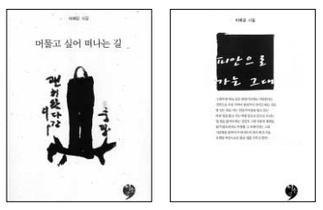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일생과 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망명정부의 지도자로서 티베트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생애를 그리고 있다.

끊임없이 현대문학으로 재생산되어 온 김만중의 '구운몽'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났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새롭게 읽는 좋은 우리 고전' 시리즈 12번째 작품 〈구운몽〉은 육관 대사의 제자였던 성진이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난 후 높은 벼슬에 오르고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 행복하게 지내지만, 그것이 모두 하룻밤의 허무한 꿈임을 깨닫는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머물고 싶어 떠나는 길〉〈피안으로 가는 그대〉(혜강 스님 시집, 이소북, 각 권 5천5백원)="누가 와서 나더러/ 안녕하시냐고 묻는다면/ 하얀 종이에/ 까만 점 하나 찍어 줘야지/ 그래도 누가 와서 나더러/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 그림은 어떠냐고 해야지(누가 와서 나더러)" 시인 혜강 스님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스님의 시에서는 우리네 고달픈 삶의 모습과 그 삶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스님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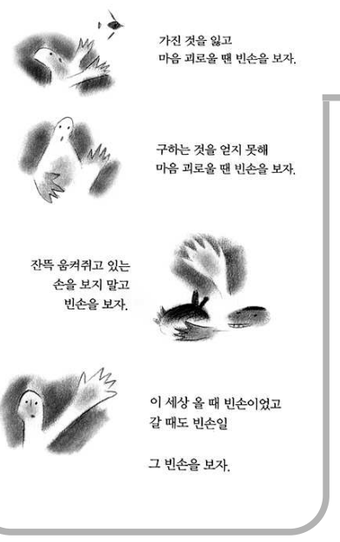
■〈방자한 명상〉(고경일 글/그림, 도서출판 명상, 9천5백원)=1997년 일본 교토에서 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만화가 고경일 씨의 카툰집. 환경과 반전,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풍자와 일상의 여유로움, 사람과 자연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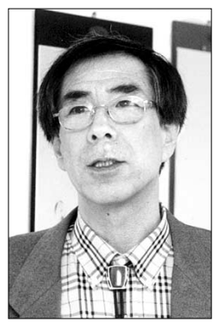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홍순명 지음, 부키, 전2권, 각권 6천8백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홍순명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 이 책에선 '흥부전', '춘향전',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전' 같은 우리 전래이야기가 현대적 시각에서 재창조된다.



"삶의 지혜 · 깨달음을 그림으로"



'명상의 바다에서…' 펴낸 *이규경 화백*



"거창하게 '명상'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솔직하게, 느낀 대로 그렸습니다. 제 그림을 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유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이규경(56 · 사진) 씨가 '몸'과 '마음', '복' 세 권으로 나누어진 〈명상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종이거울) 시리즈를 펴냈다. 지난해 선보인 〈배고프면 밥먹는다〉를 대폭 보완해 펴낸 이 책은 시처럼 짤막한 동화와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짧지만 입가에 웃음이 맴돌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하며 무릎을 치게 하는 깨달음도 담겨 있다.

그의 그림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부터 연재해오고 있는 쌍용그룹 사외보 〈여의주〉의 '웃음 속의 생각' 코너 덕분이다. 그의 그림을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한다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읽고 나서 마음이 훈훈해졌다'는 중년의 남성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매혹됐다. 읽는 데는 일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네 장의 그림 속에 깨달음을 담기 위해 그는 남의 글을 많이 읽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자세히 관찰한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짧은 그림에 어떻게 담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꽃을 보고 '아! 꽃처럼 살면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고 나니 글 쓰는 것이 편안해 졌습니다."

사실 군더더기 없는 필체와 간결한 선으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그는 "스케치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지만, 색칠은 과학적"으로 한다. 보는 사람이 편안하면서도 정겨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 도구들을 앞에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할 때가 많다.

"그림을 그리다보면 물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감은 각자의 개성과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과 빨간색 같은 보색관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를 느끼게 하지요. 자신의 개성과 주장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훨씬 조화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완벽한 색과 선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대신 "조금 실수해도 여유롭게 용서할 수 있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에게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이 절로 묻어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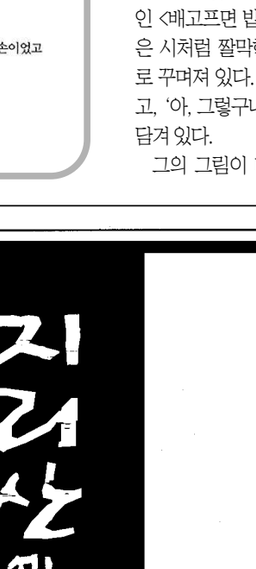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가둘 수 없는 영혼	팔덴 갸초	꿈꾸는 돌
3	덕숭산 법향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4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6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7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염불	태원 스님	운주사
9	위빠사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샘이깊은물
10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우리 산야초차

우리 전통의 산야초차를 수백년만에 복원, 현대화하기까지의 기록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茶!!

교보,yes24, 영풍,인터파크 화제의 신간

내가 회색빛 감옥에 갇혀 「야생초 편지」를 썼다면 전문희씨는 산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썼다!!

자연중독자 전문희씨. 내가 자연중독자 전문희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보내온 한 꾸러미의 산야초차를 통해서였다. 나의 책 「야생초 편지」를 읽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보냈다는 그 차를 이것을 만든 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정성들여 만든 백초차를 우려마시면서 이것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지리산을 통째로 내 몸에 모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 전문희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는 산야초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산야초차의 무궁무진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전문희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지의식을 느꼈다.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저자 사인회를 엽니다.
장소 - 교보문고(광화문점)/시간 - 11월 29일 오후 3시
교보문고(강 남 점)/시간 - 12월 6일 오후 4시



전문희 글 | 김문호 사진 | 304쪽 | 9,500원

자연중독자 전문희
- 패션모델, 통키타가수, 가구디자이너에서 산야초 전문가로 변신한 인생역정!
- 자연중독자 전문희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 산야초차에 관한 이 귀중한 기록!
- 지리산을 통째로 모시는 책, 아름다운 지리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전 메스컴의 격찬!!
- 백초차 / 연잎차....지리산 산야초차의 세계 — 조선일보
- 들풀로 우린 茶, 영혼을 맑게 한다 — 중앙일보
- 산과 들에 나는 풀과 꽃 모두 훌륭한 차의 재료 — 동아일보
- 낙향한 前 패션모델의 산야초 사랑 — 한국일보
- 산야초 茶 사랑에 푹빠져 평생 지리산에서 살겠다는 여인 — 경향신문
- 쑥 냉이 토끼풀... 이땅의 풀, 꽃 모두 훌륭한 차가되죠 — 한겨레신문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 — 국민일보
- 지리산 야생차의 그윽한 향기 — 세계일보
- 지리산을 통째로 모시는 책 — 오마이뉴스

전화 :02)2279-4788 / 팩스 :02)2285-6798 화남

아침에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경기침체의 영향인지 최근 출판시장에서 인기 주제로 떠오른 것은 아침 시간 활용법이다. <인생을 두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을 비롯해 <아침 10분 혁명-나를 바꾼다> 등 10여종의 비슷비슷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역시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아침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의 유명한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를 실천하고 있다는 셈이다.

'아침형 인간'
사이쇼 히로시 지음
최현숙 옮김
한스미디어 / 1만원

'아침형 인간성공기'
사이쇼 히로시 지음
공병호 편역
21세기북스 / 8천5백원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신선한 아침햇살 같은 책이다. 아침에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진리를 1백일 동안의 임상 매뉴얼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저자는 일본에서 '사이쇼식 아침형 심신 건강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사다. 그는 우선 '아무리 밤이 즐거워도 아침과 맞바꾸지 말라'고 충고한다. 야행성 생활에 젖어들면 생활리듬이 깨지고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야행성 생활의 가장 심각한 폐단은 '아침 우울증'. 일어나기 싫고 무기력 해지면서 매사에 권태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밤 11시에 꼭 잠자리에 들라고 말한다. 수면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최상이라는 것이다. 체온이 최저인 새벽 2~4시에 숙면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좋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대. 그래서 저자는 아침의 1시간이 낮의 3시간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는 집중력이나 판단력, 일의 능률이 그만큼 오를 수 있고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며 현명해진다'면서 '현실이 힘들수록 잠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라'고 조언한다. 또 수면 사이클이 2시간 간격이므로 수면 시간은 짝수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준다. 이외에도 그는 '아침 식사는 풍성하게, 채식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가벼운 체조와 산책이 좋다', '아침에 뇌를 자극하는 지압을 활용하라' 등 아침형 인간되기 14주(1백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개하고 있다.

아침형 인간만들기 14주 프로그램 소개
"현실 어려울수록 박차고 일어나라" 조언

같은 저자가 쓴 <아침형 인간 성공기>에서는 일본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성공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자기계발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대인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0년이상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공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첫발이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워밍업을 체질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엄숙한 의례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점검하며 게임을 하듯 즐기라고 권한다.

10여년 전 일본에서 불황이 시작될 때 등장한 '아침형 인간'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자기혁신 계기가 됐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불황이 심각할수록 '아침 성공기'는 빛을 발한다. '아침을 지배 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는데 '올빼미형 인간'들의 생각은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애노희락의 심리학'
김명근 지음
개마고원 / 1만3천원

심리학적 측면서 본 사상의학 입문서

동무 이제마(1838~1900)가 만든 사상의학은 오늘날 생활인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사상의학의 깊고 오묘한 뜻은 알지 못해도, 태양인 · 소양인 · 태음인 · 소음인이라는 체질 만큼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입에 올리니 말이다. 그러나 시중에 나도는 사상의학 관련서들은 체질에 따라 건강의 우열을 나누거나, 체질을 엉뚱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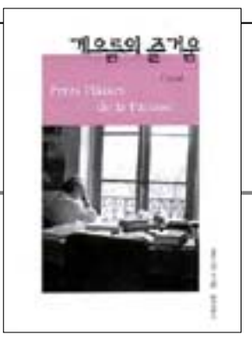
한의사 김명근(44)씨가 쓴 <애노희락의 심리학 - 동무 이제마의 사상심학>은 이런 오해를 한꺼번에 걷어내 버리겠다는 듯 작심하고 집필한 사상의학 입문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제목에서 이미 밝혔듯이, 사상의학의 심리학적 측면을 조명한 입문서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많은 경우 선천적인 체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체질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서 체질이란 단순히 몸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체질은 곧 마음 씀의 방식이다. 즉 체질이 다르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근본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체질이 선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운명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천적인 것은 오직 출발점뿐이며, 각 체질은 늘 다른 체질들을 향해 움직인다. 그렇게 움직임으로써 다른 체질의 장점을 배우고 자기 체질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이로써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태양인의 근본 기운은 세상의 이치와 변화를 직관으로 꿰뚫어 보는 천성을 타고나는데, 그가 인사(人事), 곧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일에서는 소양 기운인 '노정(怒情)'을 활용함으로써,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목적의식적인 결사체를 만드는 '교우(交遇)'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소음인보다 더 확실하게 소음의 기운을 체현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양인이 양인의 기운에 민감하고 그 기운을 자연스럽게 따라 배운 결과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게으름의 즐거움'
피에르 쌍소 · 질 클레망 · 티에리 파코 지음
호미 / 7천원

누구 ·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나?

나쁜 책이다. 분초를 쪼개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게으름을 예찬하다니! 이 책은 분서갱유 리스트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게으름은 악성 바이러스다. 게으른 자들은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불평불만 세력이다. 게으른 자들은 부적응자들, 무능력자들이다. 게으름은 박멸해야 한다. 도시에서 추방해야 한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게으름은 침묵이나 명상, 느림과 같이 도시적 삶의 주적(主敵)으로 떠올랐다. 산업화는 자연의 시간, 개인의 시간을 '사회화'하는 과정이었으니, 산업사회의 시간은 철저하게 국가와 자본이 주도했다. 등교,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을 떠야 하고 해가 져야 집으로 돌아갔다. 일요일 하루를 쉬지만, 이 휴식 또한 다음 주를 위한 '재충전'이었다. 학교와 기업, 그리고 감옥이 산업사회 및 국민국가의 세 거점이었다. 감옥이 가장 극심하지만, 이 세 거점은 강요된 시간에 의해 움직인다. 산업사회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인, 개인으로 돌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 도널리 알려진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저자 피에르 쌍소를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의 게으름 옹호론자들의 글을 한데 모은 <게으름의 즐거움>(함유선 옮김, 호미 펴냄)은, '왜 지금 여기에서 게으름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정면으로 대답하는 책은 아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아마도, 지금은 게으름의 당위성을 소개할 때가 아니고(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게으름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국면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일중독 산업 · 도시문명의 문제점 제시

이 책은 새천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1999년 노동절(5월1일)을 맞으며 프랑스의 한 방송사가 기획한 프로그램 '게으름의 전파자들' '왜 일을 하나?'를 바탕으로 꾸며졌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해의 노동절을 '게으름의 잔치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노동절에 근면을 찬양하는 잔치판을 벌이지 않고, 거꾸로 게으름의 미학을 논의했다는 사실부터가 흥미롭다.

40대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보기에, 프랑스 사람들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남달라 보인다. 하지만 게으름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나 유럽 특유의 문화가 아니다. 게으름에 관한 한, 유럽과 우리나라 사이에 시차가 거의 없다. 게으름, 즉 느림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그 책들을 찾는 독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적 삶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태적 삶을 선택하는 '선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게으름은 느림의 미학으로, 느림의 미학은 다시 땅에 뿌리박은 생태적 삶의 실천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사회악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피에르 쌍소에 따르면 게으름은 일 중독에 걸린 산업 및 도시 문명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저항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유 행위이다. 쌍소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게으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남이다. 그러나 정신까지도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게으름은 슬기로움이나 너그러움의 한 형태다."

게으름은 순수하다. 철학자 티에리 파코는 이 책에서 게으름을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로까지 격상시킨다. 파코는 시간을 벌지 말고 시간을 움켜쥐라고 제안한다.

게으름은 자발적 망명이다. 작가 제럴드 카엔이 이 책에서 소개한 '괴짜'가 바로 자발적으로 망명할 줄 아는 게으름의 대가이다. 이 괴짜는 땅콩만한 물렁물렁한 귀마개를 갖고 다닌다. 이 귀마개가 바로 세상과 절연하는 장치이다. 괴짜는 쉬고 싶으면 귀를 틀어막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나는 이 괴짜가 자발적으로 망명하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나 역시 자발적으로 망명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고 있거니와, 귀마개 못지 않게 간편하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눈을 감는 것이다. 연락은 휴대전화로 오고, 외부 세계는 팔할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나쁜 책이 아니다. 이 책을 분서갱유 목록에 올려놓는 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사람과 다름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한단 말인가. 벌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벌자. 일요일 오전처럼, 점심 식사 뒤의 짧은 낮잠처럼, 수시로 '시간을 도둑질'하자.

■이문재 / 시인

<게으름의 즐거움>은 게으름이 느림의 미학이자, 생태적 삶이라고 말한다. 나아가서는 역설적이고도 즐거운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양택·풍수·역학의 기초이론에서 고급 실전까지!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노영준 회장의 명저!

단 한권을 읽어도 풍수와 사주에 눈을 뜨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원리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든 이론과 실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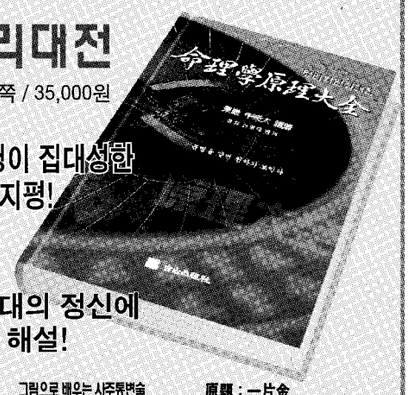


전9권
양택풍수 초급 (실전인테리어)
양택풍수 중급 (주택인테리어)
양택풍수 고급 (고급인테리어)
명당의 기운 (패철사용법)
명당의 기운 (실전풍수)
명당의 기운 (패철화복론)
역학의 비결 (사주 초급)
역학의 비결 (사주 중급)
역학의 비결 (사주 고급)

KYOUNG-DEOK Publishing Co.
경덕 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653-40 백산빌딩
구입문의 / TEL 02)912-0856 917-6240 FAX 02)912-4438
전권 양장(각권 450~550쪽) / 가격: 각권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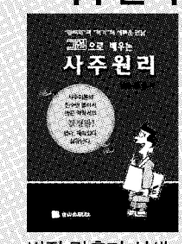
운명을 알면 천하가 보인다!

명리학원리대전
크라운판 / 양장 / 796쪽 / 35,000원



경암 신영대 선생이 집대성한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

명리학을 새시대의 정신에
접목한 명쾌한 해설!

그림으로 배우는 사주원리

범전 김춘기 선생
크라운판 / 양장
409쪽 / 25,000원

그림으로 배우는 사주통변술 신살 · 격국 총정리

범전 김춘기 선생
크라운판 / 양장
465쪽 / 25,000원

原題 : 一片金 눈을 뜨면 땅속이 보인다

김선술 · 석한섭
신국판 / 반양장
298쪽 / 10,000원

구입문의
TEL 02)914-1621 FAX 02)912-4438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653-40 백산빌딩
백산 출판사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자비의 경제윤리 2

재산을 많이 얻는 것이 일반인들의 소박한 소망이다. 물론 화폐경제의 발달은 재산을 화폐로 계량화한다. 그러나 과거로 올라가면 재산이란 재화 즉 생산물의 과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재산을 많이 얻는다는 것은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도 이러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은 농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내 수공업이나 무역업 등의 상업도 번창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작과 상업을 동일한 효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이 많아 맡은 일이 많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업무와 일이 적어 노력이 적게 드는 업무가 있다. 전자는 경작이고, 후자는 상업인데 실행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과보가 얻어지지 않는다"(남전장경 중부경전)고 말한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농업과 상업에 한정하여 설명했지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 본다. 부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의 조건으로 대답한 것이다.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처님은 훈련과 지식의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은 이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조금의 과장이나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여실지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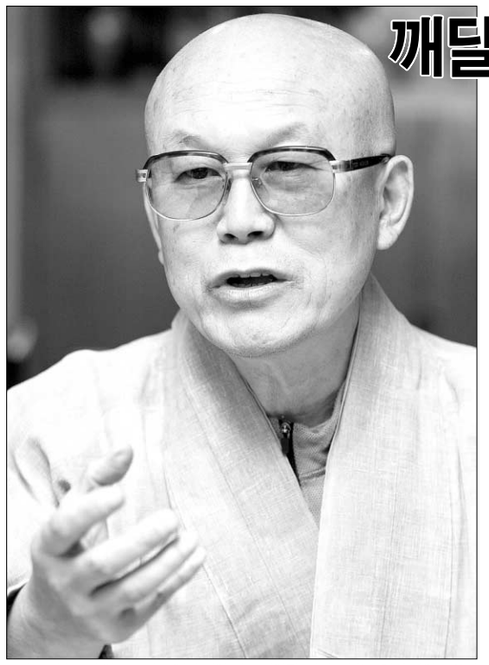
고전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한 국민의 부는 축적된 자원이 아니라 해마다 생산되는 생산물이며, 그 원천은 노동이다"라고 말했으며,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혁신"이라 설파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노동과 재화를 창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 볼 수 있는 데, 부처님 역시 우리들에게 부단한 노력과 기술개발, 근면한 노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이상과 같이 생산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기실은 생산의 문제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

공업중생 정신 바탕…분배에 더 비중
생산·이익 집착 자본주의와 큰 차이

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인도의 자연환경이 생산에 집착하지 않아도 최소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다. 원시 공동체 사회의 공유정신이 분배를 강조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연기적 세계관에서 바라본다면 나의 소유물은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룩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소유하고 보관할 뿐이지, 결국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사회의 공동체 일원 모두의 공유재산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운명과 직간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의 삶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업중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경제관은 생산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서구 자본주의 정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나와 이웃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스님은 목숨이 소중한 곳에 수행이 있는 것이지, 산 속 깊은 곳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깨달음은 악을 버리지만



지상 백고좌

대효스님

(제주 원명선원장)

깨달음으로 살면 근심걱정이 없고 장애도 없어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불문에 초보자나 입문한지 오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마음 씀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나와 남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일에 집착하여 일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으로, 또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나누지 않기에 악을 버리지만 선을 취하지도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을 얻고 지키려면 선에 집착을 하게 되니, 악을 증오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깨달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경계선이 있어서 깨달음과 미혹이 나누어지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과하나가 반쪽은 썩어있고 다른 반쪽이 싱싱하다면 그 사과는 썩어있는 사과입니다. 일찍이 깨달음과 미혹이 나누어지지 않기에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깨달아 있으며, 원래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한 눈으로 분별하여 보기 때문에 나와 네가 갈라져 보이는 것이지요. 깨달음과 미혹함도 분별망상의 소치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일으켜 미혹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깨달아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 고통도 있고 걸림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깨달은 마음을 쓰면 부처님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이 깨달음의 한 마음을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 적용해서 쓰면, 바로 걸림이 없는 해탈 공덕을 수용하게 되고, 대자대비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아낌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루고자 하는 뜻에 얽매이거나 좌우되지 않아 소요자재(逍遙自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깨달음의 마음을 쓰며 세상을 가볍게 살며 여유로움을 누리는 이를 더러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마음 씀씀이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마음이 끊기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도 되겠지만, 주변과 이웃에 대처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마음에도 고려할 것이 없지 않고 배제할 것이 전혀 없질 않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쓰고 살려면 이 세상 이대로 부족함이 없으나 나아가고 돌아올 일이 없지 않으니, 시간 공간 맺어진 인연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함께 깨달음을 누려야 할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집단이 함께 부처님의 마음을 쓸 때 서로 지탱하고 보조가 되어서 탄탄해 지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해 깨달음의 힘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수행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수행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를 아는 것이 아니요,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은 곧 불교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하고 활동하는지 목적의식도, 목표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엉켜서 맹렬하게 뛰고 있으나,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려들 듯이 달려들고 있는 큰 야생마 무리와 같습니다. 모든 생명의 지상과제는 스스로 목숨을 유지하는데 발목이 붙잡혀 있기에, 내가 살고 종족이 번식하는데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즉 집착, 욕망, 갈등, 투쟁,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 등에 둘러싸인 어둠의 성(城)안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와 함께 어둠의 성안에 갇혀 있던 싯다르타는 깨달음으로 성을 뛰쳐나와 광명을 얻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정확한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불교, 일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
전통수행은 '성성적적'이 근간

불교는 일생일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해결해서 얻은 것이 깨달음입니다. 많은 수행 가운데서도 궁극적 길이 바로 참선수행입니다. 여러 종류의 수행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참선이 지름길이며 결국에는 참선을 통해서 확철대오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찾아야합니다.

불교의 수행과 여타 다른 수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불교의 수행과 최근 생겨나는 유사수행이나 명상, 기타 수행의 차이는 근본 문제인 생사고(生死苦)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는 봉합해두고 심신을 편케만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은 근본 마음을 바꿔 해탈하지만, 다른 유사수행은 근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불편한 마음을 조절하고 기능을 배양하는데 그칩니다.

수행 내용 면에서 본다면, 성성적적(惺惺寂寂)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성적적은 '성성'으로 근본 마음을 다스리고, '적적'으로 산란하게 하는 번뇌를 끊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염불이나 주력, 간경 등 불문(佛門)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으나, 이런 수행은 시작하기는 쉬울 것 같으나 성성적적이 잘 안되고 적적만 되기 때문에 올바른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1. 9 (09:00~12:00)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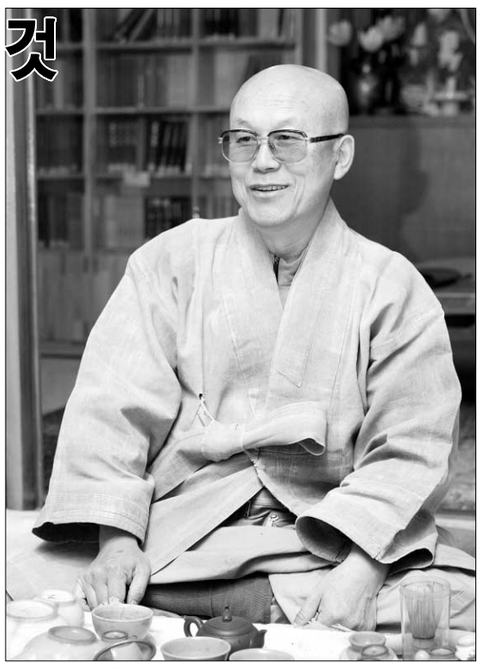
선을 취하지도 않는 것

길을 잘못 찾고,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난무하지만 성성적적이 안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위험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적만으로도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심신을 편안케 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매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적만으로는 산란한 마음을 일부 끊을 수 있지만, 완전하게 끊지는 못하고 지혜는 닦지 못하므로 다시 매(昧)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한다면서 염화두(念話頭)니 송화두(誦話頭)니 하며, 간화선처음 단계 수행과정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염화두나 송화두를 해도 적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상태를 공부의 경지로 착각하여 견처(見處)나 깨달음으로 오인해 공부 길을 잘못 들 수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사이 참선하는 사람 가운데는 급한 마음에, 선을 지도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스님이나 재가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화두를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책을 뒤적이며 혼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읽어보고 다리를 모으고 앉아 좌선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못 박을 때 못을 잘못 박았다가 뽑아서 다시 박아도 먼저 박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한번 잘못되면 고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교와 참선은 '일생일대의 생사고'란 과제의 해결을 동기로 출발해야 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설명하시는 스님.

수행자의 큰 적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물 왜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어 가면서 동기가 이런 방향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동기나 출발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참선이나 수행 기술을 익히려 듭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참선은 진전도 없고 흥미도 떨어지며, 그러다 보면 마지 못해 형식적, 직업적으로 흐르고 수단이 되고 맙니다.

동기가 불순하거나 미약하면 수행을 위한 수행이 되어 버립니다. 형식과 겉치레로 흘러 수행이 살아가는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수행자는 수렁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구계 받고 주지가 될 수 있고, 지위나 품위 유지나 세속적으로 보면 출세에 한몫을 할 수도 있겠지요.

참선 수행자들의 장애가 되는 가장 무서운 적(敵)은 이기주의입니다. 수행의 출발이 자기 개인의 문제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다보니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고, 수행에 장애를 만듭니다. 수행이 탄탄해지기 어렵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사물을 왜곡되게 봅니다.

감정에 치우쳐 있거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일 때, 욕구에서 못 벗어날 때는 하근기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순화되고, 공과 사를 판단함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열린 사고(思考)를 할 때는 근기가 수승(殊勝)한 상태가 되겠지요. 하근기는 염불이나 주력을 하고 상근기는 참선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염불, 주력은 적적(寂寂) 일변도로 빠지기 쉽고 사고가 경직되며 집착하기 쉽습니다. 좀더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을 벗어나서 염불도 주력도 있을 수 없으니 염불 주력을 하더라도 집착하여 매달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참선수행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성성적적의 공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과 일상의 활동까지 공극적으로는 일생일대의 생사고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 속에서 일도 하고 활동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기자가 본 대효 스님



대효 스님은 1976년부터 28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다.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기부터 재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도해 온 스님은 4박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참선수행을 초보자에서부터 계층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용해 지도한다.

특히 스님은 토론을 통한 문답식 법문으로 수행자 위주의 알기 쉬운 법문과 일대일식 점검, 독참(개인점검)으로 접근한다. 즉 수련생이 문답을 통해 스스로 기복적인 맹목적 삶에서 탈피하도록 해 '직관(直觀)

1976년 부터 매년 삼매체험 선수련회
문답식 법문, 안성에 수련원 건립 중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직관 수행이란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상관없이 곧바로 마음에서 보고, 듣고, 활동하며, 밝고 맑은 자리를 수용해, 당처(當處)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이며 삶이다.

몇 년 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 임야 2만5천 평을 기증받은 스님은 현재 수련원 설립을 위한 터 닦기 공사를 하고 있다. 스님은 "수행이란 인위적인 닦음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오로지 진취적이고도 간절한 발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문경 김룡사에서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고, 현재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승원 스님

나는 월정사에 자주 간다. 전나무 숲길과 유장한 계곡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승원 스님이 있기 때문이다. 키가 훤출하고 인물 또한 배우 빰치는 그의 외모는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도량에서 쉽게 그를 만날 수 있다. 항상 불사를 감독하느라 방에 있는 시간 보다는 도량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승원 스님" 하고 부르면 그는 인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 입가를 귀에 걸고 아주 멋진 웃음으로 반겨준다. 그의 웃음을 보며 나는 반가운 도반 하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 가를 새삼 느낀다.

승원 스님이 월정사에서 산 지는 10년이 된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만큼 오대산에 산 것이다.



그림 · 문병성

스님이 월정사에 산 10년 세월 동안 변한 것은 강산만이 아니다. 월정사 도량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불사를 해왔다. 지금 일신되어 있는 월정사에는 그의 원력과 발원이 선명하게 배어 있다.

승원 스님은 이제 목수 빰치는 이론과 눈을 갖고 있다.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집에 소요되는 자재와 비용, 그리고 인력까지도 계산할 만큼 일에 밝아졌다. 그래서 웬만한 업자들도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야 만다. 어느 날 업자 한 분이 "스님, 이제 건설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스님 앞에서는 공사비를 더 부를 수가 없다며 웃으며 건네던 업자의 말 속에서 승원 스님이 10년 동안 어떤 자세로 불사를 해왔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스님은 불사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자세와 마음으로 해왔다. 도반들과 함께 있다가도 중요한 공사가 있는 날이면 비가 오거나 어둠이 깊은 것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절에 돌아가곤 했다.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스님을 향해 도반 스님들은 그럴 거 뭐 있느냐며 만류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제가 없어도 불사는 해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서서 제 마음을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목수도 인부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것은 제가 소리를 지르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지시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불사를 정말 지극 정성으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우습게 말하자면 제가 불사 현장에 없는 것은 공양주 보살이 마지 올리고 마는 것 하고 똑같아요. 마지는 올리고 염불은 없는 사시기도란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월정사를 향해 달려가고는 했다. 그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그가 지닌 진실한 삶의 자세에 대해 얘기하며 그런 도반이 있다는 사실을 흐뭇해 했다.

그런 그가 불사를 해서 그런지 월정사에 들어서면 누구라도 도량이 참으로 조화롭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디 하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벗어난 곳이 없다. 웅장하지

10년을 하루같이 가람 불사 몰두
월정사 전나무 같이 '곧은 심지'

만 단아하고 편리하지만 아늑한 도량의 정취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건축에 대해서 빼어난 안목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도량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애정과 진실 없이는 불가능 하다. 애정과 진실 없이는 일의 지속적인 추진 또한 가능할 수 없다. 한 분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심지의 곧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승원 스님은 월정사의 상징인 전나무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일을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이나 평상시 삶을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은 전나무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 스님의 삶의 향기와 곧음은 그가 먼 전생 어느 시간 월정사를 지키고선 전나무 숲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니게 한다. 곧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푸르러 쉬이 변하지 않는 전나무처럼 그는 그렇게 월정사를 지키며 살고 있다.

가끔 나는 스님을 바라보면 목이 아프다. 그가 키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키 보다는 그가 쉬이 타협하지 않는 순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별로 아랑곳 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다. 평가는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스님 입가의 웃음은 오늘도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오늘도 나는 그 순수한 웃음을 만나러 월정사에 간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부처님 호흡법
참선수행교육
자동단전호흡법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호흡법으로 누구나 쉽게 저절로 배워지고(99%) 간단하게 단한번에 알아지고 (99%) 저절로 자동으로 단전복식호흡이 되어 (99%) 가장 빠른 효과로 모든 수행의 필수조건으로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은 상쾌한 최상의 컨디션 상태로 언제나 꼿꼿한 자세가 오래오래 유지되며 일체 무리가 없는(99%) 꿈에나 그리던 호흡수련으로 몸과 맘을 닦는 재미가 솔솔 납니다.
최고로 확실한 심신 건강법(100%)입니다.

◈ 대 상 : 참선, 위빠싸나, 염불, 독경, 행선, 와선, 절, 단전호흡 수행자, 누구나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 낮 반 : 1시 ~ 3시
● 저녁반 : 8시 ~ 9시 30분 수시로 입회가능
◈ 수련비용 : 입회비 1만원
◈ 수련회비 : 월 3만원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핸드폰, 녹음기, 시계, 귀금속 지참 불가)

소리산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0035 (팩스겸용)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4번출구 앞 50m이망스가구 4층
※ 자동단전호흡법의 책자가 2004년 정초에 발행될 예정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춘천옥매트
홍삼메딕스
오랜경험의 자연치유 전문점 - 미병 · 난치병 모두상담



기氣 흐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구증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최초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육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참으로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일화하나 : 무릎 연골이 달아서 일어서기가 힘드셨던 80세 할머니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펄쩍펄쩍 뛰어 보이십니다.

판 매 품
◆ 옥매트(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서비스품목
◆ 척추교정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산야초차로 건강을 다지자”

산야초 전문가가 전하는 겨울 차

최근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와 〈산야초 건강학〉, 〈몸에 좋은 산야초〉 등은 토끼풀이며 냉이와 쑥, 민들레와 질경이도 모두 훌륭한 차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산야초’란 산과 들에서 나는 온갖 풀과 꽃을 이르는 말로, 다양한 차의 재료로 사용됐다.

겨울철에 즐길만한 산야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구기자차

예로부터 ‘불로장수약’으로 알려진 구기자는 한방이나 민간약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다. 흔히 자양강장제로 널리 쓰이는 구기자는 간질환과 신체 허약, 신경쇠약, 두통, 시력감퇴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피가 잘 돌게 해 오래 복용하면 피부가 고와지고 기미가 줄어든다.

한방 민간약으로 이용
피부 고와지고 기미 줄어

말린 구기자를 주전자에 넣고 고운 빛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 보리차 대용으로 마셔도 좋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생강, 계피, 대추 등과 함께 끓여 마시기도 한다.

■ 감잎차

감잎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 클로로필 등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건강차로 애용되어 왔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잎차는 겨울철에 우려 마시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또한 이뇨성분이 있어 몸의 부기를 빼주며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장을 상하게 할 염려가 없으며, 카페인도 없어 불면증 걱정도 덜 수 있다.

비타민 C 풍부한 건강차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감잎차는 질그릇 등에 생수를 끓여 60~70℃로 식힌 뒤 감잎을 적당히 넣고 5~10분 정도 우려내 마신다.



■ 국화차

감기 두통 현기증에 효과
신경쓰는 학생, 직장인에 좋아

국화는 예로부터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민간요법으로 쓰여 온 생약이다. <본초강목>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쉬 늙지 않는다. 위장을 평안하게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한다. 감기와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는 기록이 있다. 신경을 많이 써 머리가 무거운 학생이나 직장인, 눈을 혹사하는 직업, 특히 늘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국화차를 상복하면 좋다. 은은한 향을 만끽할 수 있는 국화차는 피부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풍열을 없애며 해독작용을 한다.

국화 꽃잎을 찻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1~2분 우려내 마신다. 술이 잘 깨지 않는 체질에는 말린 국화를 가루내 한번에 한 숟가락씩 물과 함께 하루 2~3번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남성들이여 녹차를 마셔라

비만·전립선암 예방 효과
매일 마시면 발병 확률 1/3
군산대 주종재 교수팀 발표

녹차가 다이어트와 남성의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녹차의 항비만효과(다이어트효과)를 밝힌 곳은 군산대 주종재 교수(식품영양학과) 연구팀. 이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고지방 먹이를 통해 비만을 유도한 실험용 쥐에 녹차를 우린 물에서 추출한 분말 0.4 g을 4주간 투여한 결과, 체지방 축적량이 1.4g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일반 쥐는 체지방 축적량이 6.6 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갈색지방조직(Brown adipose tissue)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녹차에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주 교수는 “녹차의 항(抗)비만효과를 기대하려면 하루에 한 두잔을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녹차를 끓인 물을 갖고 다니며 상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영양생화학 저널(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 11월호에 발표됐다.

녹차를 매일 마시는 남성들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3분의 1 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는, 호주 퍼스 소재 커틴 대학과 중국 항조우(杭州)시 저장(浙江) 암병원의 연구진이 밝힌 것이다.

이들은 <국제암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 400명의 중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녹차와 전립선암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녹차가 항암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중국인들 가운데 다른 음료는 거의 마시지 않고 녹차만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전립선암에 걸린 중국인 남성 130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중국인 남성 274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남성들이 녹차를 매일 마시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3분의 2나 줄일 수 있으며, 녹차를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녹차를 마신 기간이 길수록 발병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맥 지킴이



신운학

(화정다례연구원 원장)

그는 재일교포 2세다. 또한 그는 지난 30년 간 차문화 보급에 앞장 서 왔다.

이 두 문장만으로, 화정다례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신운학(67) 원장이 ‘일본식 다도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의 반쪽도 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신 원장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차를 배웠다. 대학 때는 필수교양과목으로 다도를 선택해 정식으로 배우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일본의 차문화에 흠뻑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던 1969년, 낙선제에서 열린 이방자 여사를 위한 다례제에 초대받은 신 원장은 그곳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처음 접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면면히 이어져오는 차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과 함께 국내에 정착하게 된 신 원장은 예지원 다도반 회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차문화 연구를 시작했다. 신 원장이 78년에 결성한 화정차회는 25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오늘에 이른다.

다례제 참가 후 고유 차문화 찾기 결심
고려시대 시, 그림에서 흔적 찾아 복원
사랑·존경하는 마음 갖는 것이 중요

하지만 한창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던 신 원장에게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말차는 일본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분명 일본의 말차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었을 것인데, 과연 우리의 말차문화는 어떠했을지 복원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살다 와서 일본 차문화만 연구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신 원장은 고려시대의 시와 그림 등에서 우리 차문화의 흔적을 찾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87년 ‘한국의 집’에서 처음 선보인 것이 고려접빈다례.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의 수도인 송도를 다녀간 서긍이 고려의 풍물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을 통해 재현해 낸 이 다법은, 은탕관과 은주전자 등을 이용해 고려시대의 화려한 품격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 원장은 이러한 귀족 중심의 차문화만이 아니라, 생활 속의 차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설립한 차회의 이름처럼, ‘평화롭고 고요함(和靜)’을 근본정신으로 삼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차를 마시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지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정을 쌓아 가는 것이 차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여수령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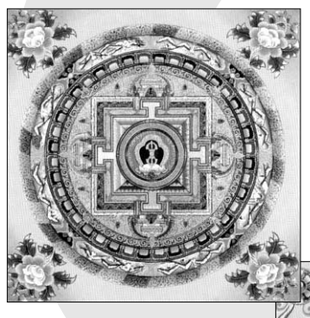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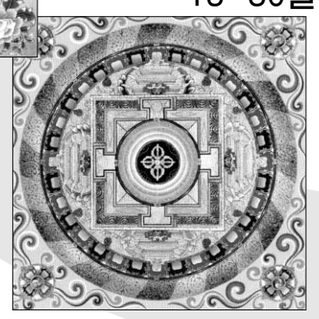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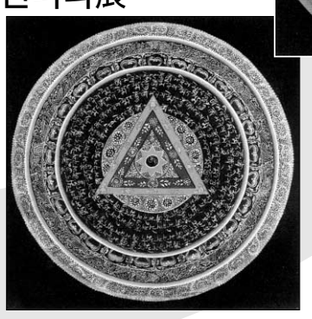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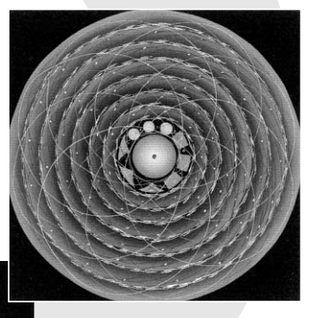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완역한 동봉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재의>> (<<일원곡>>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합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되는 예수재 의식집으로써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1차 49재 및 송년법회
◎ 일시 : 2003년 12월 21일(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시작도 끝도 없는
깨달음의 세계로

15~30일 불일미술관서 칼라차크라 만나라展

과연 인간의 손으로 그려낸 것일까. 원과 사각형, 불 · 보살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만다라를 보면 한번쯤 품을 수 있는 생각이다. 만다라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티베트 만다라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칼라차크라 만다라'다. 칼라차크라는 시륜(時輪), 즉 시간의 수레바퀴란 뜻인데 티베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에 1백여종의 칼라차크라 만다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깨달음의 눈-나처럼 보라'를 주제로 열리는 칼라차크라 만다라展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2년전 서울 삼선교에 문을 연 만다라문화원장 동휘 스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스님은 10년전 티베트에서 본 만다라 세계에 심취해 티베트 고승들이 직접 그린 만다라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전시회가 바로 첫번째 결실이다.

원래 만다라는 7세기에 형성된 태장계 만다라와, 그 후에 형성된 금강계 만다라가 있었는데, 밀교의 후기에 접어들면서 비밀집회 만다라와 칼라차크라 만다라가 만들어졌다. 깨달음을 표시한 상징인 만다라의 핵심은 바로 중심에 있다. 중심에는 둥근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의 눈동자로 부처인 자신을 발견,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개의 동심원이나, 사각형 그리고 불 · 보살들을 안치한다. 둥근 원 안에는 백색과 청색, 황색, 적색, 그리고 녹색 등 5가지 색을 이용해 사바세계의 5대 존재요소인 지, 수, 화, 풍, 공을 그렸다. 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짐을 느끼게 된다.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은 짧지만, 보다 원형적인 삶은 훨씬 더 길다는 의미다. 영겁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하 전시실에는 칼라차크라 만다라가, 지상 1층 전시실에는 불보살을 그린 다양한 종류의 만다라가 전시된다. 15일 오후 2시30분에는 만다라를 그린 쿤상, 비제이, 우루겐 스님 등 10여명의 티베트 스님을 초청해 만다라 봉안 의식법회도 열린다.

동휘 스님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힘과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가 만다라 속에 내재돼 있다"며 "부처님의 설법 그대로인 만다라를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가 되고 모든 것에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02)3673-3886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칼라차크라 만나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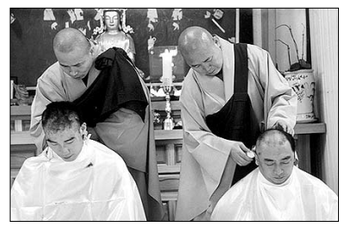
'칼라차크라(Kalacakra)'는 범어로 시간(Kala)과 바퀴(Cakra)가 합해진 말로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란 뜻이다. 외적으로는 우주 삼라만상을 뜻하고 내적으로는 마음 속 의식의 흐름을 상징한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림이 칼라차크라 만다라이다.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으로 선정돼 재공연에 들어가는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의 한 장면.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재공연

16일~내년 1월 4일 대학로 극장 무대에



도둑질을 일삼는 중생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다는 내용의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원철스님 작 · 송미숙 연출)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학로 극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진흥원 우수 작품 사후지원의 차원으로 이뤄지게 됐다.

천안불교문화원장 원철 스님이 7년여만에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바 있는 이 연극은 도둑질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말구가 절에 들어와 온갖 못된 행동을 하지만 조실 스님과 선방에 수행중인 원각 스님의 도움으로 참 수행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번 작품이 과거와 다른 것은 주목을 끄는 세트장치와 말구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교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객석주변에 산속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갈대와 대나무 등을 배치해 관객들이 산사에 와서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또 권오진(운학스님), 정대용(조실스님), 유하복(원각스님) 등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기용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가 송미숙씨는 "올바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2)357-5355 김주일기자



"음성공양으로 평생 전법에 주력"

찬불가 음악제 참관 특별귀휴 최봉정 무기수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 4회 창작찬불가 음악제에 반가운 초대손님이 찾아왔다. 2회 대회 장려(곡명 '업'), 3회 대회 대상(곡명 '나유타')을 수상한 바 있는 최봉정(34 · 사진) 씨가 그 주인공.

최 씨는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회에 응모, 수상해 화제가 됐다. 2년 전 뜻 깊은 상을 받고도 제대로 된 인터뷰도 할 수 없던 그는 이번 4회 창작찬불가 음악제에 초청돼 특별 귀휴를 받았다. 그는 "찬불가 음악제에 초청됐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씨는 이어 "부처님 법 만나 찬불가를 만들게 된 인연으로 감형까지 됐다"며 "음성공양으로 평생 전법에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17살 때 무기형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해 오다 지난 해 창작찬불가 대상 수상을 계기로 감형됐다. 대전교도소에서 불교를 접한 뒤, 찬불가에 관심을 갖고 작곡을 공부하며 교도소 내 찬불가 합창단을 만들어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그의 모범적인 재소생활도 감형에 참작됐다.

대중들의 공감을 사는 노랫말의 발라드 위주로 찬불가를 작곡해온 최 씨. 그는 "퇴소 후에는 음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며 "(감형으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얻은 만큼 쉽고 친근한 찬불가를 만들어 포교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한상희기자

찬불동요 17번째 음반

눈덮인 우리절 등 10곡



'눈덮인 고요한 우리절 어둠이 살며시 찾아오면, 풍경도 하나 둘 잠이 듭니다. 하이얀 하이얀 꿈을 꿉니다.'(눈덮인 우리절 中에서)

좋은벗 풍경소리가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찬불동요 창작곡 음반을 내놓았다. 벌써 이번이 열일곱번째다.

이번 음반에는 '이 작은 둥불 하나'를 비롯해 '흰구름도 부처님 되어', '우리들만의 세상', '그림을 그려요', '하얀세상 부처님세상', '부처님 별자리', '눈덮인 우리절', '팽이치기' 등 10곡이 수록돼 있다. 어린이들의 천진불심속에서 바라본 겨울 산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곡들이다. 이번 음반에도 여지없이 각종 법회나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록곡 모두 반주음악을 실어 놓았다.

한편 12월 12일 저녁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는 좋은 벗 풍경소리 '악보모음집 2' 출판 기념법회와 제 3대 신임회장 성행 스님(의왕시 청계사 주지)의 신임회장 추대식을 함께 봉행한다. www.budsori.or.kr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6:30 새로운 인생
09:05 차 한잔의 선율
12:00 정오 종합뉴스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8:15 유쾌한 저녁길
24:00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0일 09:2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11일 12:00 향토음식 기행
12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3일 14:00 불교TV 주간뉴스
14일 17:25 자비의 천수천안
15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6일 08: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유쾌한 저녁길(12월 16일, 18:15~20:00)
개그맨 노정렬 씨의 진행으로 정보와 오락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화요일 시간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에피소드를 통해 직장생활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는 '웃자! 신 라디오 손자병법'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하재봉의 영화산책(12월12일, 08:30~09:10)
영화 속의 불교를 찾아보는 코너 영화 삼라만상'에서는 실제 에스키모인이 출연한 영화 '아타나주아'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현장 무비스케치 코너에서는 김민종, 최성국 주연의 '낭만자객' VIP시사회현장을 방영한다.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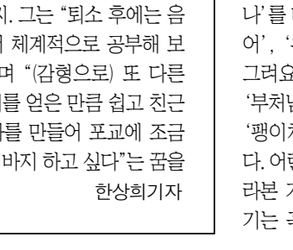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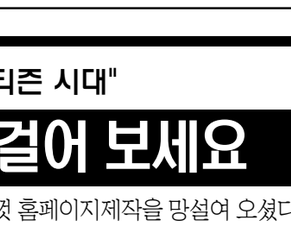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전문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승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전문 의식반을 운영 하오니 재가 신도나 스님들의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모 집 반

㉮ **초급(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목탁, 요령, 경쇠, 태징, 법고, 다루는법 지도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청, 축원법, 관음정근법.

㉯ **중급(3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다비식, 점안의식, 전시식, 방생의식, 산신기도법 등등 종합적인 의식법.

㉰ **작법반(6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바라춤), 다게작법(나비춤),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등등.

㉱ **속성사물반(3개월)**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다라니, 대다라니, 권공의식등, 경쇠, 북다루는법 집중지도

㉲ **특별반(전문의식반)** : 영산재, 예수재, 점안의식반 소수운영

알려드립니다
12월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원 법당에서 15분「의식스님」및 작법가 들이 출연하여 나비춤, 바라춤, 회심곡 등... 의식을 선보입니다.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헌동 1914-5 월촌지하철역 정문앞
전화 : 053)622-0333
대구 대승불교대학 의식교육원 원장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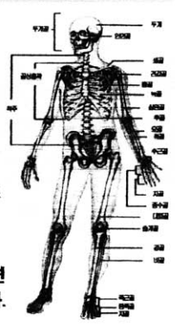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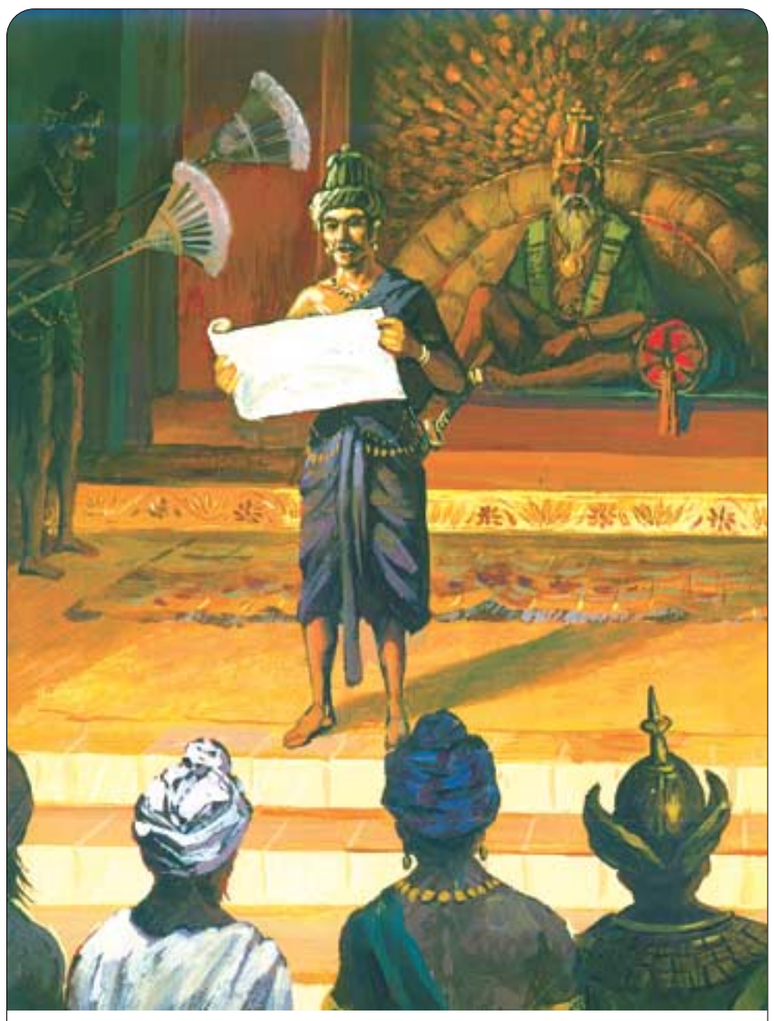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0화 샤카족의 출가



카필라바스투의 숫도다나 왕은 샤카족의 가문에서 붓다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샤카족 청년들이 부처님 교단에 출가할 것을 권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포고 : 샤카족은 한 가정에서 한사람 이상씩 출가시킬 것, 형제가 다섯 있는 집은 세 사람을, 네 사람 있는 집은 두 사람을, 두 사람 있는 집은 한사람을 출가시킬 것이며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는 출가시키지 말 것.

이때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붓다의 교단에 귀의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간단히 예를 들어봐도 늙은 숫도다나 왕의 은퇴 후 왕위를 맡았던 바드리카(Bhadrika)왕과 아니룻다(Aniruddha), 그리고 나중에 붓다와 맞서서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악명의 대명사 데바닷타(Devadatta) 등 글자 그대로 카필라바스투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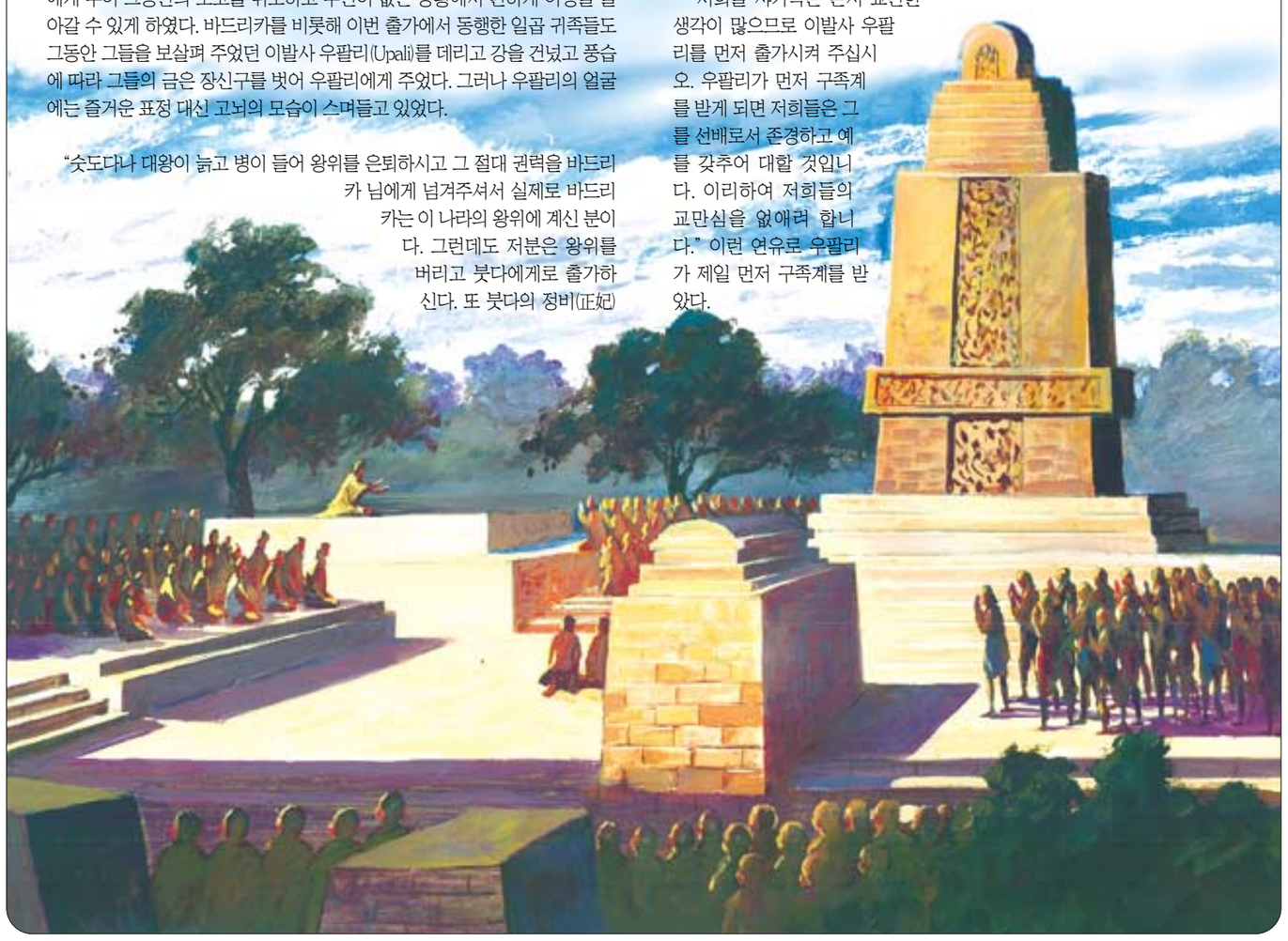
당시 샤카족의 풍습으로는 출가하는 사람들이 성밖 멀리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강을 건너며, 자신들이 소유했던 장신구들을 하인에게 주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바드리카를 비롯해 이번 출가에서 동행한 일곱 귀족들도 그동안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이발사 우팔리(Upali)를 데리고 강을 건넜고 풍습에 따라 그들의 금은 장신구를 벗어 우팔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팔리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 대신 고뇌의 모습이 스며들고 있었다.

"숫도다나 대왕이 늙고 병이 들어 왕위를 은퇴하시고 그 절대 권력을 바드리카 님에게 넘겨주셔서 실제로 바드리카는 이 나라의 왕위에 계신 분이다. 그런데도 저분은 왕위를 버리고 붓다에게로 출가하신다. 또 붓다의 정비(正妃)였던 야소다라 왕후의 동생인 데바닷타님도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붓다께 가신다. 저처럼 지체가 높으신 귀족 양반들이 모두 붓다를 찾아가는데 나 같은 이 무식한 이발사가 무엇 때문에 성으로 돌아가서, 또 엄격한 신분의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이 기회에 나도 부처님께 출가함이 옳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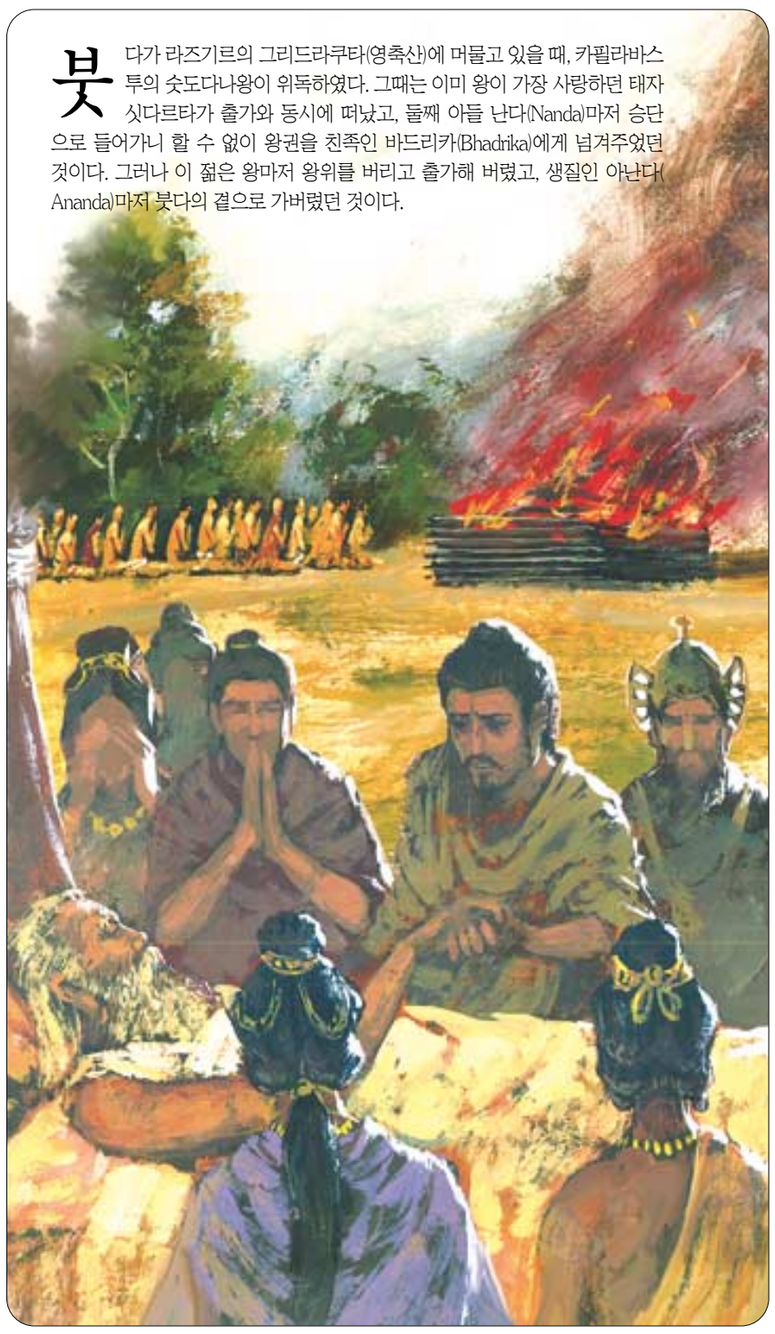
이리하여 이발사 우팔리는 귀족들이 넘겨준 금 · 은 · 보화를 나무 위에 걸어놓고 귀족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다.

이때 부처님은 말타족의 나라 이누피야라는 곳에서 여덟명의 샤카족 청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붓다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저희들 샤카족은 본시 교만한 생각이 많으므로 이발사 우팔리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팔리가 먼저 구족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그를 선배로서 존경하고 예를 갖추어 대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희들의 교만심을 없애려 합니다." 이런 연유로 우팔리가 제일 먼저 구족계를 받았다.



붓다가 라즈기르의 그리드라쿠타(영축산)에 머물고 있을 때, 카필라바스투의 숫도다나왕이 위독하였다. 그때는 이미 왕이 가장 사랑하던 태자 싯다르타가 출가와 동시에 떠났고, 둘째 아들 난다(Nanda)마저 승단으로 들어가니 할 수 없이 왕권을 친족인 바드리카(Bhadrika)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왕마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버렸고, 생질인 아난다(Ananda)마저 붓다의 곁으로 가버렸던 것이다.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숫도다나 왕은 그 허전함에 의지가 약해지면서, 마지막 소원으로 붓다의 손으로 제도(濟度)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최후의 순간에 도착한 붓다는 부왕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이때 늙은 왕은 붓다의 손을 끌어 가슴에 대고 반듯이 누운 채로 합장하여 만족하다는 뜻을 보이더니 이윽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고인의 몸은 향수로 씻어졌고 칠보와 진주로 장식된 관에 넣어진 후 꽃을 뿌리고 향을 피웠다. 붓다와 난다는 머리맡에 서고 리훌라는 발아래 섰다. 그리고 뒷세상에 인심이 어지러워져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불효자식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모범을 보이려고 몸소 관을 메었다. 그리하여 우두, 전단 등의 향나무를 모아 화장하였다. 그리고 유골은 황금으로 된 그릇에 담고 탑을 세워 모셨다.

숫도다나왕(Subbhadana, 淨飯王)이 승하하자 카필라바스투의 대통 문제는 여러번 혼미를 거듭했다. 우선 왕위를 비워둘 수 없는 문제여서 숫도다나왕의 넷째 아우인 아미타다나(甘露飯王, Amrta-dana)가 잠시 보위를 지켰으나, 그 역시 연로한 탓에 할 수 없이 5인의 대신회의를 열어 그중 최고의 대신을 새로운 왕으로 뽑으니, 그가 바로 마하나마(Mahanama, 摩訶男) 라자(raja, 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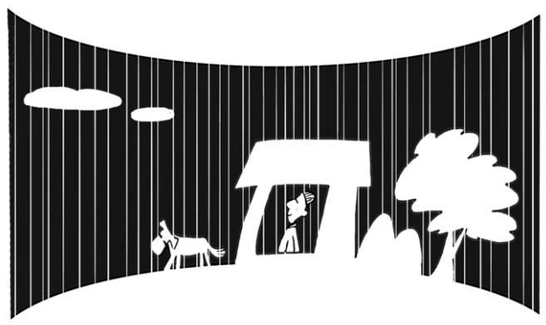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한 것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국외지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백종과 칠석을 지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칠석은 산 사람들을 위함이고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은 몸과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은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로 쳐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쳐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불을 켤 때나 끌 때,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듯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동결해서 같이 마음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이것은 깨달음의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속에, 저녁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지요.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아침 저녁이 따로 없는 마음을 발견해서 밝히는 것이 칠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인 것이죠.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의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량을 말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쓰다가 일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하루, 일 초를 뜻합니다. 그 수명이 여기가 일 년이면 거기가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그렇다고 여기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해당되게 지어 놓은 말이죠.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만물 만생이 견우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결부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되어질 수 없구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칠성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종에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목련 존자를 비유해 놨을까요? 목련 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옥문을 열지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죠. 그러나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정진하고 나니 옥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칠석이다 하는 말은 항상 나한테 감추어 숨어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서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칠석에는 깨달아서 칠성이 되고, 백종은 아침과 저녁이 한데 모아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눈이 열려야 건질 수가 있지, 깨달음에 의한 눈이 열리지 못하면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백종입니까. 하나도 빠짐 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날에 상만 푸짐하게 차려 놓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를 지내는 스님네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건져지겠죠. 항상 둘로 보고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과 둘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항상 부모와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빛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둘로 보지 않습니다. 둘로 봐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다면 부모들이 바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고 부처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툭 터져서 삽시간에 둘리가 터져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 마음의 도리지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거니와 조상님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모두 견우와 직녀입니다.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울고 웃으며 사연이 많듯이 우리들 만남도 즐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그냥 훌렁 벗어나게끔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버렸다, 그리고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나가는 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입력이 되어서 현실에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은 거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죠. 콩이 팥이 될 수가 없고, 팥이 콩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에 갔을 때 일인데, 흑인이 자기 아이에게 까만 초코렛을 입에 물려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구요. 흑인은 백인을 낳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하나하나 자기가 살아나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스스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잘못했으면 감춰서라도 끌려가지 않을 텐데, 이건 감추고 자시고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게 되죠.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겉죽으로는 말이나 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개구리나 독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벌레의 모습을 가졌을 때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그냥 영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탄생을 해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항상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항상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항상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환상으로 내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데는 자기 몸속의 의식들이 수십억 마리가 깔려 있으니 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이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둘째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강 사이를 놓고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뱅뱅 돌면서 오백 년을 돌아도 배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세번째는 불바퀴를 넘어서야 할 텐데 뜨거워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또한 '나'라는 걸 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라는 게 공해서,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쳐야 할 텐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밟혀서 못 나오고, 의식으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나오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니 자기 갈 길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죽어서 열반이 아니라 살아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아야 열반이지, 죽어서 흔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말도 할 것이 없지요. 살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으면 그런데 막내아들한테는 "나 죽으면 물에 넣어다오. 관을 물에 넣어다오."라고 따로 유언을 했었기에 막내아들이 밤중에 몰래 지게를 대어 놓고는 져다가 강물에 관을 넣는데 쩍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막내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저승 천자가 되고, 아들들은 죽어서 소가 됐어요.

막내아들이 꿈을 꾸니까 소가 되어서 전부 외양간에 매여 있더란 말입니다. 꿈에 "음메!"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저것은 너의 큰형이고 저것은 너의 작은형이고 저 소는 너의 셋째 형인데, 말을 안 듣고 남에게 해꼬지를 하고 그랬으니 소가 되어 남의 일을 해줘서 그 업짤게 한 것을 다 갚아야 하느니라." 하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메 음메 하고 소리를 내도 소의 무명을 쓰고 나왔으니, 자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죠.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깐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철 나는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치 말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서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구녁 없는 구녁에다 모든 것을 놓으면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지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일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보태주거나 뺏어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齋) 지내는 도리,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최씨라는 분이 천도를 시킨다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천도가 안되더랍니다. 안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는 보따리를 들고 저길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내게 온 겁니다, 이제. 그래 지내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았던 방석 있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차려 놓고 지내도 안 되는데 아니, 방석에 그냥 놓고 저 방석에 하고 가라고 이러니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절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오더니만 "아이고, 천도가 됐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조상님들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모두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뒤에 그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가발공장을 했었는데 담뿍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죠. 제삿상을 차려 놓으면 스님네들이 얼마만큼 차려 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네들 마음부터 보거든요. 마음부터 읽는 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상 차려 놓는 것하고, 또 돈 얼마 가져온 것만 알고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 상을 안 차려 놨어도 그렇고, 차려 놨어도 그렇고 모든 게 내 것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영령들이 그 스님네들의 마음과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깐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되어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놓고 지내면 잘 지내주는 줄 아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안 차려 놓으면 '상도 안 차리는데 돈은 조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지름길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태어나서 지옥고를 헤맬 때, 그것을 면하시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마음, 즉 영령을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놓는다면 금새 제도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고,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내기도 하는 것이죠.

영령들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럽니다. 돌아가셔서 천도를 했으면 제사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자식이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허명무스름하게 떠넘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해라 이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돌아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바닷물이라고 하죠. 수만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집안이 더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찹쌀 가루를 해서 제사 지낼 때 둥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을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시켜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주고 다녔죠.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니나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요.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요.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니까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거 해야 하고,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수행 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에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처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니, 행선 와선 입선 좌선을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일일이 참선이다, 참선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일상생활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하며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믿고 놓으며 돌아가면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것 없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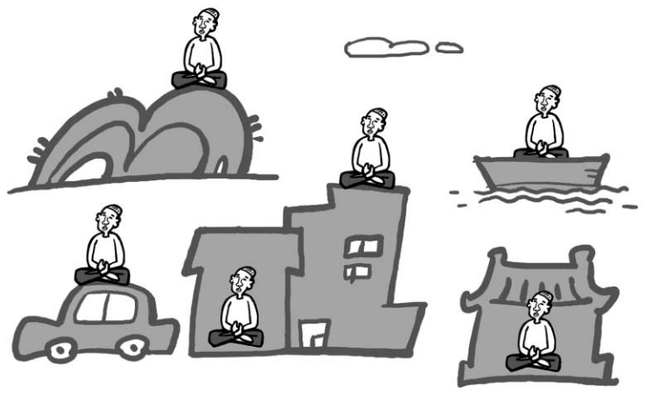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지켜보고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가오는 거 거기다 맡겨 놓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 사고가 난 걸 보았는데,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요, 차를 받쳐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구요. 차 운전수 불들고 야단이죠, 안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니, 운전수에다 모든 걸 한데 모아서 맡겨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질문자1: 두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려되옵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가는 것 일부러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꼴꺽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꼴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이 도리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는 안 되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1: '주인공, 당신!' 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고장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고 놓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고, '네가 벌려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둘로 보지 마세요. '주인공!' 하고 상대를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를 하고, 형성을 해서 모든 게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헤어졌으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것이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질문자1: 네번째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회(懷)자 같은 고장에서는 머물고 회(會) 자 같은 데는 감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스님의 뜻으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스님: 이것을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뿌리와 나무 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내는 자, 즉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거기 머무르며 행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 때는 감추고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어린이: 큰스님, 한마음 내어주세요.

▲스님: 왜?

▲어린이: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스님: 좋았어. 그래. 한마음을 내달라고 안 해도 네 마음으로 한마음을 낸다면 한마음이 된단다.

▲질문자2: 저의 안식구가 두 달 전부터 원인 모르게 어지럽고 일어나지를 잘 못하고 그래서, 울산 부산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별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스님께 말씀드립니다.

▲스님: 처사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어찌 압니까 마는, 하여튼 처음 오셨습니까?

▲질문자2: 예.

▲스님: 그러면, 오늘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저녁부터라도 나을 수 있는데요. 어느 보살네가 원주에서 교육감으로 있을 때인데, 어느 날은 그 집에 내려왔는데 볕안간에 허우적허우적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뇌염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뇌염에 많이 걸렸을 때였어요. 뇌염에 걸려서 몸을 비틀고 그러는 애들이 20명 된대요, 병원에. 그런데 자기 애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거길 왔더라구요. 그때는 지금처럼 놓는 도리를 가르쳐 주지도 못했으니까 알았다고 대답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3분이 안 돼서 정상이 되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모두들 왜 공부 안 하겠어요? 자기 자성신은 외면하고 타신을 믿고, 뭘 해달라고 온통 야단법석들이니 부처님께서 49년 설하고 가르쳐주신 길을 어디 가서 찾죠?

▲질문자3: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스님: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불법이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야. 생명이 있으니깐 불이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란 얘기지. 내 생명, 영원한 근본, 근본이자 생활이지.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벗어나서 불법이 따로 있을 수가 있나,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질문자3: 불성 자체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불성 없는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나기 전에 암흑세계에서도 바람과 흙과 물과 같이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된 거야. 삼합이 한데 합쳐지자 거기서 온기가 생기니까 불도 거기서 생긴 거지. 한데 합쳐서 생명이 생긴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니까 광력을 얻은 거야, 광력이 얻어지니까 생산이 된 거지. 미생물로서 생산이 돼가지고 수없이 겪어왔어. 공룡시대, 무슨 시대 하고 겪어오면서 발전이 된 거지. 그래 인간까지 발전이 된 거야.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면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이런 컵도 우리 마음과 인연이 되고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살아 있는 거야. 컵이라는 것을 봐주고, 써 주는 인연이 있고, 담고 써 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지.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라구. 움죽거리고 있다 이 소리야.

▲질문자4: 스님을 오늘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도 자꾸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해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놔버리고,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것,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맡겨 놓고 가는 길이지, 공부하는 데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질문자4: 예,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말고 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살아나가는데도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무엇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합니까

들이고 내는 일체 모든 것이 내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믿고 놓으며 돌아가면 그대로 참선입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듯, 그닐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觀自在菩薩行心般若波羅密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

"이제 종교도 디지털이다"

종교문화 콘텐츠화 방향 학술대회

디지털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종교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유무형의 종교문화들이 어떻게 콘텐츠로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찰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용)는 원광대종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29일 서울 브렝땅백화점 종교문화센터에서 '한국종교문화의 콘텐츠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3년 한국종교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한림대 한림과학원 정진홍 교수(한국 종교문화의 전개)와 일본 일교대(一橋大) 안환량부(安丸良夫) 명예교수(종교문화의 사상적 어프로치)가 기조 강연을 했고 7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현재의 현상을 단순 진단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종교문화가 어떻게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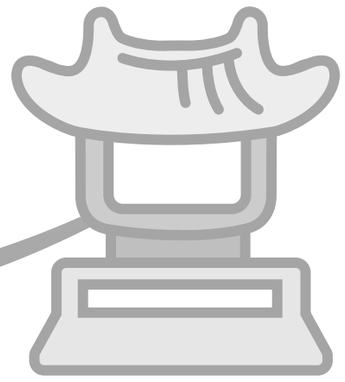
홈피 전유물 아닌 시대 반영 돼야
인문학자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보조사상연구원 김방용 연구원은 '한국종교계 홈페이지 운영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각 종교 홈페이지는 이미 개별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종교의 중심적 목표가 비록 포교에 있다하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보화사회 속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하나의 공간이자 의사소통의 새로운 언어이기에 종교지도자들도 이같은 새로운 언어로 자신의 종교세계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하며 더 이상 교단적 권위로서 군림하는 종교지도자는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 콘텐츠화의 현단계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원광대 한문학과 이남희 교수도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의 접목은 기록 문화 자료의 보존 전승,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증진, 영화 · 캐릭터 등 문화산업의 기초 자료 제공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작업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인문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사학회 양은용 회장은 "문화의 시대, 지식정보화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있어 인류는 종교로부터 무엇을 얻으며 과연 종교는 이러한 인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최근 종교계 내지 종교학계에 가장 큰 이슈"라며 "한국의 종교문화를 콘텐츠화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보는 작업을 통해 종교문화가 진작되면서 종교 그 자체가 민중의 귀의처로서의 의미를 거듭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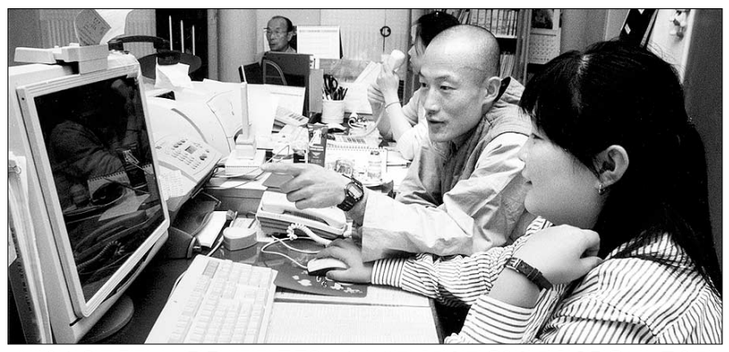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전남 장성 백양사 (www.baekyangsa.org)

정보마인드 공유 백양사의 또다른 힘



◇백양사 원주 광덕 스님과 전산담당 종무원 장세실 씨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19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는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참사람 무차법회가 열렸다. 전국의 선방 수좌를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무차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양사를 찾았다. 당시 많은 네티즌 불자들은 또다른 놀라움을 경험했다. 전남 장성, 그것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법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00여년의 전통을 지닌 백양사는 이미 전통사찰이라기 보다 현대를 앞서가는 사찰이었다. 그 이후에도 백양사에서 열리는 무차대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많은 불자들이 큰스님의 법문을 가정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무차법회 생중계 할 정도로 기술력 '튼튼'
인등, 경전 서비스 등 신행공간 역할 '톡톡'

2000년도에 이미 무차대회를 생중계할 정도였다면 백양사의 정보 인프라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종무소는 물론 소임 스님방과 참사람 수행원 등 사찰 곳곳에 인터넷 선이 깔려 있고 전통 강원에서도 컴퓨터실을 둬 학인스님들의 공부에 활용하고 있다. 사찰 소임을 맡은 진우, 현묵 스님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를 받는 등 스님들이 앞장서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사중의 정보마인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백양사 홈페이지는 정보사회에 앞서가는 백양사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장 서옹 스님의 법문을 볼 수 있고 소임 스님들이 올리는 수행이야기 산중한담도 불자들과 스님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백양사에서 펼치고 있는 참사람 운동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찰 수련법회 신청도 할 수 있어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법당에는 금강경을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인등을 밝힐 수 있다.

정보사회에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방장 서옹 스님의 원력과 소임 스님들 간의 정보마인드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 그래서 일찍부터 종무소에 홈페이지 관리 전담 종무원을 배치하고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전통사찰 백양사를 현대사찰 백양사로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세계불교청년우의회 (http://www.wfby.org)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는 19개국 37개 청년불교 단체가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홈페이지에는 WFBY 소개와 각 지역 산하단체 연락처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WFBY는 2004년 1월 9~1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IT단신

국가지식정보 '대단해요!'

540여 기관, 1억 9500만건 서비스

국가문화유산 및 지식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국가지식포털'이 문을 열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문화유산, 예술, 과학기술, 역사 등 국가기관의 자료 1억 9500만건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지식포털(http://www.knowledge.go.kr)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국가지식포털은 국가기관의 검증된 전문지식을 무료로 음성, 동영상, 원문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

게시판 엿보기

⊙군포교에서 어려운 점은 보조금입니다. 병사 이승환군의 어머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저희 만불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입니다.
병기엄마 도리사 다음카페 자유게시판

⊙'한생을 살면서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했지만 우리나라에 수천개의 사찰이 있으니 그래도 불법 만나기는 쉬울 듯 합니다. 그러니 불법보다 해인수련동문 되기가 불법 만나기보다 분명히 더 어렵겠지요.
초심 해인사수련동문회 다음카페 우리들의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생한 내 업식의 비춤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 것이야말로 생활수행, 업장소멸의 공부입니다.
목탁소리 사람사는 얘기 게시판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차량용 가정용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인도그림기행 28

우리에게 '사리'는 무엇인가?

그림·글 이호신

생명의 길과 진리의 빛

(파트나 풍광과 바이살리 스투파)



◇파트나 가는길(94×41.5cm).

파트나 가는 길 만다라 세계 펼친 듯
스투파 돔으로 장식한 사리방 신선
2차 경전 결집 장소였던 바이살리
유산과 어울리는 담장 조형미 빛나

다시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진다.

파트나(Patna)로 가는 길은 생사(生死)의 투영으로 한껏 나그네의 심경을 잡아끈다. 비하르(Bihar)주의 삭막하고도 처절한 빈곤은 때아닌 눈보라처럼 시리게 하나, 둘 가슴에 다가와 젖는다.

나팔소리에 차창을 비껴보자 꽃장식 들 것에 실린 죽음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유족들. 그런데 슬픈 표정은커녕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웅성대며 따라가는 모습이 실로 가관이다.

통행세를 내라고 흰 띠를 도로 양쪽 가로수에 묶어두고 두 팔로 길을 막아서는 도로법에 없는 행위들. 곡예하듯 차에 매달리고 차 지붕에 물건처럼 포개진 채 실려가는 사람들의 표정. 때로 눈길이 마주치자 여인들은 사리로 얼굴을 덮어버린다. 한편 무너진 담장에 걸쳐놓은 현란한 빛깔의 빨래, 담벼락에 쇠똥을 붙이는 장면이 스치는가 하면 트랙터에 노오란 꽃을 장식하고 힘차게 일터로 향하는 풍광도 이채롭다.

장터를 방불케 하는 정류장 주변은 마차와 노점상, 걸인과 차량으로 뒤범벅인데 여전히 등뼈가 솟은 소들만은 유유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 무리의 낙타들이 갑작스레 나타나 도로를 점령하니 모두들 차에서 내려 볼거리에 한동안 신이 났다.

다시 탑승한 차는 파트나박물관에 정차한다. 선사유물과 함께 온갖 동물들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화첩에 담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선 붓다 진신사리 방은 개인당 100루피를 지불하고서야 문이 열렸다. 델리박물관 이후 2번째 사리친견은 들뜬 여행자의 소회를 한 순간 잊게 한다.

사리는 스투파돔으로 장식한 내부에 모셨는데 그 발상과 이미지가 매우 신선하다. 그리고 사방 벽에는 붓다의 생애를 새긴 아주 우수한 부조들이 걸려있다. 이곳 사리는 바이살리(Vaisali)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토지역(바이살리 박물관)의 반환요구로 더욱 경계가 삼엄하다는 후문이다.

차는 이제 갠지스강의 마하트마 간디 다리를 넘어선다. 그리고 저무는 대지와 마을을 향해 끝없는 질주 끝에 아쇼카왕의 이름을 딴 숙소에 머물렀다. 바이살리는 갠지스강을 건너 하지뿌르(Hajipur)의 북서쪽 32km지점에 해당하는데 예전부터 북인도 일대의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로 발달한 곳이다.

붓다 입멸 후 약 100년경 계율에 관한 새 해석을 놓고서 행해진 제 2차 경전 결집의 무대가 된 곳이라 한다. 또한 재가불교(在家佛敎)의 태동이라 할 유마거사(維摩居士)의 등장이 시작되는가 하면 기녀(妓女) 암라팔리(Amrapali)가 망고나무 동산을 붓다와 제자들에게 공양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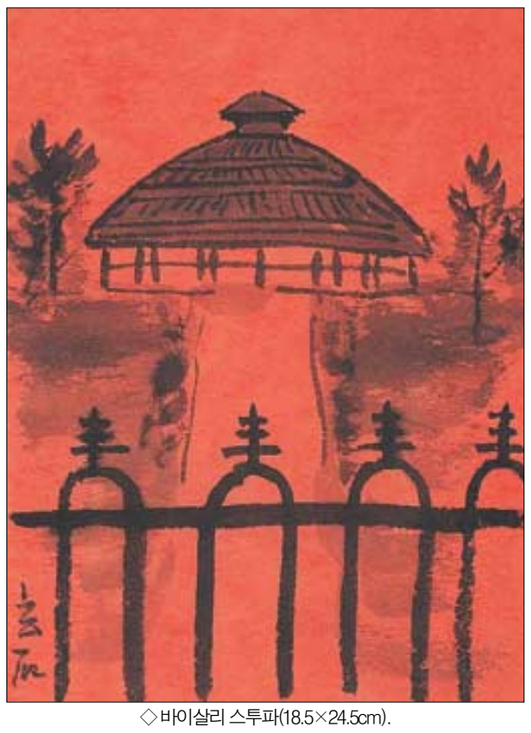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여전히 짙은 안개속을 걸어서 제2결집 장소였다는 꾸마라하(Kumrahar) 연못을 찾아가자 부러진 석주만이 흔적을 보여줄뿐 돌계단은 연못에 잠겨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바이살리박물관으로 가는 길목. 모닝커피 대신 따끈한 짜이로 모처럼 여정의 낭만을 풀어본다. 어둡고 눅눅한 나무집에서 아궁이 화덕에 빛바랜 용기로 차를 끓여 따라주는 노파의 손길.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따스한 인정은 억겁의 연(緣)이다. 그녀 이마에는 또렷이 붉은 점, 치렁치렁한 팔찌도 붉고 그 마음도 붉다. 일행이 찾은 박물관은 거의 인근 스투파에서 출토된 유물 소장품이라 하므로 그 현장을 향해 곧바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리'는 진정 무엇인가?

붓다의 친견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한갓 눈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순례라는 명분아래 신발만 닳는 수고에 그칠 뿐인즉.

어쨌든 붓다 입멸 후 8등분된 사리를 분배받은 당시의 바이살리 릿차비족은 이곳에 사리를 모시고 스투파를 세웠었다. 그러나 그 후 파손되었다가 1958년에야 발굴된 사리 터가 오늘 찾은 레릭(Relic) 스투파이다.



◇바이살리 스투파(18.5×24.5cm).

잘 정비된 도로 끝으로 스투파 돔이 한눈에 들어오니 어제 본 파트나의 사리장치가 떠오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스투파는 발굴당시 상태를 그대로 노출, 까마득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중 구조의 원형으로 벽돌쌓기를 했고 양편은 ㄷ자로 돌출한 형태에 중앙은 깊은 홈으로 파였는데, 아마도 그곳에 사리함이 묻혔을 터이다. 이곳을 발굴한 알테카르(A.S. Altekar)에 의하면 발굴당시 이곳 스투파의 기단부에서는 붓다의 유골이 아닌 유회(遺灰)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일행들이 스투파를 돌며 탑돌이를 진행하는 틈을 타 화첩을 펼치는데, 담장 입구쪽에서 손짓하는 이가 있다.

"이 화백 이리와 봐요. 정말로 멋진 담장을 구경하세요, 그리고 꼭 그려가세요."

철심으로 만든 투각의 울타리는 자세히 보니 모두 스투파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병렬된 투각의 형상과 이미지는 스투파 지붕선과 함께 매우 잘 조화된 조형미로 빛난다.

나그네는 이 멋진 울타리 앞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떠올려야만 했다. 우리도 우리 문양과 양식을 토대로 한 유물 담장이 이처럼 척 어울리게 개발될 수는 없을까. 이젠 한국의 탑과 부도도 거친 쇠붙이로 '접근금지'의 울타리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경우처럼 내용에 걸 맞는 형식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불현듯 두고 온 고국산천의 보물들이 떠올려진다. 안개 개인 하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모처럼 나그네는 향수에 젖는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천년고찰 효일사에 우담바라 꽃이 나투셨습니다.

효일사 우담바라 친견대법회 및 100일 기도 안내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년고찰 소래산 효일사는 보물 제1324호로 지정된 마애관음성지가 있는 기도영험도량으로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지역 불법홍포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불기2547(2003)년 12월 2일 오전 5시 30분 경 대웅전 부처님 상호에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성스러운 우담바라 꽃이 12송이 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마애관음보살님과 대웅전을 향해 1시간 20분 동안 피어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이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천년고찰 효일사에 나투신 우담바라를 봉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0일 용맹정진 기도와 원로 대덕 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우담바라 친견대법회를 봉행코자 합니다.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세생생 만나기 어려운 우담바라 친견대법회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00일기도 입재일 : 불기 2547년 12월 5일 (음,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 100일기도 회향일 : 불기 2548년 3월 15일 (음,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친 견 대 법 회 : 불기 2547년 12월 21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1부 우담바라 친견 대법회
제2부 연예인 축하공연
⊙ 동 참 문 의 : 효일사 종무소 ☎ (031)404-0707 팩스 : (031)404-0709

대한불교 조계종 천년고찰 효일사 주지 성타 合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산 148-2 ☎ (031) 404-0707 팩스 : (031)404-0709